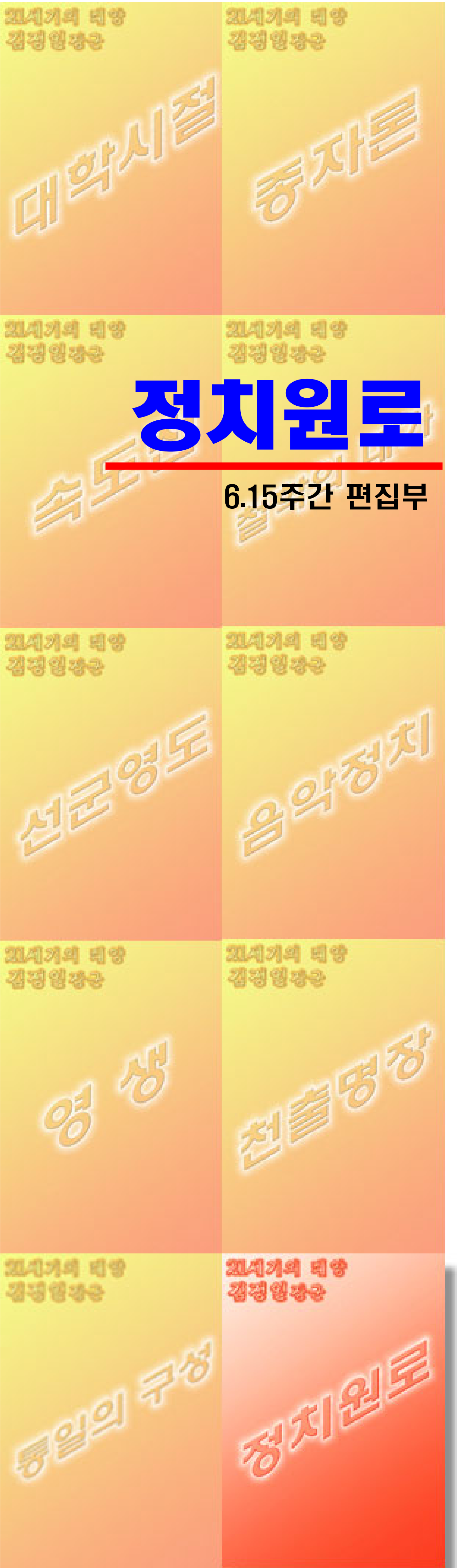
21세기 태양

10

정치원로



6.15주간 편집부



정치원로

6.15주간 편집부

시

교시

노작

한민전 중앙위

정치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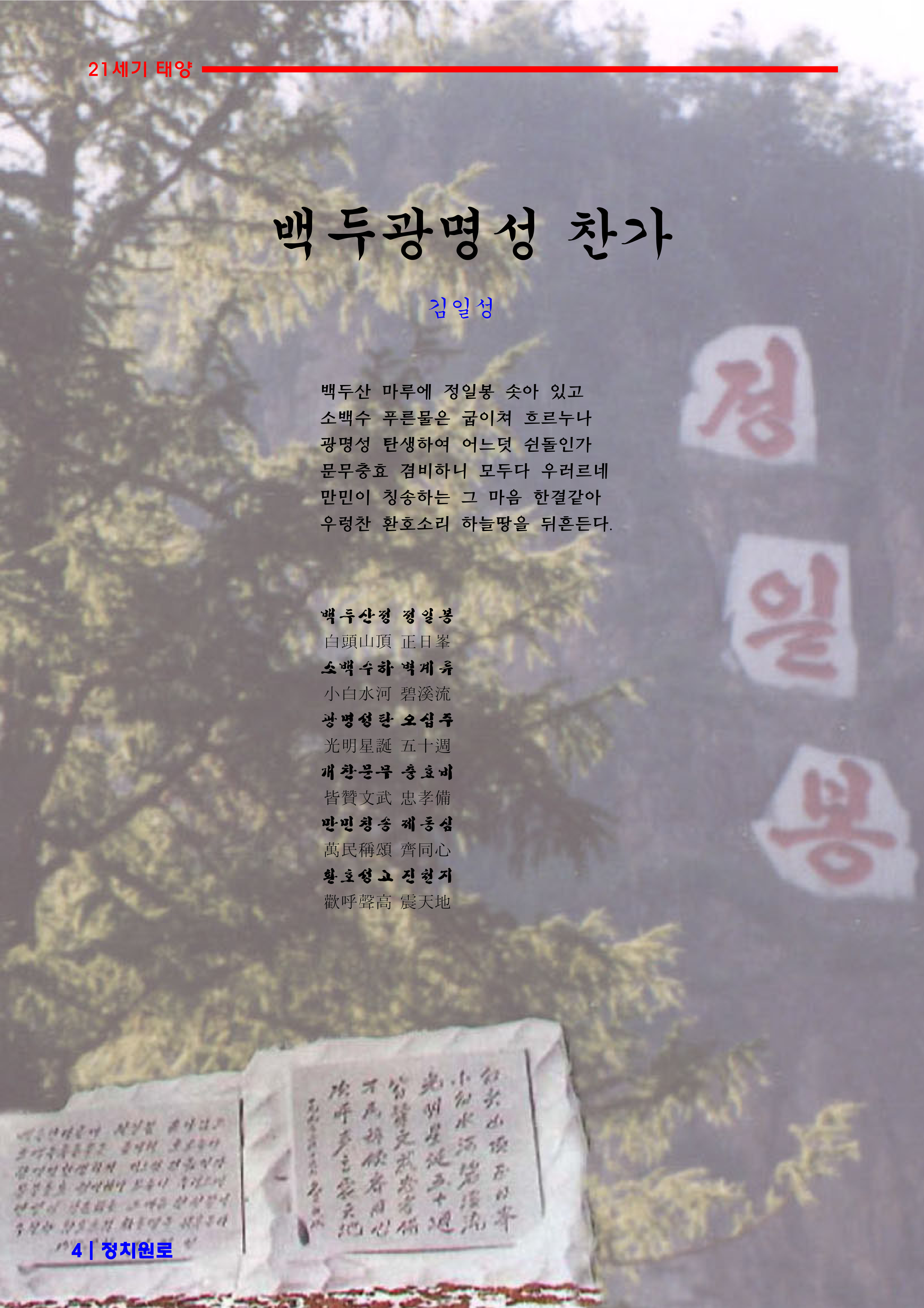
당중앙위 활동 35년

사회주의수호

주체외교



대학시절
종자론
속도전
철학의 대가
선군영도
음악정치
영 생
천출명장
통일의 구성
정치원로



백두광명성 찬가

김일성

백두산 마루에 정일봉 솟아 있고
소백수 푸른물은 굽이쳐 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쉰돌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백두산정 정일봉
白頭山頂 正日峯
소백수하 벽계류
小白水河 碧溪流
광명성탄 오십주
光明星誕 五十週
개찬문무 충효비
皆贊文武 忠孝備
만민칭송 제동심
萬民稱頌 齊同心
환호성고 진천지
歡呼聲高 震天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위대성에 관해 하신 교시

≪**김정일**동지는 사상이론의 대가이며 강한 실천형의 지도자입니다. 인류역사의 위대한 사상이론과 강한 실천력, 그리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모두 겸비한 위인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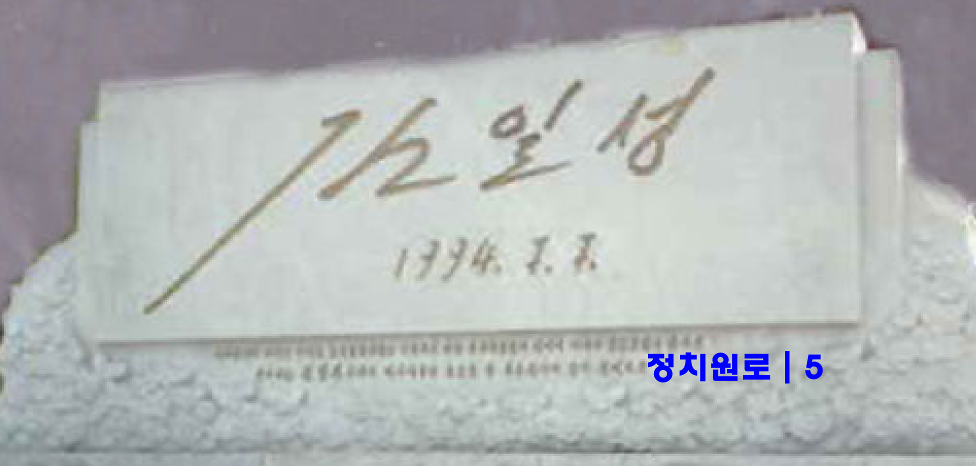
≪**김정일**동지는 천재중의 천재입니다. 그는 모든 분야에 능통한 인류역사가 낳은 위인들 중에 위인입니다. 한 인간이 모든 지성과 재능을 최고봉의 경지에서 겸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김정일**동지를 전설적인 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대전성기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영도의 결과입니다. 오늘 **김정일**동지의 영도 밑에 우리 당은 강위력한 불패의 당으로 존엄을 떨치고 있으며 우리 군대는 무적의 강군으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인민으로 세인을 놀래우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를 주체의 강국으로 일떠 세운 **김정일**동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김정일**동지는 조선의 운명이며 태양입니다. 오늘 조선은 **김정일**동지의 의지와 신념에 따라 전진하고 그의 세련된 영도 밑에 **김정일**조선으로 융성번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는 주체조선의 상징이며 미래입니다. **김정일**동지의 영도 밑에 앞으로 주체혁명위업은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나는 **김정일**동지의 영도가 탁월하기 때문에 조선의 미래에 대하여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융성번영하는 시대로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빛날 것입니다. 나는 21세기에 대하여 마음을 놓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 이따르-따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주체90(2001)년 7월 24일

이따르-따스통신사에서 나에게 인터뷰를 제기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로 두 나라사이의 관계와 그 발전전망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조선과 로씨야는 국경을 접한 이웃나라이며 조로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친선관계입니다. 조로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조로친선을 귀중히 여기며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있은 우리 두 나라 지도자들의 평양상봉은 조로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이 로씨야국가수반으로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것은 조로 두 나라 관계발전에 커다란 기여로 되였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울라지미르 뿌찐대통령과의 상봉에서 우리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공통된 의지와 입장으로 하여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으며 호상이해와 신뢰를 두터이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회담과 담화들에서 쌍무관계문제와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었으며 회담결과에 따라 조로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려는 우리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통된 의지와 지향을 내외에 선포하고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우리들의 일치한 견해와 입장을 천명하는 조로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조로공동선언과 지난해 2월에 체결된 조로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조로친선관계의 발전을 담보하는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선언과 조약에는 조로친선협조관계의 원칙과 발전방향이 명백히 규정되여 있으며 정치와 대외관계, 국방과 안전, 쌍무적인 경제협조와 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두 나라 관계발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조로공동선언과 조로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 호상신뢰와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강화발전되게 되였습니다.

조로친선관계의 발전전망은 매우 좋습니다. 평양상봉이후 두 나라의 광범한 사회계와 인민들속에서는 조로친선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열의가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동선언과 조약의 정신에 따라 지금 우리 두 나라사이에 경제와 군사, 과학기술, 교육,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관련한 실천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조선과 로씨야는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쌍방의 의지가 확고하고 그것을 담보하는 공동선언과 조약이 있고 수십년간 상호 긴밀히 협조한 전통도 있는것만큼 적극적인 행동조치들을 취한다면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전면적으로 확대발전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조로친선협조관계가 새 세기, 21세기에 훌륭히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국가지도자들사이의 대화는 나라들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들사이의 관계가 두터우면 나라들사이,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가 좋게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뿌찐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이제 곧 로씨야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씨야를 방문하여 모스크바에서 뿌찐대통령과 다시 만나는것은 기쁜 일이며 친선적인 로씨야인민들과 상봉하면 나에게 커다란 감회를 불러일으키게 될것입니다. 나는 우리들의 당연한 모스크바상봉이 지난해 평양상봉에서 이루어진 두 나라 지도자들사이의 관계를 두터이하고 조로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새로운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에 대하여서는 이 문제가 미국이 우리를 걸고 드는 문제이기도 하므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그 무슨 ≪미싸일위협≫을 들고 나오면서 미

싸일방위체계를 세우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로씨야와 맺은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을 파기하려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시도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을 통하여 전략적안정을 유지할데 대한 로씨야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의 ≪미싸일위협≫에 대하여 떠드는것은 완전한 무근거한것이며 저들의 지배주의적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조선이 미싸일로 미국을 위협하며≫ 그로 하여 ≪미국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야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더우기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조선의 미싸일위협≫에 대하여 떠들다 못해 이제는 우리의 상용무력의 ≪위협≫까지 들고 나오는것은 언어도단이며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횡포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미싸일강령은 순수 평화적성격을 띤것이며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평화적인 미싸일강령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협하는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우리를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아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또한 우리 나라와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의 전망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 일본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이미 20세기에 파산당한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새 세기에 또다시 들고 나와 조미관계개선의 길을 가로 막고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경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것은 어제도 오늘도 통할수 없는 헛된 시도입니다.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자주정치, 우리의 자주적 대외정책은 일관하며 확고부동합니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그 어떤 도전에 부닥치든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것이며 자신이 선택한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갈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성의 호상존중에 기초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라도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린다면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일본이 지난 시기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죄행을 깨끗이 청산하는 문제가 기본입니다. 죄많은 과거를 덮어 두고서는 관계개선이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반동적지배층은 저들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도리여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며 그것을 영영 묻어 버리려고 분별없이 책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과거청산문제에 대하여 성근한 입장과 태도로 나오며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적대행위를 그만 둔다면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할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당신들은 내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털어 놓고 말하여 나에게는 하여야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야하며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을 통일하기전에는 시간을 낭비할수 없는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취미에 대하여 말한다면 내가 제일 좋아 하는것은 인민들과 군인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것입니다.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가를 알아도 보고 돌보아도 주며 그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나누고 고락을 같이 하는것이 나의 가장 큰 보람이고 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읽기와 음악을 좋아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책과 음악은 우리 사업의 양식이며 생활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로씨야인민에게 친선의 인사를 보내며 강력한 로씨야와 훌륭한 생활을 건설하기 위한 로씨야인민의 투쟁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1세기 태양이신 민족의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백두에서 솟아오른 21세기의 태양을 우러르는 만민의 축하와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남녘민중은 다함없는 경모심을 안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가장 뜻 깊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으로 찬란한 20세기가 21세기로 이어지는 새 세기의 첫해 민족 최대, 인류공동의 경사로운 명절 2월 16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끝없이 설레이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민족과 인류의 다함없는 축원 속에 탄생일을 맞으시는 21세기의 태양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애국민중의 일치한 염원과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항일대전의 불길 속에서 백두산의 위대한 아들로 탄생하신 것은 우리 겨레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며 태양민족으로 복락할 대행운을 받아 안은 일대 경사였으며 20세기와 더불어 영원할 태양의 21세기를 선언한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애국애족의 혈통을 이어 위인의 천품을 타고 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태양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시는 수십여 성상의 장구하고도 영광된 노정 위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높이 쌓아 올리셨습니다.

희세의 철학가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범한 예지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 하시고 자주시대의 향도이념으로 비상히 발전풍부화하심으로 하여 민족과 인류는 사회주의위업, 자주위업완성의 위력한 사상이론적 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에 의해 자주의 역사가 힘차게 전진하는 위대한 **김정일**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대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드시어 수령영생위업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어버이수령님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건당, 건국, 건군 업적을 찬란히 빛내이신 것은 **김일성**민족의 무궁번영과 영광스러운 **김일성**세기와 더불어 길이 전할 대공적입니다.

출중한 실력과 걸출한 영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온 사회를 사랑과 충성, 믿음과 의지로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리시어 주체조선을 인류사가 처음 보는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 만방에 빛을 뿌리게 하시었습니다.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이북민중이 추호의 동요 없이 수령결사옹위, 혁명적 군인정신을 발휘하여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높이 울리고 있는 것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미증유의 기적과 위훈을 연이어 창조하고 있는 것도, 미제와의 첨예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전고를 높이 올리며 20세기를 주체조선의 세기로 빛나게 장식한 것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걸출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더욱이 천하제일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정치사에 있어 본적 없는 선군혁명영도로 주체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수호하시며 새 세기의 특유한 정치방식인 선군정치로 강성대국건설의 새 시대를 펼쳐 놓으시어 민족사와 인류사에 특기할 정치신화를 창조하시었습니다.

오늘 이북민중이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라는 전투적 구호를 높이 들고 자신감과 낙관에 넘쳐 수령숭배찬가 영원한 동지애의 노래 를 높이 부르며 21세기 사회주의 붉은기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 있는 벅찬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께서 이끄시는 주체조국에서만 볼 수 있는 장엄한 대서사시적 화폭입니다.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견지명과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분단 55년 동안 이룩할 수 없었던 조국통일의 역사적 과제들을 한순간에 실현하시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온 겨레가 대단결하여 민족분열을 끝장낼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 불멸의 공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일류의 영수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영도와 높으신 국제적 권위로 하여 주체조선은 동서방의 온 세계가 찾아오는 지구촌의 중심으로 높이 솟아 빛나고 있으며 인류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 덕망에 의해 승리하며 전진하는 영광 찬란한 **김정일**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영도천품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불멸할 대업적을 이룩하신 만고절세의 위인이시며 20세기가 받들어 올린 21세기의 태양이십니다.

백두광명성으로 솟아오른 연대로부터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경모해 오는 남녘민중은 오늘 어버이 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에 넘쳐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민족자주사상은 한민전과 남녘민중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고 장군님의 위대한 자주정치, 선군정치는 우리들을 승리에로 고무추동하고 있으며 장군님의 숭고한 인덕정치, 광폭정치는 남녘민중을 끝없이 매혹시키며 통일열기로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열기로 지금 온 남녘 땅은 세차게 설레이고 있으며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 오며 민족의 강성부흥도 문제없다는 확신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린 철석의 신념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승리의 자신감 드높이 새 세기의 요구에 걸맞게 위대한 주체의 기치를 더 높이 치켜들고 한민전과 통일운동대오를 경애하는 장군님을 투쟁실천으로 받드는 진짜배기 충신대오로 튼튼히 다지며 장군님에 대한 각계민중의 숭배심을 더욱 분출시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통일구상과 조국통일 3대헌장을 높이 받들고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가열차게 벌여 새 세기의 첫해인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21세기 조국통일실현에서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 놓는 결정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새 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모심으로 하여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며 21세기는 민족통일의 세기, 통일강성대국의 세기로 영광 빛날 것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경사로운 2월의 이 아침,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애국민중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21세기의 태양이시고, 민족의 운명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체 90 (2001)년 2월 16일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인간원로≫

공산당련맹-쏘련공산당리사회위원장의 글



(평양 주체 87년 8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평양의 신문들은 공산당련맹-쏘련공산당리사회 위원장 올레그 쉐닌의 글 ≪인간원로≫를 실었다.

필자는 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간적수양에 있어서 최고의 년장자이시고 숭고한 인간미로 만민을 이끌어가시는 로련한 지도자이시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수령중심, 인민숭배, 미래사랑은 **김정일**동지의 생의 3대좌우명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지니신 고결한 도덕의리와 인정미, ≪외유내강≫의 인품미에 대하여 쓰고있다.

그이께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사이의 관계, 국가령도자와 인민대중사이의 관계를 ≪심부름군≫과 ≪주인≫, ≪제자≫와 ≪스승≫사이라는 독특한 관계로, 사랑과 존경의 관계로 이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장의행사를 가장 높은 도덕적수준에서 주관하시였으며 주석을 더 잘 모시기 위한 숭엄한 행사들을 련이어 거행하시여 인류를 감동시키시였다.

또한 주체년호와 태양절을 제정하시여 수령영생력법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지난해 설날에는 다른 나라의 국가지도자들이 흔히 걷는 화려한 연회장이나 교외의 개인별장으로가 아니라 진눈까비가 지꾸게 내리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을 찾으시여 친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받는 믿음보다 주는 믿음이 앞서야 하고 믿음을 주되 크게 주어야 하며 한번 믿음을 주면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것이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믿음관이시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이 깃든 웃음의 신조를 지니신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의 포위환이 좁혀지고있는 속에서도 예나 변함없는 웃음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후련히 해주시고 제국주의공세를 녹여버리신다.

조선에서 긴장상태가 조성될 때마다 세계는 적들의 도발과 위협공갈에 담대한 배심으로 대처하시는 **김정일**동지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았다.

단신으로 배심좋게 전선에 또 전선, 적과 불과 수메터거리에 있는 최전연인 판문점시찰은 오직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그이께서 만이 하실수 있는 일이였다.

만사람을 매혹시키는 인간미로 인간대화원을 아름답게 장식해가시는 위대한 인간, 전세, 현세, 후세에서 맞지 못했고 맞을수 없는 희세의 인간원로를 모심으로 하여 세계에는 새로운 인간진화의 력사가 펼쳐지고있는것이다.

로숙하고 현명한 정치가 김정일동지

로동신문 론설

(평양 주체 87년 10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19일부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로숙하고 현명한 정치로 사회주의를 빛내여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라고 강조한 장문의 론설을 실었다.

론설의 필자들은 사회주의정치, 인민을 위한 새 시대를 창조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시는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고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신 대정치원로이시라고 강조하였다.

론설은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높이 모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수 있는 모든 자질과 풍모를 완전무결하게 지니신 인민의 위대한 정치가이시라는데 대하여 론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전에 일찌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문무충효를 겸비한 정치가라고 높이 칭송하시였다.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효성과 고결한 도덕의리, 정치와 군사를 옳게 결합시켜 능란하게 풀어나가는 령도적수완과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 비상한 정치감각과 혁명적전개력은 그이의 특출한 자질이며 풍모이다. 정치에서 로숙하고 군사에서 비범하고 경제와 문화에서 박식하고 외교에서 원숙한 다재다능한 정치가, 무적의 장군이 **김정일**동지이시다.

론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정치철학을 튼튼히 틀어쥐고 일관성있는 정치, 신념있는 정치를 실시해나가고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론설은 그이의 정치철학은 주체사상이며 정치리념은 인민대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보고 정치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정치철학으로 틀어쥐고나가심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인덕정치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고계신다.

그이께서 실시하시는 인덕정치의 본질은 인민대중이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게 하는 정치,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정치, 인민들에게 값높은 삶을 실제적으로 누릴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주는 정치이다. 그이의 정치적좌우명은 자주성을 지키는 길이 애국의 길, 륭성번영의 길이며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것이다.

론설은 세계가 격찬하는 **김정일**식정치방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론설은 **김정일**동지특유의 정치방식은 선군정치라고 하면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여기에 위대한 **김정일**식정치의 근본특징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론설은 또한 기존공식이나 관례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것을 조선식으로 풀어나가는 창조의 정치, 림기응변하는 령활무쌍한 정치,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치방식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력한 정치방식은 일단 결심하면 끝장을 보고야마는 완강한 실천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김정일**정치는 불가능을 모른다고 강조하였다.

론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치는 단 한번의 실패도 모르는 백전백승의 정치, 영원무궁한 생명력을 가진 위대한 정치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그이의 정치의 불패성은 그것이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조선인민들속에서 조선로동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내는 원천으로 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김정일령도자는 현시대의 탁월한 정치가

각국인사들 담화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 단장들과 대표들이
드리는 축하를 받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

(평양 주체 88년 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57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인사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뽈스까좌익급진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볼레스와브 야슈츄크는 담화에서 조선이 최근년간에 있은 혹심한 자연재해와 제국주의의 압살책동속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와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한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선견지명과 비범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일**령도자는 현시대의 탁월한 정치가이시라고 지적하였다.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인디아로조중앙총서기 엠. 케이. 판데이는 담화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감보쟈내무성 국무비서 탄씨나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일**각하께서 조선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신것은 조선인민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실 절세의 위인을 맞이한 일대 경사였으며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에 밝은 미래가 펼쳐진력사적사변이였다. 존경하는 **김정일**각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각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세계적인 정치원로

뽈스까친선협회 대표단 단장

(평양 주체 88년 1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얼마전 조선을 방문하였던 뽈스까조선친선협회 대표단 단장인 뽈스까조선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제1부위원장 따데우슈 바유꼽스끼가 귀국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회견에서 **김정일**령도자는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을 지니신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며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뛰여난 령군술로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희세의 정치가,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라고 하면서 그이는 30여성상에 걸쳐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령도하여 오신 위대한 정치원로이시라고 말하였다. 숭고한 도덕의리와 충효심을 지니시고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것이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에서 가장 위대한것이라고 하면서그는 나라가 분렬되고 제국주의자들의 일시적인 침략위협을 받는 불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본보기를 창조하시고 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하신것이 또한 그이의 업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의 높으신 권위는 우주에 찬연히 빛나고있으며 세계는 실지 체험으로부터 그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있다고 하면서그이를 모시여 21세기는 사회주의위업,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진보적인류가 승리하는 세기로 빛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위인 김정일

로씨야 빠뜨리오뜨신문사 론평원

(평양 주체 88년 12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로씨야 빠뜨리오뜨신문사 론평원 이리나 삐로고바가 ≪위인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글에서 **김정일**령도자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고무자, 조직자, 향도자이시며 무적필승의 걸출한 령장이시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을 특징지어주고있는 인민적풍모로 하여 그이는 인민대중과 굳게 결합되여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그이께서는 위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재능을 다 겸비하고계신다고 하면서 그이의 독창적 창조적 구상은 현대조선건축의 기념비적창조물들에 구현되여 수도 평양과 온 나라를 장식하고있으며 사람들의 끊임없는 경탄을 자아내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이의 령도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미치고있지만 그이께서 가장 중시하시는것은 당 및 국가건설, 경제발전과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포위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는 오늘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군대를 기둥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나가는 선군정치방식을 펴고계신다. 이 정치방식은 나라와 인민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선견지명의 정치이다.

그이는 참으로 다재다능하시고 비범한 분이시다. 그이는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미증유의 과제들을 주체의 원리에 따라 제시하시고 뛰여난 지혜와 강의한 의지로 풀어나가시는 주체사상의 불패성의 상징이시다. 참으로 **김정일**동지는 시대와 인류가 은 위대한 태양이시며 21세기를 빛내이실 력사의 위대한 향도자이시다.

≪세계정치원로 김정일각하≫

우간다에서 뷸레찐 발행

(평양 주체 89년 6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6돐에 즈음하여 25일 주체사상연구우간다전국위원회에서 ≪세계정치원로 **김정일**각하≫라는 제목의 뷸레찐을 발행하였다.

뷸레찐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일찌기 정치지도자로서의 뛰여난 자질과 풍모를 지니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실력,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로동당과 인민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 그이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인류의 자주위업의 지도사상으로, 현시대의 위대한 정치철학으로 완성하심으로써 조선혁명과 전반적사회주의위업의 필승의 진로를 밝혀 주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이 새 시대에 들어 서게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당, 일심단결의 전위부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독특한 선군정치와 인덕정치로 조선식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사회주의보루를 튼튼히 다져 놓으신것은 그이의 업적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무적필승의 군사력과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오늘 조선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오늘 조선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 있으며 세계 사회주의운동과 반제자주위업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세계정치원로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공적은 주체사상과 더불어 인류의 자주위업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당사업을 패기와 정열에 이끌어 나가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

김정일총비서의 당중앙위 사업시작 35돐행사

김정일총비서의 당중앙위 사업시작 35돐행사

각국

(평양 주체 88년 6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에 즈음하여 마다가스까르, 탄자니아, 가이아나에서 강연회, 독보회,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 학계, 출판보도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사회주의조선의 운명과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35년간 조선을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본보기가 되도록 이끌어오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김정일총비서 당중앙위원회사업 35돐을 기념

각국

(평양 주체 88년 6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에 즈음하여 마다가스까르, 가이아나, 우간다에서 2일과 3일 영화감상회와 사진전시회, 강연회와 독보회가 진행되였다.

행사들에서 참가자들은 **김정일**각하께서는 20대에 강위력하고 존엄높은 당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조선을 정치와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사회주의의 본보기로 이끄시였다고 말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백두밀영고향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김정일총비서 당중앙위원회사업35돐기념행사

각국

(평양 주체 88년 6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에 즈음하여 프랑스, 마다가스까르, 에티오피아, 뽈스까에서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행사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35년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연설자들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령역에서 위대한 전변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김정일총비서당중앙사업 35돐을 각국에서 기념

(평양 주체 88년 6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5일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에서는 친선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 연설한 협회 스톡홀름지부 위원장은 **김정일**동지께서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시기 위한 복구사업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해나가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벌리고있는 투쟁에 전적인 련대성을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5일과 8일 범아프리카운동에서는 조선 사진전시주간 개막식이, 마다가스까르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략력에 대한 독보회가, 가이아나조선친선협회에서는 조선영화 ≪영광빛나는 백두산고향집≫에 대한 감상회가 진행되였다.

당중앙위원회사업 35돐로 수리아대사관에서 연회

(평양 주체 88년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주재 수리아아랍공화국 림시대리대사 바쌈 알하쥬 후쎄인이 17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비서, 백남순외무상, 조선수리아친선협회 위원장인 림경숙재정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연회에서 연설한 수리아림시대리대사는 지난 35년간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군대와 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의 길, 미제와 그 동맹자들을 쳐부실 최후승리의 길을 밝혀주시여 현명한 위인으로서, 사상가로서, 지도자로서의 뛰여난 지략과 풍모를 잘 보여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난관을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고 하면서 나라의 통일위업도 반드시 실현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수리아와 조선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사이의 특별한 친선협조관계가 위대한 지도자들이신 **김정일**동지와 하페즈 알 아싸드투사동지의 념원과 의지에 의하여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최태복비서는 연설에서 오늘 수리아 당과 정부와 인민이 존경하는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통일, 자유, 사회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적통일과 나라의 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수리아 당과 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을 변함없이 지지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두 나라 당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날로 더욱 긴밀해지고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이친선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총비서 당중앙사업 35돐 기념행사

각국

(평양 주체 88년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시작하신 35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메히꼬, 레바논, 에티오피아, 에짚트에서 경축모임,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 강연회가 진행되였다.

로씨야재생≫자유애국련합 위원장 왈레리 스꾸를라또브는 모임에서한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난 35년간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이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위대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 사회주의보루로, 세계 진보적인류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으며 로씨야에서 사회주의를 재생하기 위하여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메히꼬인민사회당 국제비서는 우리 나라 사진전시회개막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일찌기 조선로동당과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과 반사회주의자들의 온갖 내정간섭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조선의 사회주의를 불패로 다지신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당중앙사업 35돐 행사

각국

(평양 주체 88년 6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에 즈음하여 에티오피아, 리비아, 우간다에서 행사들이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 실업계 인사들과 각계층 군중들이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 연설자들은 **김정일**동지의 지난 35년간의 당령도사는 세계 정치사에 특기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승리와 영광의 력사이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조선과 세계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거대한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하실것을 기대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 하여 조선은 사회주의 강국으로서 세계혁명적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김정일총비서 당중앙사업35돐행사

각국

(평양 주체 88년 7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에 즈음하여 인디아, 말레이시아, 마다가스까르, 파키스탄, 탄자니아에서 행사들이 있었다.

행사들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35년전부 터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사회주의조선의 운명과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이는 비범한 예지로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세계에서 가장 강유력한 당,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희세의 령도자이시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로동당중앙위원회사업 35년의 불멸의 업적

조선중앙통신



전국 당선전일군 강습회에서 결론하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 63(1974)년 2월

(평양 주체 88년 6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진보적인류는 세계적판도에서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때로부터 35돐(6. 19) 이되는것과 관련하여 그이께 뜨거운 축하를 드리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신뢰와 칭송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지난 35년간 당을 혁명의 무기로 하여 이땅우에 번영의 년대들을 수놓아오시였다.

60년대에는 당사상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문학예술분야에서 혁명의 불길을 지피시여 조선을 ≪20세기 혁명적문예부흥의 발원지≫로 세상에 자랑떨치시였다.

그리고 주체63(1974) 년 2월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선포하시고 자연과 사회, 사람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사업을 진두지휘하심으로써 70년대와 80년대의 전성기를 안아오시였다.

그리하여 경제건설력사에 ≪70일전투≫와 같은 성과가 기록되고 은률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과 무산-청진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을 비롯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는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평양산원, 창광거리와 문수거리 그리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진행된 광복거리를 비롯한 260여개 대상건설 등 나라의 막강한 국력을 보여주는 ≪평양번영기≫도 마련되였다.

서해갑문과 북부철길,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제3선광장 건설 등≪80년대 속도≫의 열풍속

에서 솟아난 모든 창조물마다에도 **김정일**령도자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있다.
90년대에 들어와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조선은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을 겪게 되였다.
여기에 며채째 지속된 혹심한 자연재해로 인민경제 전반에서 생산이 감퇴되여 인민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일상적인 소비품마저 제대로공급할수 없게 되였다.
조선의 혁명력사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특징짓는 이 력사적시기에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철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혁명의 준엄한 난국을 헤치시였으며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시고 사회주의조선을 수호하시였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하던 때에 이땅우에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그 힘으로 위성보유국의 대렬에 당당히들어서 **김일성**조선의 위상을 만방에 떨치고 강성대국을 일떠세울수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한것도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령도를 떠나서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심으로 하여 조선의 전도는 창창하다.
세계는 머지않아 강성대국으로 부상한 조선의 현실을 보게 될것이다.

김정일총비서 35년동안의 군대사업현지지도

조선중앙통신

(평양 주체 88년 6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인민군대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하여 현지지도의 자욱을 끊임없이 수놓으시였다.
1960년대말까지 5년동안에만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많은 인민군 부대, 구분대들과 군사교육, 과학, 예술, 출판보도, 체육 단체들을 찾으시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64(1975) 년 1월 1일 전군을 주체사상화하여 인민군대를 완전무결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만드는것을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년대와 년대를이으시며 정력적인 군령도의 나날들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군종, 병종부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35년동안 해군부대들을 180여차례나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1980년대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군령도는 1990년대에 들어와 더욱 강화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0(1991) 년 12월 24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후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더욱 줄기차게 이어가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위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4년동안에만도 300여개에 달하는 인민군 군부대, 구분대들을 현지시찰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올해에도 제324대련합부대, 금성친위 제615군부대, 금성친위 제959고사포병군부대, 최현군관학교를 비롯한인민군부대, 구분대들과 군사교육기관 등을 련이어 시찰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 당중앙사업 35돐기념 중앙보고대회



(평양 주체 88년 6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념하여 평양의 4. 25문화회관에서는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전병호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주체53(1964) 년 6월 19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확고히 담보한 력사적사변이였다고 보고자는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그이는 당과 국가, 군대의 령도자로서 35년이란 장구한령도사를 수놓아오신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현시대의 가장 로련한 정치원로이시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조선로동당과 혁명대오의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놓으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혁명위업앞에 쌓아올리신 최대의 공적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이 특히 지난 5년간의 투쟁속에서 더욱 힘있게 과시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이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는 사회주의정치의 귀감이며 조선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라고 보고자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은 그이를 모시고있기에 조국과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고 혁명의 종국적승리가 확고히 마련되여있다는것을 철석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충효일심으로 더 잘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대회에는 김영남을 비롯한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총비서 35년간의 정력적인 지도

조선중앙통신

(평양 주체 88년 6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지난 35성상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니시고 75만여리의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면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나날 10년세월이 넘는 3, 900여일을 현지지도길에서 보내시였으며 연 7, 400여개 단위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상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문학예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 부문 단체

들을 1, 900여차례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35성상 인민무력부문의 1, 900여개 단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 주체혁명위업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 억세게 키우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최근5년동안에만도 12만여리의 로정을 거쳐 인민군대안의 430여개단위를 현지시찰하시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시여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수호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총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오시면서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창조와 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다. 지난해 1월 그이께서는 눈보라 사나운 6, 000여리 로정우에서 자강도의 19개단위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자력갱생의 정당성을 확증하시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뚫고나가는 강계정신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과학과 기술로 강성대국을 건설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은 과학원을 비롯한 과학연구기지들에도 뜨겁게 이어져 최근년간에만도 100프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첫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한것을 비롯하여 100여건의 세계적인 과학기술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불멸의 35년

로동신문

(평양 주체 88년 6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18일부 ≪로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35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불멸의 35년≫이라는 제목의 정론을 실었다.

정론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선견지명있는 혁명령도를 이어 당건설을 군건설과 함께 진행하시여 주체위업완성과 강성대국건설의 가장 강력한 2대기둥, 2대무기를 마련하신것이 조선의35년사에 실려있는 그이의 공적중의 최대의 공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론은 조선의 지난 35년간은 류달리 복잡하고 시련에 찬 시기였으나 이나날 조선의 혁명군대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가장 현명한 령도를 받았고 당은 혁명군대의 가장 믿음직한 보호와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하였다.

정론은 보통으로는 열번도 더 무너지고 페허로 되였을 전대미문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용약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 오늘의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밑바탕에도 35년전부터 함께 건설해온 불패의 당과 강군의 위력이 놓여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론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의 전력사를 더듬어보면 조선로동당사업을 령도하시는 그이의 옆에는 언제나 혁명군대가 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군대를 강화하여 당을 강화하고 혁명적군풍으로 당풍을 세워나가는것은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어려있는 숭고한 뜻이다.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고 그 위력과 모범이 곧 조선로동당의 기질로, 모습으로 되여 전당이 총대처럼 정예화되고 튼튼히 다져졌다.

조선로동당과 혁명군대는 오늘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계급적원쑤들과의 대결에서도 금성철벽, 자본주의황색바람을 흩날려보내는데서도 금성철벽, 제국주의반동들의 비렬한 훼방을 쳐갈기는데서도 금성철벽이다.

조선혁명의 35년사는 정녕 당이자 군대이고 군대이자 당이라는 이 위대한 혁명철학으로 고동친 력사이며 이 강철의 의지를 따라 당건설과 군건설이 함께 진행되고 주체위업완성과 강성대국건설의 필승의 담보가 마련된 위대한 력사이다.

정론은 총대로 개척한 위대한 력사, 총대와 함께 건설한 위대한 당을 가지고있는 조선혁명은 영원히 백전백승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주의보루를 지킨 빛나는 수호의 6년

구국전선 / 기 성 철, 주체90, 5월 1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불멸의 혁명실록을 엮어오신 지난 6년간은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수고 사회주의보루를 지킨 영웅적 수호의 6년이었다.

이 시기는 이북에 있어서 참으로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이 시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세계반동들은 사회주의보루인 이북을 압살함으로써 이 행성위에 사회주의가 없는 일극세계의 질서를 세워보려고 정치군사적 압력과 집요한 경제봉쇄, 비열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했다. 그런데다가 여러해동안 자연재해까지 계속되어 이북은 엄혹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준엄한 시련 속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이북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는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비범한 지략과 탁월한 영군술로 적들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시었다.

이북이 준엄한 시련을 겪던 시기 미제는 새 전쟁도발책동에 더욱 광분했다. 미제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방대한 미군병력과 이남의 ≪국군≫ 그리고 일본 ≪자위대≫를 동원해 해마다 도발적인 군사훈련 소동을 벌이었고 그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갔다. 대규모전쟁연습만 해도 1994년에 들어와서 급격히 늘어나 32건에 달했고 1995년에는 37건으로 늘어났다. 미제는 제2의 한반도 침략전쟁계획까지 짜놓고 새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적들이 해마다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여놓고 이북을 군사적으로 위협해 나설 때마다 조선인민군이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하심으로써 놈들의 침략기도를 산산히 분쇄해 버리시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1994년 12월 이북측 지역에 불법침입한 미군헬기를 단방에 쏴떨구었으며 1997년 7월 강원도 평강군 천암리 앞 군사휴전선 일대에서 있은 적들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철저히 짓부숴다.

특히 1998년에 들어와서 이북을 군사적으로 말살하려는 미제의 무모한 침략기도는 위험계선을 넘어섰다. 미제는 있지도 않는 ≪지하핵시설의혹≫과 ≪미사일개발≫을 구실로 임의의 시각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며 ≪작전계획 5027-98≫까지 짜놓고 이미 그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인 1998년 12월 조선인민군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인민군은 미제침략군의 도전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숙히 경고함으로써 적들의 기를 꺾어놓고 놈들의 침략기도를 물거품처럼 만드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조선인민군은 불은 불로 다르시며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사실과 도발자에게는 시체와 죽음밖에 안겨질 것이 없다는 이북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제국주의자들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뿐아니라 외교적 대결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었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외교적 대결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 적들을 굴복시켜야 하는 심각한 대결전이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고압강경, 자주외교로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던 미제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놓고 놈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만드시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 미제는 이북의 사회주의를 압살해 보려고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있지도 않는 ≪핵개발≫을 놓고 위협공갈하는 한편 국제기구를 발동하여 집단적인 압력을 가했다. 미제는 국제원자력기구를 부추겨 이북에 대한 ≪특별사찰≫결의안을 채택하게 하고 이북의 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까지 끌고가 무슨 ≪제재≫에 대해서 떠들어댔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미제를 회담장에 끌어내다 놓고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어 놈들이 옴짝달싹 못한채 손을 들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명안들을 연속 제시하시였다.

회담장에 끌려나와 막다른 궁지에서 더는 벗어날 수 없게 된 미제는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던 체면도 다 줴버리고 조미기본합의문에 수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클린턴미국대통령은 영도자님께 경수로제공과 대용에너지 보장과 관련한 담보서한까지 올리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항복서나 같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영도자님께서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을 굴복시키고 항복서까지 받아내게 하신 것은 세계 외교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승리였다.

조미사이의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후 연락사무소개설과 관련한 협상,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련한 정부간 협상, 경수로제공협상, 미사일협상, 고위급회담 등 이북과 미국간에는 여러 갈래의 협상과 회담들이 계속되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이 외교전에서도 조미기본합의문을 이행하도록 미국을 호되게 답새기며 연전연승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어 민족의 존엄과 안녕, 자주권을 세계만방에 떨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보루인 이북을 고립압살해 보려고 경제봉쇄와 제재책동을 여러 분야에 걸쳐 감행하고 있는 환경에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며 미제의 경제봉쇄와 제재책동을 단호히 짓부수도록 이끄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사회주의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적 소유를 굳건히 고수하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이북의 사회주의경제는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의 경제토대, 자기의 경제구조를 살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전당과 전민이 간고분투, 자력갱생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적대시정책과 경제제재책동에 단호하고도 강경한 자세로 맞서 투쟁하도록 함으로써 적들의 기도를 여지없이 짓부숴 버리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의 천재적 예지와 탁월한 영도로 경제봉쇄와 제재책동이 맥을 추지 못하게 되자 미제는 1999년 9월과 2000년 6월 이북에 대한 일련의 경제제재완화를 실행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북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지난 50여년동안 가해오던 제재조치들이 해제되어 일반상품에 대한 무역과 농업, 상업 등 경제분야에 대한 투자, 상업용 선박 및 비행기들의 이용, 일부 금융거래 등이 허용되게 되었다.

이처럼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엄혹한 정세와 준엄한 시련 속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군사적 및 외교적 대결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어 적들의 경제봉쇄, 제재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사회주의보루를 철옹성같이 다지도록 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참으로 지난 6년간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수고 사회주의보루를 지키신 빛나는 수호의 6년이었다.



조국통일과 세계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전진의 6년

구국전선 / 기 성 철, 주체90, 5월 21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불멸의 혁명실록을 엮어오신 지난 6년간은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진의 6년이었다.

조국통일은 경애하는 주석님의 평생의 위업이었으며 절절한 염원이었다. 주석님께서는 나라의 분열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었으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 주시려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 놓여있다 하더라도 경애하는 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시고 이 민족사적 위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1997년 8월에 발표하신 역사적 명저≪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규정해 주시었다. 조국통일의 3대헌장에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고 집대성되어 있다.

영도자님께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을 정립해주심으로써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한생을 바쳐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근본초석, 정치강령, 휘황한 설계도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또한 1998년 4월 역사적인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영도자님께서 밝히신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가장 공고한 기초위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에 놓고 굳게 단합할 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고 있는 민족단합의 기치이며 지침이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민족대단결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민족대단결성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을 역사적 이정표를 받아 안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남과 북, 해외의 광범위한 통일애국역량을 묶어세워 통일운동을 자주적인 전민족적 운동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끄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남과 북, 해외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1994년 제5차부터 1999년 제10차 범민족대회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8.15를 계기로 범민족대회를 성대히 개최하도록 하심으로써 겨레의 통일의지와 열망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도록 하시었다. 특히 조국광복 50돌 민족통일대축전은 그 내용과 형식에서 전례가 없는 통일대회합으로서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자랑찬 한페이지를 장식하였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한없이 넓으신 도량과 포옹력을 지니시고 민족적 양심이 있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 과거경력에 관계없이 다 한품에 안아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 주시었다.

영도자님께서는 ≪세계일보≫사장이며 세계평화연합 공동의장인 박보희와 문익환목사의 부인 박용길여사를 친히 만나주시고 한없는 은정을 베푸시었으며 현지지도의 바쁘신 길에서도 이북을 방문한 재미동포 여류기자 문명자에게 크나큰 믿음이 어린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었다.

특히≪현대그룹≫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과 가족일행을 친히 만나주시고 하늘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세인을 경탄시키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해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시었다. 영도자님께서는 1996년을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해≫로, 1997년을 ≪민족자주, 평화수호를 위한 북, 남, 해외의 연대의 해≫로 정하도록 하시었으며 1998년에는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었다.

이처럼 위대한 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이 비상히 강화되고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통일을 위한 길에서 역사적 전환이 이룩됨으로써 경애하는 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

을 실현할 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이러한 성과들에 기초하여 분단역사상 처음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도록 하시었다. 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와 정력적인 활동에 의해 지난해 6월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국토양단후 처음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남북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신뢰와 화해를 도모하며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겨레의 대단합과 통일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한 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또한 6년간 세계 사회주의위업, 자주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시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것을 기회로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며 반사회주의책동과 선전공세를 대대적으로 벌이었다. 영도자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으로 하여 사회주의운동이 일시적으로 시련을 겪게 된 어려운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종합하시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우선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단신으로 짓부숴 나가시는 엄혹한 역경 속에서도 세계 사회주의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불면불휴의 사상이론활동을 벌이시어 현시대 사회주의대강을 마련하시었다.

영도자님께서는 주체83(1994)년 11월1일에 발표한 역사적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 명저들을 연이어 발표하시었다.

영도자님께서는 고전적 저작≪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사람위주의 사회주의는 가장 과학적이고 우월하며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라고 밝히시고 사회주의가 기회주의에 의해 일시 가슴아픈 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승리한다는데 대해 독창적으로 밝히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다음으로 평양선언≪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를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채택하도록 하시었다.

평양선언은 사회주의위업의 진리성과 정당성, 그 종국적 승리의 필연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류에게는 승리의 자신감과 혁명적 투지를 안겨주었으며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해 떠들어 대면서 반사회주의 광증을 일으키고 있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세계의 진보적 정당들은 평양선언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들과 인류의 염원을 반영한 투쟁의 기치, 제2공산당선언≫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투쟁강령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기초하여 투쟁과제를 제시하였다. 선언에 서명한 당은 채택될 당시 20여개였다면 1999년 11월 초에는 250개로 늘어 났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사회주의재건운동의 중심에 서시어 세계 사회주의운동이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힘있게 전진하도록 이끄시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는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복잡한 정세에 대처하여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세계 사회주의운동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 주시었으며 사회주의를 훼방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궤변을 짓부수면서 세계 사회주의운동을 승리에로 전진시켜 나가시었다.

사회주의위업을 어떻게 전진시켜 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그것을 영도하는 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 있다.

영도자님께서는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역사적 교훈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적 당재건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시었으며 몹시 바쁘신 속에서도 세계 진보적 정당 당수들과 이름난 정치활동가들을 몸소 만나시어 혁명적 당재건의 앞길을 밝혀 주시고 그들이 조선노동당의 투쟁경험을 따라 배우도록 하시었다. 하기에 세계의 많은 진보적 정당들은 위대한 영도자님을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수호자로,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위대한 영도자로 끝없이 경모하면서 주체사상을 자기 당의 지도사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혁명적 당재건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자기의 영향력을 부단히 확대강화하고 있다.

오늘 진보적 인류는 위대한 영도자님을 ≪21세기의 태양≫,≪21세기가 맞이한 위대한 영도자≫, ≪세계 사회주의의 수령≫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끝없이 경모하고 따르고 있다.

참으로 지난 6년간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국통일과 세계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과 전진의 6년이었다.

붉은기는 위인을 따른다

구국의 소리 / 로씨야 평화 및 통일당위원장 싸쥐 우말라또바, 주체89, 9월 24일

혁명의 상징이며 정의의 기치인 붉은기는 세기와 세기를 이어 승리와 영광도 아로새기고 역풍과 광풍도 헤치며 인류의 진보를 위한 투쟁의 길우에 꿋꿋이 휘날려 왔다.

성스로운 붉은기도 영도자를 잘 만나야 그 가치와 존엄이 빛난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이 말을 나는 이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고 나서 비로소 터뜨리게 된다.

조선에서 당창건 55돐을 앞두고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들끓던 시기에 이 나라를 찾은 나는 성스러운 붉은기를 자랑스럽게 날리며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존엄높은 모습에서 실로 강렬한 충동을 받았다.

그 어떤 격변하는 정세속에서도 혁명의 붉은기를 끄떡없이 휘날리는 조선.

1920년대에 위대한 **김정일**주석께서 높이 추켜드시여 조선혁명의 연대들마다에 힘차게 휘날려 오시였고 그이의 후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변함없이 계승하시여 꿋꿋이 지켜 가시는 조선의 붉은기는 참으로 70여년전에나 70여년후에나 그 선명하고 진한 색조도 그대로였고 그 거세차고 위용있는 펄럭임도 그대로였다.

조선의 존엄, 사회주의의 존엄인 **김정일**장군의 붉은기.

그 기발의 힘찬 펄럭임에 나의 마음속 격동의 박자를 맞추며 나는 붉은기는 위인을 따른다는 철리를 새롭게 새겨 안았다.

제국주의자들과 역사의 온갖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이 더욱 횡포해지고 거기에 자연의 광란까지 겹쳐드는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더욱 힘차게 휘날리는 조선의 붉은기.

정말 볼수록 그 모습이 장하고 아름다우며 그 기상이 또한 위대하고 위풍 당당하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붉은기의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그 선명하고 진한 붉은 색조를, 억센 기상의 상징으로 그 힘찬 펄럭임을 꼽아왔다.

그러나 나의 견해는 조선의 붉은기의 아름다움과 기상을 외형적으로 일반적인 측면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조선의 붉은기에 고유한 아름다움과 기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나는 붉은기는 위인을 따른다는 철리를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다시말하여 붉은기의 위대함은 영도자의 위대성에 따른다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정녕 조선의 붉은기는 **김정일**동지의 한없이 고결한 사상정신 세계와 인간미를 닮아 그처럼 아름다운 것이며 그이의 장군식 정치와 장군다운 기질이 비껴있어 그처럼 기상이 도도한 것이 아니겠는가고 나는 주저없이 말하고 싶다.

김정일동지께 있어서 붉은기는 곧 선대수령과 혁명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유산으로,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정신도덕적 재부로 되고 있다.

김정일주석을 삼가 붉은기 폭에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고 조선의 항일혁명선열들의 넋이 고이 안치되여 있는 혁명열사릉에 백두의 붉은기가 장엄한 배경을 이루며 나붓기도록 해주신 **김정일**동지의 깊은 뜻을 새기면 생길수록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한폭의 붉은기에 비낀 위대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심장으로 절감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주석과 항일혁명선열들의 영전을 누구보다 더 찾고 찾으시여 붉은기를 바라보시며 의리의 맹세를 말없이 다지시는 분이 다름아닌 **김정일**동지이시다.

김정일주석의 한생이 어리여 있고 혁명선열들의 고귀한 피로 물들여진 혁명의 최대 유산인 붉은기에 단 한점의 티, 단 한끝의 변색도 있게 한다면 그것은 곧 혁명적 도덕



의리를 더럽히는 것으로 된다는 신조를 마음속으로 되뇌이시며 그이께서는 붉은기를 영원히 순결하게 지켜가실 의지를 철석같이 다지신다.

실로 붉은기 수호는 의무이기 전에 의리이고 양심이여야 한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역사를 돌이켜보아도 신성한 붉은기에 먹칠을 하고 붉은기 대신 딴 기발을 꺼내 든 혁명의 변절자, 배신자들은 예외없이 수령과 혁명선배들에 대한 도덕의리를 저버린 자들이였고 선열들의 유산을 팔아먹고도 양심상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였다.

이에 비추어 조선의 붉은기는 혁명적 도덕의리의 변질이 곧 붉은기의 변색과 매장을 빚어낸다는 교훈을 절절히 깨우쳐 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위인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어리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조선의 붉은기.

나는 변색없는 그 붉은 색조에서 혁명에 대한 **김정일**동지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되며 한점의 티도 없는 그 깨끗한 기폭을 통해 그이의 고결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경건히 우러르게 된다.

붉은기는 곧 **김정일**동지의 철의 신념과 의지의 상징이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주의 붉은기가 사나운 자본주의 칼바람에 처참하게 대를 꺾이여 땅바닥에 버려졌던가.

붉은기의 존재가 유지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엄혹하던 시각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이것은 나의 사상이 영원히 붉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사회주의 필승의 신념의 상징으로 붉은기를 높이 추켜드신 **김정일**동지.

제국주의자들이 지구상에서 붉은기를 영영 없애버리려고 발악할수록 더 보란듯이 휘날리려는 억척같은 결심, 더러운 변절자, 배신자들이 붉은기를 버리고 달아난다 하더라도 혁명가는 붉은기를 더 높이 들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지니시고 그이께서는 그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혁명의 붉은기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힘차게 휘날려 오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붉은기에 대한 노래인 적기가 를 무척 사랑하신다고 한다. 붉은기를 사랑하기시에 혁명적 신념을 사랑하시기에 그이께서는 붉은기 신념이 맥박치는 적기가를 즐겨 부르신다.

. . .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 . .

정녕 들을수록 붉은기 신념이 끓고 부를수록 붉은기 수호의 의지가 백배해지는 노래이다. 그것은 그대로 오늘의 인터나쑈날, 21세기의 인터나쑈날이다.

지난 연대들에 전 세계 노동계급이 해방투쟁과 무산혁명을 호소하는 인터나쑈날을 부르며 지구상의 곳곳에 사회주의 붉은기를 세워왔다면 오늘 우리들, 공산주의자들은 붉은기 수호의 의지를 다져주는 적기가 를 심장으로 부르며 사회주의의 재생과 새로운 앙양을 위한 새 세기 투쟁의 길에 용약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확언하는 바이다.

실로 장군의 신념과 의지에 받들리고 장군의 신념과 의지로 강한 기치이기에 조선의 붉은기는 영원히 내리워지지 않는 새로운 붉은기 역사를 긍지높이 아로새기고 있는 것이다.

역사에는 붉은기가 반동들의 총검에 눌리워 맥없이 내리워진 실례가 적지않게 기록되여 있다.

총대는 있었어도 그것을 무시한 탓에 붉은기를 지켜내지 못한 비극도 없지 않다. 그러나 조선의 붉은기는 혁명의 총대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해가는 무적의 기치, 불패의 기치이다.

붉은기 수호는 사상과 사상의 대결인 동시에 총과 총의 대결이다.

말공부나 맨 주먹으로는 절대로 붉은기를 지킬 수 없다.

적에게는 용서를 모르고 혁명에는 배신을 모르는 정의의 총검만이 붉은기를 옹호할 수 있고 붉은기의 충실한 동행자로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붉은기 수호관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붉은기와 혁명의 총대를 불가분리의 관계로 보시는 **김정일**동지의 이 철학적 신조가 결코 하루이틀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혁명의 첫걸음마를 떼신 58년전의 역사의 그날부터 그이께서는 늘 혁명의 총대와 붉은기를 함께 안고 사시였다.

조선인민이 혁명의 성지라고 숭엄히 부르며 찾는 백두산밀영에 가게 되면 창공높이 휘날리는 붉은기를 보게된다.

붉은기 날리는 그 성지에서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장군의 기상을 타고 탄생하시였고 그 붉은기 아래에서 부모님들로부터 혁명의 군복과 총을 받아 안으시였다.

붉은기 정신이 장탄된 그 총을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그이께서는 백두산유년시절에 벌써 붉은기는 총대로 지켜야 한다는 진리를 터득하시였으며 모진 설한풍파속에서 백두의 붉은기를 혁명의 총대로 옹위하는 장군으로 성장하시였다.

혁명의 총대로 굳건히 지켜지고 승리해 온 백두의 붉은기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 **김정일**장군식의 독특한 정치방식인 선군혁명영도의 기치로 변함없이 계승발전되고 있다.

위대한 혁명의 장군의 영도따라 총대의 믿음직한 옹위속에 전진하는 선군기치, 조선의 붉은기의 위력앞에 적들은 무서워 떨며 감히 어쩌지 못하고 있다.

조선의 붉은기는 위대한 인간이신 **김정일**동지의 뛰여난 인간적 매력과 고상한 정서가 비껴있어 그처럼 아름답고 신성한 것으로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들은 그 밝고 밝은 기폭에서 위인의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마음속으로 뵈옵고 그 힘찬 펄럭임에서 위인의 활달하고 기백넘친 모습을 심장으로 목격하고 있다.

타오르는 불길마냥 열렬한 그 기발의 모습은 정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시며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활동으로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김정일**동지의 뜨거운 열정미를 닮은 것이고 그 기발의 정갈한 모습은 한없이 소박하고 겸허하신 그이의 순결미를 닮은 것이다.

그이의 풍부한 정서세계에는 언제나 붉은기가 놓여있다.

즐겨 부르시는 노래도 붉은기에 대한 노래이고 경멸하시는 인간들도 붉은기를 버리는 자들이다.

천출위인의 고결한 사상정신적 높이를 아로새기는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기발인 동시에 위인의 사상정신적 위력으로 위엄있게 나부끼는 기치인 조선의 붉은기.

실로 붉은기이자 **김정일**동지이시고 한생을 붉은기와 함께 사시는 그이이시기에 나는 장군께서 지켜가시는 붉은기를 스스럼없이 그이의 존함으로 부르고자 한다.

김정일붉은기.

누구든지 반사회주의 역풍에 몸이 흔들리고 제국주의자들의 궤변에 정신이 흐려질 때 사회주의 성새우에 꿋꿋이 서서 창공높이 휘날리는 **김정일**붉은기를 바라보라.

그러면 저절로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에 새 힘과 용기가 솟구쳐 오를 것이다. 이와 같이 후련한 기분을 나는 조선에서 여러 계기들에 진행된 군중시위 장면을 찍은 영화화면들을 볼 때마다 늘 느끼군 한다.



시원한 붉은기 바다를 이루고 청신한 붉은기 바람을 일구며 도도히 굽이쳐 흐르는 군중시위 대오의 붉은기 종대들.

그 줄기찬 붉은기 흐름을 보며 나는 저것이 **김정일**붉은기로 일색화된 조선의 일심단결의 모습이 아니겠는가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저 일심단결의 세계의 일심단결에로 뻗어가고 그 단결의 중심이신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신념이 어린 사회주의 붉은기, 혁명의 붉은기가 지구상 곳곳에서 휘날려 지리라고 굳게 확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언젠가 미국의 소리방송이 전한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해 보게 된다.

백수십년전 맑스가 웨친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는 단결하라! 라는 역사적 구호는 미구에 북조선 공산주의자들, 그 수령에 의해 끝끝내 실현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고백이 아니다.

서방의 언론계까지고 공식 인정한 **김정일**동지에 의한 전 세계공산주의자들과 진보적 인민들의 통일단결.

오늘 인류는 그것을 벌써 현실로 보고 있다.

제3국제당 코민테른이 조직당시에는 20개의 당이 망라되여 있었으며 20여년이 지나서는 60여개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에 비추어볼 때 평양선언 에 서명한 진보적 정당들의 수는 초기의 70개로부터 오늘은 250여개에 이르렀으며 그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평양선언 이 나온 때로부터는 8년밖에 안되지만 수백개의 정당들이 서명한 역사상 전례없는 오늘의 현실은 평양선언 의 비할바없이 강한 생활력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평양선언 이 추켜든 사회주의의 새로운 앙양의 기치아래 수백수천만의 공산주의자들가 진보적 인민들이 하나로 뭉쳐 연이어 붉은기발을 내들었다.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평양선언 의 붉은기가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

세계의 그 붉은기들은 위인 **김정일**동지를 따른다.

조선인민만이 아닌 붉은기를 추켜 든 세계의 수백수천만 공산주의자들과 진보적 인민들이 **김정일**동지께서 가리키시는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의 길을 따라 신심 드높이 전진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비록 비렬한 책동으로 몇 개의 붉은기를 내리우고 쾌재를 올렸을 수도 있었어도 수백수천만개로 뭉쳐진 이 붉은기 대하를 결코 막을 수도 흐트릴 수도 없다.

거세차게 전진하는 붉은기 대하의 한복판에 승리와 영광의 기치인 **김정일**붉은기가 거연히 서 있는 한 그 대하는 침략과 약탈, 투항과 배신, 부패와 타락 등 역사의 온갖 오물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붉은기로 정화되고 일색화된 세계, 붉은기처럼 순결하고 생기발랄한 세계를 기어이 안아 올 것이다.

21세기는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것처럼 사회주의가 없는 세기 가 아니라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확신하는 바대로 제국주의가 없는 세기 로 될 것이다.

나는 붉은기를 제일로 사랑하시는 장군, 붉은기 수호전의 최전연에서 계시는 장군이신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붉은기의 존엄도 빛나고 붉은기의 오늘과 내일도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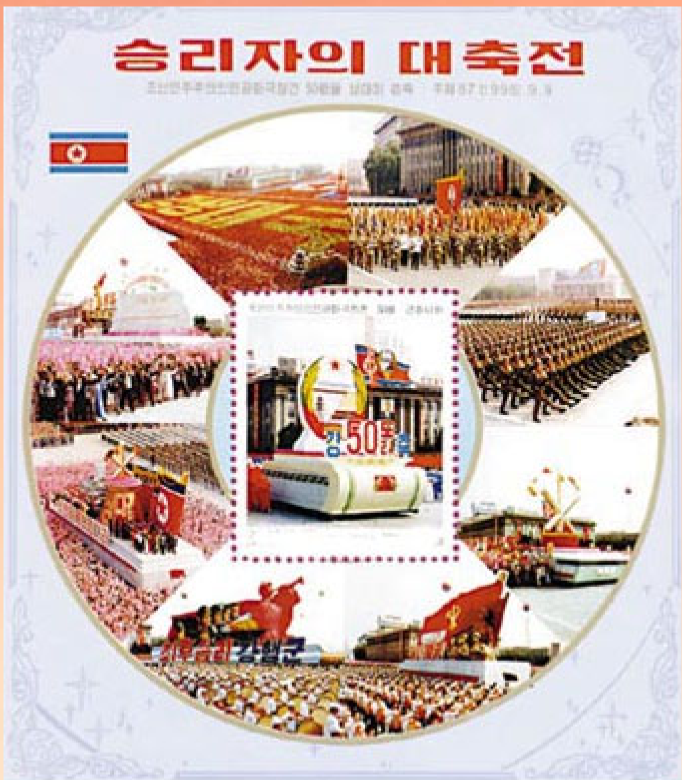
그러면서 나는 시대와 인류앞에 토로한다.

장군다운 사상과 철학, 장군다운 신념과 의지, 장군다운 인품과 매력이 어리여 있는 **김정일**붉은기를 귀중히 여기시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시라.

그 길에 인류의 찬란한 미래와 번영이 있다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

로동신문 론설



(평양 주체 87년 6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34년이 지난것과 관련하여 론설을 실었다.

필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강철의 신념과 의지로 우리 시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새 력사를 개척하신 걸출한 령도자이시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사야말로 신념과 의지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오신 불멸의 투쟁력사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사는 무엇보다도 강철의 신념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인 대를 일관하게 견지해오신 긍지높은 년대기로 빛나고있다고 론설은 지적하였다.

론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주체사상을 가지고 우리 식대로,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확고한 결심을 지니시고 우리 혁명을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길로만 억세게 전진시켜오시였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력사는 또한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한번 내세운 목표와 결심을 끝까지 실현해오신 불굴의 투쟁력사로 빛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장군님의 의지에 따라 빛나는 결실이 맺어지고 승리만을 새겨온것이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김정일**동지께서 철의 신념으로 혁명의 앞길을 열어나가실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천품으로 지니시였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론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혁명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시고 모든 고난을 앞장에서 헤치시면서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끌고계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강철의 신념과 의지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굳은 확신에 그 원천을 두고있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하늘같이 믿으며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가 된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조선의 필승의 기상이 있다.

강철의 신념과 의지로 사회주의위업의 새 력사를 개척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은 언제나 필승불패이다.



김정일각하는 사회주의승리의 상징

네팔공산당비서

(평양 주체 87년 9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6일 네팔공산당(련합) 중앙집행위원회 총비서 비슈누 바하두르 마난다르가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김정일**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식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해나가심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의 상징으로, 21세기의 탁월한 령도자로 칭송받고계신다. 그이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다시 추대되신것은 그이를 당과 국가, 혁명무력의 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의 발현이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이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며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사회주의승리의 위대한 정치

로씨야인사

(평양 주체 88년 12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로씨야력사학후보원사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인 울라지미르 똘스찌꼬브가 ≪사회주의승리의위대한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글에서 선군혁명령도는 조선을 그 발상지로 하고있는 현세기의 가장 특출하고 위대한 정치철학, 정치방식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는 조선식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필승불패성의 근본원천은 인민대중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할데 대한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데 있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의 이 요구를 훌륭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정치방식이 바로 선군정치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포위, 봉쇄, 위협, 도발에 단독으로 맞서야하는데다 자연재해까지 겹쳐 가중된 경제난과 식량난, 먹히우느냐 마느냐, 붕괴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던 사회주의조선을 구원하여 불패의 보루로 세계우에 더 높이 우뚝 솟아오르게 하신분이 위대한 선군정치가 **김정일**동지이시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김정일**식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에서 화가 복으로, 역경이 순경으로 전환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심오한 총대철학, 혁명철학에 기초하고있는 선군정치가 인민의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나갈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정치방식으로서 조선의 현실에 전적으로 부합될뿐아니라 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합법칙성에도 맞는 보편타당한 의의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김정일**선군정치가 단순히 국력을 강화하여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한 정치만이 아니라는데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라를 강성부흥케 하여 전반적인 국력을 증대시키고 인민들을 잘살게 만드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를 위한 효과적인 방도들을 집대성하고있는데 이 정치방식의 만능의 위력이 있고 또 만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것이다.

사회주의기치를 굳건히 고수하신 불멸의 업적

로동신문



(평양 주체 89년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1일부 ≪로동신문≫은 론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력사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오신 정의의 수호자의 력사로 빛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이 성스러운 력사에서 주체82(1993) 년 3월1일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로작에서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론리로 혁명의 원쑤들의 반동적 ≪리론≫을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수호할수 있는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론설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로작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조선인민이 사회주의를 신념으로 체득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여 나가고있는데서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가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는 비인간적인 사회라고 떠벌이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정체를 과학적론거로 낵낵이 발가놓으시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불어 넣고 있는 유혹의 바람은 오직 개인의 안락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썩어빠진 날라리풍이며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자본주의정치방식을 끌어들이고 사회주의를 사분오렬시키는 ≪자유화≫의 바람이며 ≪새로운 사고방식≫의 미명하에 반제투쟁을 포기하게 하고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반혁명적인 역풍이라는것이 조선인민이 날이 갈수록 로작을 통하여 더더욱 절감하게 되는것이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떠벌일 때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튼튼히 다졌으며 남들이 ≪개혁≫, ≪개편≫의 길로 나아갈 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립적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였다.

로작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또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광명한 미래를 안겨 주고 그들이 사회주의를 재생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도록 한데서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 로작에는 사회주의건설실천에서 나타난 편향과 그로부터 초래된 후과들이 심오히 분석되고 참다운 사회주의의 본질과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

오늘 세계 혁명적당들과 진보적사회단체, 각계각층 인사들속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연구보급하기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가 인류의 리상이며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사회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세계인민들의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김정일총비서는 사회주의위업의 수호자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총비서

(평양 주체 89년 5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을 방문하였던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총비서 하싸눌 하크이누가 귀국에 앞서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령도로 하여 조선은 오늘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였다.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면서 승리를 이룩한다는 이 한가지 사실을 놓고도 조선의 위력을 잘 알수 있을것이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조선식 사회주의를 승리에로 이끄시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사회주의의 전도는 양양하며 그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김정일동지는 사회주의위업,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며 조선은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위용 떨칠것이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수호의 보검

로씨야에서 토론회

(평양 주체 89년 11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업적에 관한 로씨야련방연해변강지역의 여러 정당, 운동, 단체, 조직들의 련합토론회가 10월 25일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로씨야련방공산당, 로씨야공산주의로동자당,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군대지지운동 등 여러 정당, 운동, 단체의 연해변강조직들의 대표들과 열성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오늘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반동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선식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경이적인 현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방식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풀어나가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독특한 정치방식이라고 하면서 이 선군정치는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혁명철학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가 있는 한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과의 대결에서 련전련승할것이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건설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위인과 온 세계의 자주화

구국의 소리 / 주체90, 2월 16일

사회자 : 네, 새 세기를 맞은 지금 인류는 자주위업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세기의 태양으로 모셔 21세기는 자주화된 세기로 될거라는 믿음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자주화된 세기, ***** 21세기다.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찹니다. 위인과 온 세계의 자주화 이런 화제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고일철씨 나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고일철 : 안녕하세요.
사회자 : 21세기에 들어선 인류는 새 세기에는 반드시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기, 자주화된 세기에서 살게 되기를 염원하고 있는데요. 그 염원을 현실화할 지도력을 인류는 바로 21세기의 태양으로 칭송 받으시는 희세의 위인 **김정일**영도자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위인과 온 세계의 자주화 이런 화제로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일철 : 아시다시피 인류는 말이죠. 오래전부터 온갖 지배와 예속이 없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희망해 왔는데요. 그 희망이 바로 온 세계의 자주화라는 개념 속에 일축되어 있죠. 온 세계의 자주화는 세상에서 온갖 지배주의와 식민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구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그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게 되는 때에 세계의 모습을 그리는 사상인데요. 이 온 세계의 자주화는 오늘 인류가 해결을 기다리는 초미의 문제라 하겠죠.
사회자 : 그러니까 그 온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띠게 되는 겁니까?
고일철 : 네, 그건 온갖 민족적 착취와 억압,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와 예속이 종식되어서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적 발전이 이룩될 수 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사이에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도 보장되게 되죠.
사회자 : 아, 그렇군요. 온 세계의 자주화, 이건 세계의 운명문제와 직결된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되겠네요.
고일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 초부터 말이죠. 지구촌 곳곳에서 온 세계 자주화를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져 왔죠. 지구 육지면적의 1/6을 차지하는 광대한 영토에 첫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탄생을 했구요, 제2차 세계대전 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이어 출현했어요.
사회자 : 네, 또 그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아시아국가 라틴아메리카 등 식민지 나라들에서 민족적 독립을 성취하고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고일철 :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역량인 비동맹운동이 탄생했는데요. 이건 온 세계 자주화실현에 정말 힘있는 공간으로 됐죠. 특히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우리 나라에서 항일대전이 승리하구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 시대가 개척되었죠. 그리고 6.25전쟁 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미제국주의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 놓은 것 등, 이건 온 세계 자주화실현에서 매우 중대한 장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사회자 :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찍이 자주의 학설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의 기치 밑에 인류자주위업을 현명하게 영도해 오셨는데요.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관한 사상도 바로 그분께서 사상처음으로 천명하신 독창적인 사상이 아닙니까?
고일철 :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사회주의운동과 비동맹운동을 비롯한 반제자주역



량이 증강을 하고 성장되어서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과의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계 정치정세와 역량관계 등을 과학적으로 성찰하신데 기초하셔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인류 앞에 나선 공동의 투쟁과제로 제기하셨거든요. 이건 그분의 독창적인 사상이론적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세기말에 여러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연이어 사회주의가 좌절되었구요, 자본주의가 복귀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심각한 파급과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그건 반제자주역량에 사뭇 큰 ***로 됐죠?

고일철 : 네, 하지만 자주성을 지향하는 역사발전의 방향은 되돌려 세울 수 없잖아요? 더욱이 21세기 태양으로 칭송 받으시는 **김정일**영도자님이 계셔서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이 기필코 실현되리라는 거, 이건 의심할 바 없다 하겠습니다.

사회자 : 아, 그렇죠, 그러니까 21세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주도하실 분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이시고, 그분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자주화된 새 세기를 건설하기 위한 인류의 성스러운 투쟁은 주체의 기치, 자주의 기치 밑에 더 힘차게 벌어지게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고일철 :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특출한 위인상에 매혹 되어서 그분께서 수십년에 걸쳐 시대와 인류 앞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을 인식한 인류는 말이죠, 정말 그분이시야말로 온 세계 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실 유일무이의 영수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 특히 지난 20세기말 세계 정치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그런 의식이 더욱 굳어졌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고일철 : 옳습니다. 1990년대에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그런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 을 비롯해서 불후의 저작들을 발표하셨는데요. 그 저작들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여러 나라의 사회주의의 좌절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을 의미한다고 선언하셨고요.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승리의 필연성들을 철의 논리로 강조하셨던 겁니다. 이건 뭡니까. 영도자님께서 주체사회주의 이론, 사회주의건설 전략을 발전완성시키시고 인류 앞에 사회주의위업, 인류 자주위업의 앞길을 밝혀 주신 거대한 업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회자 : 네, 그리고 1992년 4월에 채택된 평양선언도 진보적 인류가 받아 안은 사회주의의 보검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일철 : 평양선언으로 통칭되는 문서,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 이 문서가 **김정일**영도자님의 영도의 산물이라는 거 이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요. 평양선언의 채택으로 지구상에는 사회주의재건 바람이 일게 되었고 현재까지 수백개 정당들이 서명을 했죠.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공산당의 합법적 권리가 복귀되고, 사회주의재건의 깃발이 힘차게 나부끼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괄목할 만한 움직임이라고 봐집니다.

사회자 : 네, 그러니까 영도자님께서는 인류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사회주의위업의 총** 이론정리들을 안겨주셨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이께서 이북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시고 그 위상을 만방에 빛내이신 것도 인류 자주화위업에 대한 커다란 공헌으로 된다고 보는데요.

고일철 : 그렇죠. 그분께서는 자주정치, 선군정치로 자주화된 세기에서 모든 나라들이 펴 나가야 할 정치의 모델을 보여 주셨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류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을 안겨 주셨어요. 지난 1993, 1994년 손에 땀을 쥐게 했던 북미간의 대결만 봐도



그렇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미국의 핵사찰 압력에 준전시상태 선포, 엠피티탈퇴라는 초강경조치로 대응해서 적들을 궁지에 몰아넣었잖아요. 최근 수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영도자님의 영활한 선군정치, 자주외교의 빛나는 승리를 뚜렷이 보여준 거라고 봐집니다.

사회자 : 그렇죠. 최근 온 세계가 **김정일**영도자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평양기사, 평양시간에 맞춰서 모든 움직임을 벌여 나가려는 건 결코 우연한 게 아니잖아요?



고일철 : 그렇습니다. 이북을 방문했던 핀란드의 한 인사는 21세기는 **김정일**동지께서 ***는 주체사회주의 사상이 기대하는 자주화된 세기로 될 것이며 그분께서 계시어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지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인류의 염원은 실현될 것이다라고 말했구요. 기니의 한 정객은 20세기 말의 복잡다단한 정세 속에서 인류를 위해 쥐어 주신 **김정일**장군님의 비상한 사상이론활동, 혁명적 의식성과 견결한 전개력으로 일관된 반제투쟁, 불면불휴의 노고에서 사람들은 사회주의위업의 수호자, 21세기 영도자로서의 걸출한 위인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회자 : 네, 또 러시아의 근로하는 러시아운동 서기장 빅토르 안토네오브는 인류의 마음 속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거대한 사회주의 태양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고 있다, 자연의 태양계는 일식현상이 있어도 **김정일**태양계에는 단 0.001초의 일식도 없을 것이며, 태양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민중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시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계시기에 21세기 인류는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고 번영해 갈 것입니다. 우리 이남민중도 인류가 경모하는 위대한 영수를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자긍심을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을 따라 통일된 강성대국을 세우는 길에서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할겁니다. 그럼 이 시간 여기서 마치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일철 : 감사합니다.



지구촌의 환호

구국의 소리 / 주체90, 2월 16일

인류자주위업의 향도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을 맞으며 그분을 우러르는 세인들의 칭송의 메아리가 매우 높은데요. 그런 포성은 세계각국에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 경축준비위원회들이 수많이 결성된 것으로도 잘 알수 있습니다.

가이아나, 우간다, 민주콩고, 이짚트, 파키스탄, 스웨덴, 오스트리아 세계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 등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정일**영도자님 탄신절 경축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경축준비위원회 결성식들에서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천재적인 예지와 지략을 최상의 높이에서 지니신 **김정일**영도자님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과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이 세상 가장 위대한 분이시라는 목소리들이 힘차게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 가이아나 전국위원회위원장은 경축위원회 결성모임에서 오늘 **김정일**영도자님에 대한 찬양의 목소리가 세계 정계, 사회계, 출판보도계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금 세계 혁명적민중은 사회주의 조선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김정일**각하께서 가르키는 데로 사회주의의 재생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분이시야 말로 21세기를 이끄실 향도자이시다. 라고 격정에 넘쳐 강조했습니다.

우간다 통일촉진 및 **성 **상은요 경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리에서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 무비의 담력과 고매한 민중적 풍모를 지니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시대와 역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셨으며 21세기를 빛내이실 태양으로 만민의 칭송을 받고 계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인들의 이 같은 목소리는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태양의 빛발로 ***뿐 아니라 그분께서 계시어 21세기에도 인류자주화위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죠.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받들어 모시는 세계의 움직임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1월부터 2월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경축집회, 토론회, 독서회, 영화감상회, 강연회, 출판물 특간호 발행들의 다채로운 행사들을 연일 성대하게 진행한데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간다에서는요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을 경축하는 경축행사들을 뜻깊게 벌였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 전 지역을 망라하는 주체사상에 관한 아프리카지역 토론회를 성대히 진행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을 즈음해 페루 파스코주 이사회가 1월 17일 그분을 세계명인으로 추대한 것을 비롯해 세계각국에서 명인 추대 및 명예칭호 수여모임이 대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에 대한 세인의 경모심은 세계의 저명인사들이 우리 민족과 세계인류 앞에 쌓으신 그분의 공적을 높이 찬양하면서 그분의 탄신절을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뜻깊게 경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이아나 2.16경축준비위원회 결성식 모임에서 모임참가자들이 세인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을 담으며 2001년에 맞이하게 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신절과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을 세계적인 대경축 축전으로 기념할 것을 세계 여러 나라 정부, 정당, 사회단체들에 호소한 사실은 *****.

인류가 생겨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요, 일국의 영수의 탄신절을 온 세상이 이처럼 성대히 경축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인용을 겸비하시고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불면불휴의 노고를 다 바치고 계시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만이 받아 안을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이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것은 우리 겨레 모두의 대행운이고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주체외교

구국의 소리 / 주체90, 2월 16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천만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는 새 세기 첫해에 맞게 되는 21세기 태양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일을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으로 열렬히 축하하고 있는데요.

김정일영도자님을 21세기를 움직이는 탁월한 영도자, 자주외교의 향도로 칭송하는 세인의 목소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세계 외교사에 있어 본적이 없는 일대사변들을 창조한 이북의 눈부신 외교활약은 세계의 정치계의 중심이 이북으로 옮겨지는 **구요, 우리 민중들로 하여금 세계의 맨 앞장에서 긍지 드높이 새 세기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반만년 민족사에 있어 본적 없는 이 민족자주 쾌거는 절세 위인 **김정일**영도자님의 당당하고 영활한 주체외교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죠.

되돌아보면 지난해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주체외교가 세계를 움직여 온 격동의 해였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의 정치외교는 세계 정치외교계를 주름잡으며 극적인 사변들로 행성을 진감시켰구요, 그 여운은 21세기 첫해인 올해에도 그대로 이어져 세계의 이목은 이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에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정일**영도자님의 중국방문은요 두 이웃의 정통적인 친선과 우위를 더욱 두터이 하고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전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됐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인 방문으로 새 세기 세계 자주화위업을 이바지한 불멸의 자욱으로 새겨졌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7월에는 방북한 푸친 러시아대통령과 상봉하시고 역사적인 북러 공동선언에 서명하셨는데요. 구소련과 러시아 역사상 최초의 정상방문인 푸친의 평양행은 북러 사이에 관계 역사에서 특기할 사변이라 할 겠죠. 세계 여러 나라 방송사들과 보도계가 일치하게 표현한 것처럼 러시아대통령의 방북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세계 일국화를 막고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 특기할 사변이었습니다.

공산당연맹 소련공산당 이사회 올레그 쉐무 서기장은 푸친의 평양방문은 전세계 많은 주요 정치가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권위가 날을 따라 높아 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라며 이 역사적 사변은 **김정일**영도자의 공적이라고 강조했어요.

지난해 북미관계에서의 진전은 **김정일**영도자님의 주체외교의 척도였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지난 10월 조명록국방위원회 1부위원장을 특사로 워싱턴에 파견해 대미외교를 펼쳐 세상을 우선은 깜짝 놀래우시었고, 그간의 적대관계 청산을 확약한 북미공동커뮤니케를 발표케 하셔서 세계를 들었다 놓으셨죠. 미국무장관이 20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반세기여에 걸쳐 적대시 해오던 이북에 미대통령의 친서까지 가지고 간거는 미국외교사는 물론 전세계 외교사에 전무후무한 일인겁니다.

언론이 이북은 미국을 변화시켜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에 도움을 주는 친구를 만드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칭송한 바 있지만 이것은 20세기 세계 외교무대에서 일어난 커다란 사변이었어요.

미국 대외관계 협의회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마이클 그레인은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김정일**영수가 지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서방이 북과의 관계정상화에 분기해 나선 건도 전례 없는 일로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지난해 1월 이탈리아와 외교관계를 맺은 이북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외교관계를 제계했고, 12월에는 영국과 정식 수교를 했어요. 그에 앞서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 EU회원국들이 앞다투어 북과의 수교방침을 발표해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죠. 영국의 비비씨방송은 비록 회의장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제3차 아시아회의는 이북이 지배









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방세계가 지난해 이어 올해 이르러서 세기와 세기를 이어 북과의 정식수교에 줄지어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세계무대에서 이북이 차지하고 있는 높은 권위와 위상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한 교수는요 서방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적 이해관계도 별로 없는 이북과의 수교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것은 세계 정치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북의 막강한 위상에 대한 반증이라며 통일된 한반도의 대외노선은 남이 아니라 북을 따라야 한다고 자기 심정을 표시했죠.

예로부터 외교는 국력의 연장이라고 했습니다. 국력이 강하면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고 국력이 약하면 아무리 찾아가도 냉대를 받고 멸시를 당하기 마련이죠. 20세기 초 우리민중이 일제에게 빼앗긴 주권을 찾고저 독립 청원서를 들고 동서방을 발이 닳도록 다녔건만 동정은 커녕 무시와 멸시를 당한 것도 국력이 약한 탓이었어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탁월한 성군정치로 이북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시고 북의 국력을 강철 같이 다지셔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불패의 요새로 만드셨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 열강의 끈질길 반북 고립압살책동도 선군정치로 막아 내셨고, 선군영도로 이북 민중을 분기시키셔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기 위한 투쟁에로 이끌고 계십니다.

미국이 반세기에 걸쳐 적대시 해오던 북에 머리를 숙이고 찾아든 것은 결국 압살정치의 총파산을 의미하는 함과 동시에 북의 강위력한 힘에 대한 입증이기도 한거죠.

김정일영도자님의 선군정치야말로 이북이 세계 정치외교의 최정상에서 빛을 뿌리게 한 힘의 원천입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탁월한 주체외교로 민족 앞에 쌓으신 업적은 반만년 민족사의 특기할 불멸의 공적으로 됩니다.

오늘날 세계는 **김정일**영도자님을 새 세기를 이끄실 21세기 태양으로 열렬히 경모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정치외교로 이북을 단연 세계 정치외교의 중심에 올려 세우신 **김정일**영도자님의 위인상을 세계를 매혹시켰고, 그분을 21세기 영도자로 높이 칭송케 했습니다. 방북 후 푸친 러시아대통령은 **김정일**영도자는 현 시대 위인이시다고 높이 칭송했구요, 올부라이트 전 미국무장관은 그분의 위인적 풍모에 대해 감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계 수많은 통신과 방송, 신문들이 그분의 영상으로 지면과 전파를 채우고 지구촌 곳곳에서 **김정일**영도자님의 열렬한 칭송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 나왔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서방에 가리워져 있던 신비의 지도자에서 세계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해 세계의 조명을 받으셔 공인된 21세기의 영도자로 세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셨습니다.

한 외신은요 세계를 향한 **김정일**영도자님이 미소는 이북을 단연 인기국가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분의 인상에 대해 대설특필을 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주체외교로 이북을 세계 자주화 흐름을 힘차게 견인해 가는 21세기 주도국으로 만드셨어요. 절세 위인 **김정일**영도자님의 탁월하고 정력적인 영도로 21세기 세계 자주화위업은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고, 인류는 크나큰 낙관을 갖고 새 세기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진보적 인류는요 **김정일**영도자님을 우러러 자주시대 거장, 사회주의위업의 걸출한 영도자, 21세기 위대한 태양이시라고 높이 칭송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세계 진보적 인류가 한결같이 흠모하고 따르는 21세기 태양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계시어 자주시대는 더욱 빛나고 21세기는 위대한 장군의 세기로 엮어지고 있습니다.

각계 우리 민중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계시어 민족의 긍지는 만방에 빛나고 21세기 통일의 강국의 시대가 바야흐로 다가온다는 걸 폐부에 새기고 그분께서 가르키시는 새 세기 민족번영의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해야 할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조중친선은영원하리라!





김정일총비서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평양 주체 90년 1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강택민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1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은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중친선을 계승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시기 위하여 7개월만에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극진히 환대하였다.

김정일동지와 강택민동지사이의 회담이 베이징에서 있었다.

회담에는 중국측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인 위건행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전기침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장인 증경홍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대병국동지, 외교부장 당가선동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국장동지가 참가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회담에서 짧은 기간에 세상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게 변모된 상해시를 참관한데 대한 소감을 피력하시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령도자들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각자의 국내정황에 대하여 호상 통보하였으며 두 나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견해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령도자들이 호상래왕의 전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강택민총서기는 **김정일**동지께서 새 세기 초에 중국을 방문하시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이번 방문이 중조 두 당, 두 나라관계의 새 세기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쌍방은 지난해 5월 조중 령도자들이 베이징에서의 상봉이후 두 당, 두 나라의 각 부문이 두 당 령도자들이 합의한 문제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전통적인 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발전수준에로 전진시켜 나갈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강택민총서기동지는 조선인민이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중첩되는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건설과 북남통일, 대외관계 등 여러 방면에서 이룩한 중대한 발전과 새로운 성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새 세기에 각 방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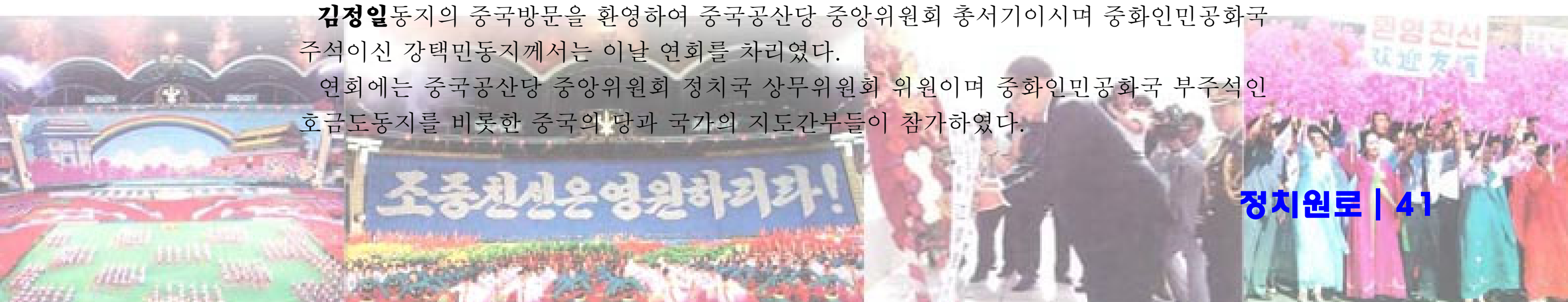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인민이 강택민총서기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제10차 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목표를 관철하며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중화를 진흥하는 웅장한 위업실행에서 반드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는것을 확신하시였다.

강택민동지는 중국은 조선반도의 린방으로서 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힘을 넣고 있다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북남쌍방이 관계를 더욱 개선하고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계속 지지할것이며 조선이 기타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는데 대하여 환영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조선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대만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립장을 지지할것이며 중국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위업에서 성공할것이라는것을 거듭 표명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강택민동지께서 편리한 시기에 조선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시였으며 초청은 쾌히 수락되였다.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강택민동지께서는 이날 연회를 차리였다.

연회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인 호금도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 연형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국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 정하철동지,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양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박송봉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와 중화인민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최진수동지가 초대되였다.

연회는 친선의 정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에 앞서 상해시를 방문하시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주용기동지가 베이징으로부터 상해까지 나와 **김정일**동지를 친절히 맞이하였다.

김정일동지를 또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상해시당 서기인 황국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대병국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상해시장인 서광적동지, 상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진철지동지, 상해시당 부서기 겸 시정치협상회의 주임 왕력평동지, 중국공산당 중앙규률검사위원이며 상해시당 규률검사위원회 서기인 장혜신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시의 당, 정부, 군대의 지도간부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용기동지를 만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일동지를 환영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용기동지는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다.

연회에서는 국무원총리 주용기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새 세기가 시작되는 첫해의 정초에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 상해를 방문하신것은 특별히 기쁜 일이라고 하면서 강택민총서기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을 대표하여 열렬히 환영하였다.

주용기총리동지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린방인 중조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은 두 나라 로세대 프로레타리아혁명가들이 몸소 마련하시고 키워 주신것이라고 하면서 이 친선은 력사의 시련을 이겨 냈으며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오늘 강택민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과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은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두 나라의 정부와 인민들은 두 당 최고지도자들이 이룩한 합의에 따라 친선의 뉴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주용기총리동지는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이번 방문은 두 당, 두 나라가 새 세기에도 전통적인 중조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단으로, 강대한 추동력으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 상해를 다녀 가신 이후 지난 20년간 상해시민들이 중국공산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모든 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한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세기가 교체되고 국제적인 경쟁이 날로 격렬해 지고 있는 오늘의 정세에 대처하여 상해시민들이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 결심을 안고 새 세기의 첫 걸음을 잘 떼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그는 조선인민이 최근년간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령도 따라 중첩되는 난관을 승리적으로 극복하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 대외사업등 여러 분야에서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커다란 전진과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중국인민은 조선인민과 같이 기쁘게 생각하며 열렬히 축하한다고 언급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중국인민은 앞으로도 중국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 제15차대회가 제기한 모든 임무를 철저히 관철하며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 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연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연설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연설에서 먼저 주용기총리동지가 음력설을 앞두고 주관해야 할 일도 많은 때에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해시에 친히 내려 와 맞이하고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으며 열정에 넘치는 훌륭한 연설을 한데 대하여서와 황국서기동지를 비롯한 상해시동지들이 온갖 성의와 편의를 다해 주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잊을수 없는 추억과 각별한 친근감을 가지고 상해시를 다시금 방문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번 방문을 통하여 중화진흥의 숭고한 리상을 안고 고심분투하여 유구한 동방 중국의 대지우에 자랑을 떨치고 있는 상해시의 발전모습을 직접 볼수 있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계속하여 활력 있고 약동하는 상해시는 중국의 정치, 경제, 과학, 문화의 전반적발전을 추동하는데서 큰 몫을 맡고 있는 중요한 국제도시라고 하시면서 상해시민들이 강택민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제10차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나라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업에 적극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빛내여 나가는것은 새 세기의 대문을 열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념원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와 인민은 새 세기에도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연회에서는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두 나라 당 및 국가 령도자들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국무원총리 주용기동지가 **김정일**동지의 상해도시건설계획전시관, 상해 제네랄 모터스승용차공사와 상해화홍전자유한공사의 참관에 동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상해시당 서기 황국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대병국동지, 상해시장 서광적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시의 지도간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상해시를 참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기간 생산기업체들인 상해보산강철공사, 상해벨유한공사, 손교현대농장개발구역, 새로 일떠선 건축물들인 상해도시건설계획전시관, 포동행정구청사, 포동신구청수원주택구역, 상해지하철도, 상해교통시설들, 금융 및 상업편의봉사시설들인 상해증권교역소, 상해국제회의쎈터대주점, 과학연구문화기관들인 쏘프트웨어개발연구소, 인간게놈남방연구쎈터, 상해대극장, 상해텔레비죤방송탑, 륙가주중앙록지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대한 참관을 진행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상해시를 참관하시고 그전날의 상해시의 모습은 찾아 볼수 없게 현대적으로 변모되였다고 하시면서 상해시에 일떠선 웅장한 고층건물들과 화려한 주택들, 강력한 공업기지와 편리한 교통망들 그리고 최첨단과학연구기지와 금융, 문화, 후생시설들은 모두다 중국력사에 남을 위대한 창조물이며 중국인민의 재능과 힘의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가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해는 천지개벽되였다고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상해체류기간 상해시당 서기 황국동지, 상해시장 서광적동지를 비롯한 지도간부들과 함께 시내 예술인들과 어린이들이 특별히 준비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국제콩클수상자들을 위시한 상해시의 우수한 예술인들은 민족무용 ≪진나라 병마용의 넋≫, 무용묶음 ≪유쾌한 어깨꼬마동무≫, 발레무용 ≪백조의 호수≫, 남성독창 ≪나와 나의 조국≫, 피아노협주곡 ≪황하 제4악장≫과 조선노래들인 ≪**김일성**장군의 노래≫,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상해시당 서기인 황국동지는 **김정일**동지의 상해시방문을 환영하여 만찬을 차리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과 강택민동지의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환대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중국동지들의 열렬한 환대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새 세기를 맞는 뜻 깊은 시기에 진행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번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은 조중친선의 년대기에 빛나게 기록될것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중국을 비공식방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구국의 소리 / 주체90, 1월 22 ~ 23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중국을 비공식방문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내외적으로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 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장군님께서 중국을 비공식방문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먼저 상황에 관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윤정원 : 네,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중국공산당 장쩌민총서기의 초청에 의해서 1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중국을 비공식방문하셨죠. 장군님의 중국비공식방문에는 조선인민군 김영춘총참모장을 비롯한 이북의 군, 당, **부분의 고위간부들이 수행했습니다. 중국의 당 및 국가영도자들은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중친선을 계승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시기 위해 7개월만에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열렬히 환영했구요,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사회자 : 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과 장쩌민총서기 사이의 회담이 북경에서 있었는데요. 이번엔 회담소식에 간단히 말씀 해주실까요?

윤정원 : 네, 앞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김정일**장군님과 장쩌민총서기 사이의 회담이 북경에서 있었습니다. 회담은 중국의 당, 정부 고위간부들과 이북주재 중국 특명전권대사가 참석을 했어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회담에서 짧은 기간에 상상을 초월하게 변모된 상해시를 참관한 소감을 피력하셨어요. 조중 두 당, 두 나라 영도자들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국내정황에 대하여 상호 통보했고요, 두 나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 견해일치를 보았답니다.

쌍방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영도자들이 상호 왕래의 전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쩌민총서기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새 세기 초에 중국을 방문하신데 대하여 높이 평가를 하고 이번 방문이 중조 두 당, 두 나라관계의 새 세기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중국인민이 장쩌민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제10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목표를 관철하며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구요, 중화를 진흥하는 웅장한 위업실행에서 반드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사회자 : 장쩌민총서기는 중국은 한반도의 인방으로서 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힘을 넣고 있다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남북쌍방이 관계를 더욱 개선하고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이북이 기타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는데 대하여 환영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조선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대만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며 중국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위업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거듭 표명을 하셨어요. 장군님께서는 장쩌민주석께서 편리한 시기에 조선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셨는데 초청은 쾌히 수락됐다고 합니다.

사회자 : 보도들에 따르면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방문기간 상해시를 참관하셨다고 하는데요. 장군님께서 어디를 참관하셨습니까?

윤정원 : 네, 중국 주룽지총리가 장군님을 상해도시건설계획전시관, 상해 제너럴 모터스승용차공사와 상해화홍전자유한공사의 참관에 동행을 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또한 상해시장을



비롯한 중앙과 시의 지도간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상해시를 참관하셨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기간 생산기업체들인 상해보산강철공사, 상해벨유한공사, 손교현대농장개발구역,새로 일떠 선 건축물들인 상해도시건설계획전시관, 포동행정구청사, 포동신구 청수원주택구역, 상해지하철도, 상해교통시설들, 금융 및 상업편의봉사시설들인 상해증권교역소, 상해국제회의센터대주점, 과학연구문화기관들인 소프트웨어개발연구소, 인간게놈남방연구센터, 상해대극장, 상해TV방송탑, 육가주중앙녹지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대한 참관을 진행하셨어요.

장군님께서는 상해시를 참관하시고 그 전날의 상해시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현대적으로 변모됐다고 하시면서 상해시에 일떠선 웅장한 고층건물들과 화려한 주택들, 강력한 공업기지와 편리한 교통망들 그리고 최첨단과학연구기지와 금융, 문화, 후생시설들은 모두다 중국역사에 남을 위대한 창조물이며 중국인민의 재능과 힘의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세계가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해는 천지개벽됐다고 하셨어요.

사회자 : 네, 세계각국 신문, 통신, 방송들이 **김정일**장군님의 중국방문소식을 앞을 다투어 방송하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네, 중국의 인민일보, 신화통신, TV방송, 국제방송, 러시아의 이카르타통신, 일본의 교도통신과 아사이신문, 마이니찌신문, 도쿄신문, 니혼겐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세계 여러나라 통신, 신문, 방송들이 장군님께서 중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을 광범위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인민일보는요 장군님께서 장쩌민총서기와 만나시는 사진을 모시고 장군님의 중국방문 전기간을 사진과 함께 특색 있게 보도했어요.

사회자 : 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중국방문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셨구요, 새 세기를 맞는 뜻 깊은 시기에 진행된 장군님의 이번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은 조중친선의 연대기에 빛나게 기록될 것입니다.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기가 교체되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신건요, 새 세기에도 조중친선을 강화발전시켜 나갈 이북의 당과 민중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치셔서 가꾸어 오신 조중친선을 계승하고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가시는 장군님의 혁명활동, 정말 온 지구촌을 경탄시킬 일이죠. 보도된 것처럼 이번에 중국 당과 정부와 국민은요 경애하는 장군님을 진실로 열렬히 환영을 했구요, 극진히 환대를 했는데요, 이거는 장군님에 대한 중국 당과 정부와 국민의 다함 없는 존경과 신뢰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주석님 그대로이신 장군님을 높이 모신 민족적 긍지와 자긍심을 더욱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계민중은 **김정일**장군님과 같으신 위대한 분을 모시고 있는 걸 민족적 긍지로 간직을 하고 장군님을 통일정상에 높이 모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모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지금까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중국을 비공식방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새 세기를 맞이한 뜻 깊은 시기에 진행된 장군님의 중국 비공식방문은 조중친선의 연대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강택민주석의 조선방문















김정일위원장과 강택민주석 사이의 단독회담 진행

(평양 주체 90년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주석사이의 단독회담이 평양에서 3일에 진행되였다.

회담은 진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일위원장과 강택민주석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평양 주체 90년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주석사이의 회담이 3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정세를 호상 통보하고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폭 넓고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회담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김영춘, 조선로동당 중









앙위원회 비서 최태복,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지재룡, 중국주재 조선 특명전권대사 최진수가 참가하였다.

중국측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부총리인 전기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인 증경홍,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인 곽백웅,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 주임 왕강, 대외련락부장 대병국, 외사판공실 주임 류화추, 조선주재 중국 특명전권대사 왕국장이 참가하였다.

김정일위원장께서 강택민주석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다



(평양 주체 90년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는 조선을 공식친선방문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주석을 환영하여 3일 저녁 목란관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일**위원장께서 강택민주석과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렁찬 박수로써 열렬히 환영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정일**위원장께서 연설하시였다.

또한 강택민주석이 연설하시였다.

연회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전기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인 증경홍을 비롯한 수행원들, 조선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국장과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을 비롯한 당 및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당,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는 시종 친선의 정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연회에서 하신 **김정일**위원장의 연설

김정일위원장께서는 우리는 오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강택민동지를 반갑게 맞이하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존경하는 강택민동지와 평양에서 다시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이름으로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강택민동지는 세기의 교체와 더불어 조중친선관계가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때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중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새 세기에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려는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의 념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선과 중국은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린방이며 두 나라 인민들은 오랜 친선의 력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많은것이 변하였지만 우리 두 나라 당과 국가, 인민들은 언제나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 중국인민은 존경하는 강택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현대적이고 문명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으며 평화와 발전, 협조를 지향하는 중국당과 정부의 대외정책에 의하여 중국의 국제적지위와 역할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부강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나라로 건설하며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앞으로의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조중친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이바지하는것으로 됩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중친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김정일위원장께서는 강택민동지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두터이 하는 의의 있는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연회에서 하신 강택민주석의 연설

강택민주석은 우리는 조선땅에 첫발을 들여 놓자마자 김정일총비서동지와 조선당, 정부, 군대의 지도간부들 그리고 수 많은 평양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중조친선의 뜨거운 정에 휩싸여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후에 나는 **김정일**총비서동지와 훌륭한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녁에 **김정일**총비서동지는 또한 여기서 성대한 환영연회를 마련하고 중국당과 인민에 대한 조선당과 인민의 두터운 정에 차넘친 열정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중국당과 정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김정일**총비서동지께와 그리고 조선당과 정부,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1년전에 나는 **김일성**주석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귀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방문은 나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겨 주었습니다. 지난 11년동안에 튼튼한 토대를 가진 중조친선은 세월과 력사의 시련을 이겨 내고 강대한 생활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인류가 새 세기에 들어 선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중조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모택동주석과 주은래총리, 등소평동지 그리고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함께 키워 주신 중조친선의 꽃이 더욱더 활짝 피여 나고 중조친선의 위업이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가일층 계승발전되고 있는것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조 두 나라 인민들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인민들도 환영을 표시할것입니다.

새 세기 중조 두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중국당과 정부 그리고 인민은 조선당, 정부, 인민과 함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선린우호를 유지하고 협조를 강화한다는 정신에 따라 새 세기 두 당과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발전단계에로 추진할것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친선적린방인 조선뿐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들과 평화공존 5개원칙과 기타









공인된 국제관계의 준칙에 기초하여 선린우호와 호혜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것입니다.

영웅적조선인민은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굳센 투지로 전진도상의 난관들을 이겨 내고 확고부동하게 **김일성**주석동지께서 개척하신 조선식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년간 당신들이 인민경제를 복구하고 발전시키며 대외관계를 확대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추진하는데서 새롭고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날로 많은 동정과 리해, 지지와 찬양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성과는 참으로 쉽게 이루어 진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면하고 용감하며 슬기로운 조선인민이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발양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면서 반드시 전진도상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할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선의 미래는 반드시 보다 더 아름다우며 조선반도는 반드시 보다 더 안정하고 번영하게 될것입니다.

중국공산당은 80년에 걸친 투쟁의 로정을 걸어 왔고 6,400여만명의 당원을 가진 당입니다. 력사는 중국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고 지난 50여년동안 중국이 커다란 발전과 진보를 이룩할수 없었다는것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새 세기에 들어 선 중국은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다그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앞에는 현대화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진해야 할 3대 력사적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시대의 앞장에 서서 언제나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부터 진심으로 되는 지지와 옹호를 받으며 영원히 든든한 기반우에 서 있으려면 반드시 시종일관하게 중국의 선진적인 생산력의 발전요구를 대표하고 중국의 선진적인 문화의 발전방향을 대표하며 중국의 가장 광범한 인민들의 근본리익을 대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세기에 리론혁신, 제도혁신, 과학기술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중국의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건설위업에서 계속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근본요구입니다.

우리 당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전진하면서 개척하고 창조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묶어 세우고 이끌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완수하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의 숭고한 위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김정일위원장께서 강택민주석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관람



(평양 주체 90년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주석과 함께 4일 5월1일경기장에서 10만여명의 청소년학생들과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일**위원장께









서 강택민주석과 함께 주석단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하고 축포가 터져 올랐다.

배경대에 ≪강택민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글발이 새겨 지고 경기장바닥은 조중친선의 화려한 춤바다, 환영의 꽃물결로 세차게 설레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은 조선로동당의 자랑찬 투쟁업적과 당을 따라 신심 드높이 사회주의부흥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가려는 조선인민의 드팀 없는 의지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과 축포가 터져 올랐다.

김정일위원장께서는 강택민주석과 함께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 강택민주석이 감사전문



(평양 주체 90년 9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주석이 조선을 떠나면서 감사전문을 보내여 왔다.

감사전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김정일동지

총비서동지의 초청에 따라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나의 공식친선방문은 원만히 결속되였습니다.

방문기간 우리는 총비서동지와 조선인민의 성대한 환영과 열정적인 환대를 받았으며 총비서동지와 친근하고도 우호적인 회담을 진행하고 전통적인 중조우호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한 문제와 기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광범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나는 방문이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김정일**총비서께서와 조선당과 정부와 인민이 우리에게 열정적인 환대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전통적인 중조우호협조관계가 새 세기에 장기적으로 안정하게 발전할것이라는데 대한 신심으로 충만되여 있습니다.

나는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중조친선의 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여 날것이며 보다 풍만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푸틴러시아대통령 조선방문



김정일총비서와 뿌찐대통령각하사이의 단독회담 진행

(평양 주체 89년 7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와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사이의 단독회담이 19일에 진행되였다.

회담은 진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일총비서와 뿌찐대통령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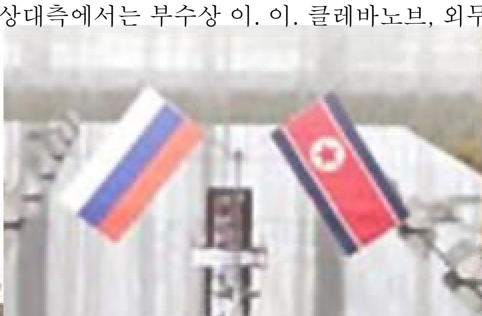
(평양 주체 89년 7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와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사이의 회담이 19일 평양에서 있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김영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상인 김일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전병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용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양건, 외무상 백남순이 참가하였다.

상대측에서는 부수상 이. 이. 클레바노브, 외무상 이. 에쓰. 이와노브, 국방상 이. 데.









쎄르게예브, 대통령행정부 제1부책임자 데. 아. 메드베제브, 대통령행정부 부책임자 에쓰. 에. 쁘리호지꼬, 교육상 웨. 엠. 필립뽀브, 대통령직속 정부통신국장 웨. 게. 마쮸힌,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까. 베. 뿔리꼽스끼, 연해변강 행정장관 에. 이. 나즈드라첸꼬, 로련국가회의 대의원 정 유. 엠. , 조선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웨. 이. 제니쏘브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 정세를 호상 통보하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폭 넓고 깊이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회담은 진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일총비서 뿌찐대통령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다

(평양 주체 89년 7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를 환영하여 19일 목란관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일**령도자께서 웨. 웨. 뿌찐각하와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렁찬 박수로써 열렬히 환영하였다.

연회에는 부수상 이. 이. 클레바노브, 외무상 이. 에쓰. 이와노브, 국방상 이. 데. 쎄르게예브와 그밖의 수원들, 조선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웨. 이. 제니쏘브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을 비롯한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백남순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로씨야련방 대통령인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가 조선을 방문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당신들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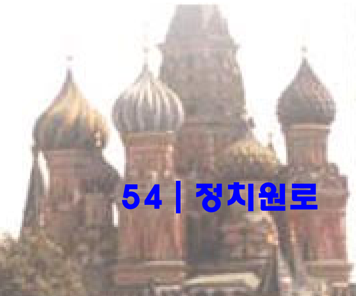
뿌찐각하의 이번 방문은 조로관계사에서 조선에 대한 로씨야국가수반의 첫 공식방문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는 이것은 조선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의 표시로서 대통령각하와 로씨야련방정부가 조로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로씨야에서는 뿌찐각하가 국가의 전반사업을 령도하면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이 수호되고 정치적안정이 이룩되고 있으며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척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지금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조로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념원과 근본리익에 부합될뿐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기여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공화국정부와 인민은 로씨야와의 친선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관계를 새 조약의 정신에 맞게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대통령각하의 이번 방문이 비록 길지 않지만 21세기를 지향한 조로친선의 뉴대를 더욱 두터이 하는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연회에서는 또한 이. 에쓰. 이와노브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로씨야련방대통령의 위임에 의하여 조선동료들이 자기들을 따뜻이 맞이하고 친절성과 환대를 베풀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였다.

그는 인민의 예지는 언제나 정치적견해보다 더 정확하다고 하면서 로씨야는 친선과 협조를 바라는 인민들의 마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 바로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선린과 호혜의 협조관계는 로씨야의 아시아태평양지역정책의 기본구성부분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관계가 안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고 인정한다고 말하였다.

전략적안정의 초석인 요격미싸일제한조약준수를 지지하는 우리 두 나라의 립장은 일치하다고 하면서 그는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온갖 형태의 국제테로를 한결같이 규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지난 6월에 평양에서 있은 북남수뇌상봉을 자체의 힘으로 민족의 운명을 해결하려는 선의와 진정한 의향의 발현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정치군사적대결의 완화를 주장하는 로씨야는 조선반도에서 신뢰조치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로씨야와 조선인민들은 수십년간 축적된 풍부한 협조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협조를 비롯하여 그 잠재력이 충분히 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의 교류는 정상적이고 유익한것으로 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로조수뇌상봉이 로조협조에 새로운 활력을 주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연회는 시종 친선의 정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김정일총비서와 함께 뿌찐각하께서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

(평양 주체 89년 7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와 함께 로씨야련방 대통령 웨. 웨. 뿌찐각하가 20일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조로친선의 상징인 해방탑일대는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해방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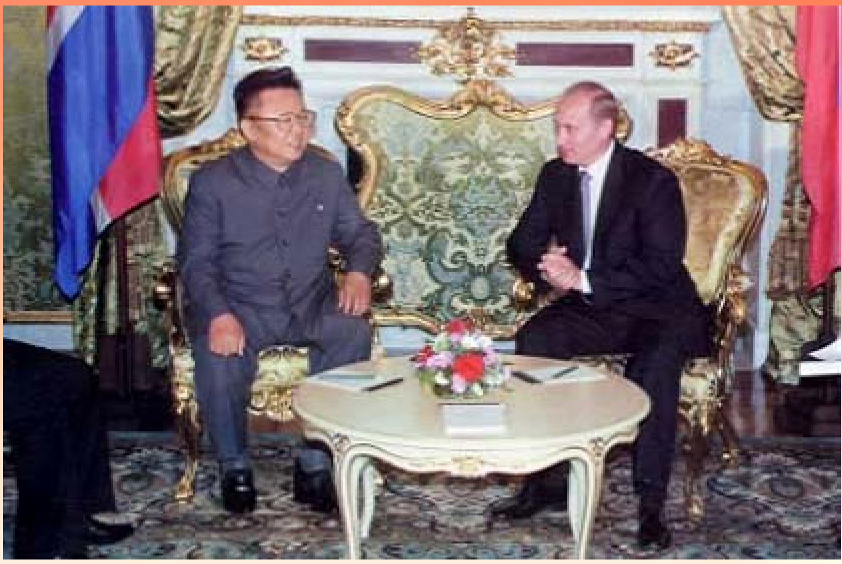
로씨야련방 국가와 조선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김정일**동지와 함께 웨. 웨. 뿌찐각하께서는 대통령의 명의로 된 화환을 해방탑에 진정하시였다.

참가자들은 조선의 광복을 위한 성전에서 희생된 쏘련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와 웨. 웨. 뿌찐각하께서는 해방탑을 돌아 보시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러시아공식방문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로씨야련방 방문에 대하여

(평양 주체 90년 7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련방 웨. 웨. 뿌찐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가까운 시기에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하시게 된다.

온 나라가 김정일장군님께서 안녕히 돌아 오시기만을 기다린다

(평양 주체 90년 8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대외활동보도에 접한 조선은 지금 끝 없는 환희에 휩싸여 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그이께서 새겨 가시는 거룩한 자욱자욱에 눈길을 모으고 있다.

자기 수령, 자기 지도자를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높이 받들어 모시는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숭배심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요즘 더욱 강렬하게 발현되고 있다.

남녀로소 누구나 다 세계지도앞에서 광활한 로씨야의 지점을 짚어 가며 그이의 자욱에 보폭을 맞추고 마음과 마음들을 따라 세우고 있다.

－그이께서 돌아 오시는 그날에 드릴 충성의 보고를 마련하자!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 기적과 혁신으로 실적의 꽃바구니를 엮어 드리자!

이것은 조선의 방방곡곡 어디서나 울려 나오는 소박한 인민들의 꾸밈 없는 목소리들이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날과 날을 수 놓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위훈을 창조해 가고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전선인 전력, 석탄, 금속공업부문들과 철도운수부문이 여느 때없이 들끓고 각 부문 근로자들이 그들과 숨결을 같이 하고 있다.

여러해동안 지속된 자연재해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나라의 경제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게다가 최근 또다시 1,000년래 가물뒤에 따른 무더기비가 쏟아 져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들이 물속에 잠기고 수만정보의 농경지와 수천세대의 살림집, 공공건물들이 침수 및 파괴되였다.

하지만 인민들은 견인불발하여 산악같이 일떠섰다.

조선인민은 오직 한마음 **김정일**장군님께서 외국방문의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안녕히 돌아 오시기만을 손 꼽아 기다리고 있다.

≪**김정일**동지, 더 자주 오시라≫

로씨야신문 글 발표

(평양 주체 90년 8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신문 ≪자브뜨라≫ 제32호가 ≪**김정일**동지는 통일조선의 령수≫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동지께서 모스크바에 오시였다. 그이께서 레닌묘에 진정하신 화환이 지금도 불길처럼 붉게 타고 있다. 금장식과 공작돌 및 대리석 장식을 한 화려한 크레믈리의 방들은 조선의 수령을 환영하여 축배를 드는 정치가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뛰여난 전략가이시며 림기응변의 외교술을 지닌 외교활동가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미국의 카우보이(미국서부지역의 기마목동)들과 로씨야≪민주주의자들≫의 가혹한 고립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시였다.

이 자들은 조선의 국경을 봉쇄하고 전투함들이 조선을 목표로 포신을 돌리게 하였을뿐아니라 평양의 하늘에 우주정탐수단을 띄워 놓고 조선에 대한 끝 없는 적대감을 고취하는데 악착한 선전수단들을 총 동원하였다. 그러나 목사의 세례를 받은 마귀할미 비슷한 알브라이트가 조선소년단원들의 인사를 받았고 거만하기 짝이 없던 ≪8개국수뇌자≫들이 ≪조선문제≫를 수뇌자회의에 주요의제로 상정시켰다.

뿌찐이 자기의 유년시절을 보낸 고향도시를 찾아 가듯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지금은 모스크바가 조선의 령도자를 맞이하였다. 무히나의 조각품 ≪로동자와 농민≫의 주인공들이 한결 더 젊어 진것 같고 쓰딸린부각상들의 표식물과 장식물들이 꽃으로 활짝 피여 나는것 같다. 그런가 하면 ≪제1선≫의 여러 거물급 ≪민주주의제씨들≫은 경풍에 걸린것 같다.

신문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북조선의 인민과 당은 **김정일**동지께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권을 그대로 넘겨 드림으로써 정권의 계승성과 주체학설의 순결성을 최고수준에서 보장하였으며 그 어떤 사소한 변태와 후퇴도 모르고 오직 주체의 한길로만 전진할수 있었다.

주체는 단순한 정치학설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의 문명을 적대시하는 온갖 원쑤들을 반대하는 영웅적인 투쟁과정에 창시된 정치리념이다. 이 학설의 정당성은 조직적이며 락관주의적인 인민이 사는 나라, 훌륭한 도시들과 우주로케트와 미싸일을 만들수 있는 발전된 공업을 가진 주권국가인 북조선이 건재하고 있는 기적적인 현실에 의해 여실히 확증되고 있다.

주체, 이것은 전쟁의 불도가니속에서도 산속에서도 녹지 않는 신기한 수정과 같다. 때문에 제국주의련합세력이 반세기이상 이 나라를 녹여 내려 하였지만 그것은 허사였다.

신문은 조선은 자기의 지정학적지위와 특유한 공업잠재력, 교양있고 조직화된 인민의 근면성을 완전히 리용하려 하고 있다고 쓰고 다음과 같이 끝 맺었다.

김정일동지, 우리는 당신의 모스크바방문을 기쁘게 생각한다. 당신의 인품과 당신의 의상, 당신의 악수가 마음에 든다.

김정일동지, 더 자주 오시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러시아연방방문과 체류에 대한 상보

구국의 소리 / 주체90, 8월 22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연방방문과 체류에 대한 상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상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러시아연방대통령 웨. 웨. 푸틴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2001년 8월 4일부터 5일까지 러시아연방을 공식방문하시고 6일과 7일 싼크트 뻬쩨르부르그시를 비공식방문하시였으며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러시아에 체류하시었다.

러시아연방대통령 웨. 웨. 푸틴각하는 위대하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온갖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였으며 러시아인민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러시아연방대통령 웨. 웨. 푸틴각하와 두차례의 뜨거운 상봉을 하시고 회담을 하시었으며 대통령전권대표들과 주장관들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많은 지도일군들과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었다.

친선적이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두 나라 최고수뇌들의 상봉과 회담들에서는 서로의 성과와 경험이 통보되고 조러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국제정세를 비롯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진지하게 교환되었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두 나라의 영도자들은 깊은 역사적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조러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새 세기에 들어 선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이익에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상봉과 회담들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러친선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일치한 염원이라고 하면서 지난해 평양에서 조인된 조러공동선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 두 나라의 번영과 평등한 호혜적협조를 이룩하기 위한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웨. 웨. 푸틴대통령은 고대하던 **김정일**동지의 러시아연방방문이 새 세기의 첫해에 실현된데 대하여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면서 이번 방문이 두 나라의 호상 이해와 신뢰, 친선과 협조를 더욱 증진시키고 새 세기를 지향한 조러친선관계의 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상봉과 회담들에서는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호상 지지와 연대성이 표시되었다.

두 나라 영도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특히 조선반도북남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수송로창설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과 러시아철도연결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당면한 협조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훌륭한 결실을 보았다.

두 나라 영도자들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폭 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새 세기에 쌍방의 공동노력으로 세계평화와 안정,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는데 백방으로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웨. 웨. 푸틴대통령은 모스크바체류를 끝내시는 **김정일**동지와 또다시 비공식상봉을 마련하고 특별한 환대를 베풀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번 웨. 웨. 푸틴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상봉을 통하여 친분관계를 더욱 두터이하였으며 조러친선의 유대를 일층 강화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러시아연방에 대한 공식방문을 마치시고 6일과 7일 영웅도시 싼크트 페쩨르부르그시를 비공식방문하시었다.

김정일동지를 서북연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웨. 웨. 체르케쏘브, 싼크크





페쩨르부르그시장 웨. 아. 야코블레브, 레닌그라드군관구 사령관 웨. 에스. 보브리쉐브, 부시장 겸 대외연계위원회 위원장 게. 이. 트카체브를 비롯한 중앙과 시의 지도일군들이 정중히 영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웨. 아. 야코블레브시장을 비롯한 시의 지도일군들을 만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고 시장이 차린 연회에 초대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기간 49만명의 레닌그라드방위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피스카료브묘지의 ≪어머니－조국≫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시였으며 에르미타쥬박물관과 페뜨로빠블롭스크요새를 비롯한 역사유적들, 레닌그라드금속공장과 끼로브공장 등 여러 단위들에 대한 참관을 진행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랜 역사와 문화, 투쟁전통을 가지고 있는 싼크트 페쩨르부르그시를 참관하시고 러시아인민의 지혜와 재능이 깃들어 있는 문화유산을 훌륭히 고수하고 빛내이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마리인스키극장에서 발레극 ≪씰피다≫를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러시아연방공식방문과 싼크트 페쩨르부르그비공식방문을 위하여 오가시는 길에 러시아의 여러 지방들에 체류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의 전 영토를 통과하시는 전 기간 원동연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까. 베. 풀리꼽스키를 비롯한 러시아연방 대통령행정부와 외무성의 지도일군들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모스크바로 가시던 길에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러시아의 중요공업도시의 하나인 옴스크시에 체류하시었다.

김정일영도자를 역에서 시베리연방구주재 대통령 전권대표 엘. 웨. 드라쳅스키, 옴스크주행정장관 엘. 까. 폴레쟈예브, 옴스크주 립법회의 의장 웨. 아. 와르납스키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지도일군들이 영접하였다.

그이께서는 옴스크주행정장관을 위시한 주와 시의 지도일군들의 동행하에 탱크를 비롯한 현대적인 트렉터를 생산하는 옴스크운수기계제작공장과 농업종합체 ≪옴스끼 베콘≫, 푸시킨명칭 옴스크국립과학도서관을 참관하시었으며 주행정장관이 차린 연회에 참석하시고 주예술인들이 준비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러시아연방에 대한 방문을 마치시고 귀국하시는 길에 11일 노보씨비르스크시에 체류하시었다.

1984년 5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였던 잊을수 없는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노보씨비르스크시민들은 각별한 친근감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뜨겁게 맞이하였다.

김정일동지를 시베리연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엘. 웨. 드라쳅스키, 노보씨비르스크주행정장관 웨. 아. 똘로꼰스키, 주대의원의회 의장 웨. 웨. 레오노브, 노보씨비르스크시장 웨. 에프. 고로제쯔키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지도일군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앙과 지방의 지도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노보씨비르스크시에 있는 러시아과학원 시베리분원, 츠깔로브명칭 항공생산연합체, 시베리국립철도종합대학을 참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많은 전투기들을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줌으로써 위대한 조국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지금은 여러가지 최신식비행기들을 설계제작하고 있는 츠깔로브명칭 항공생산연합체를 돌아보신 다음 비행시위를 관람하시고 비행시위에 참가한 비행사들을 만나시어 축하해 주시였다.

이날 저녁 노보씨비르스크주행정장관 웨. 아. 똘로꼰스키는 **김정일**동지를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다.

8월 15일 광복 56돌을 맞으며 푸틴대통령은 러시아연방에 체류중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축전을 보내여 왔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7일 원동연방구의 소재지 하바롭스크시에 체류하시였다.

하바롭스크변강과 시의 지도일군들, 하바롭스크시민들은 조러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하고 귀국하시는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그이께서는 슬라바광장에 있는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신 다음 향토박물관과 노병회관, 어린이식품종합공장, 백화점을 참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변강의 지도일군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아무르강을 유람하시면서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고 연회에 초대되시였다.

러시아 체류기간 전 쏘련원수 데. 테. 야조브, 전 쏘련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 웨. 웨. 크류츠코브, 러시아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에쓰. 제. 우말라토바, 전 쏘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웨. 웨. 카르포브를 비롯한 개별인사들이 **김정일**동지를 찾아 뵙고 환영의 인사를 드리였으며 장군님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러시아방문과 체류는 러시아연방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대통령의 관심과 환대, 러시아인민의 열렬한 환영속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시었으며 국경을 넘으면서 러시아연방대통령 웨. 웨. 푸틴각하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여 전문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진행하신 러시아연방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은 전통적인 조러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조러친선의 연대기위에 빛나게 기록될것이다.



머나먼 5만여리 장정-로씨야공식방문

로동신문 정론



(평양 8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방문을 성과적으로 끝마치신것과 관련하여 오늘호 ≪로동신문≫은 정론 ≪머나먼 5만여리 장정≫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내 조국강산에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민족적대환희의 열풍이 불어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방문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 오시였다.

새 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찬연한 빛을 뿌리시며 우리 민족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해 머나먼 5만여리의 장정을 다녀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병사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삼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새 세기의 첫해에 진행된 위대한 장군님의 이번 첫 공식외국방문은 세기와 력사를 드세게 진동시키고 우리 민족과 인류력사발전에서 거대한 전변을 가져 온 특기할 사변이였다.

태평양연안의 국경마을 하싼에서부터 서북단 싼크뜨-뻬쩨르부르그까지 5만여리에 걸쳐 머나먼 로씨야땅을 오가시며 20여일간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로친선의 뉴대를 더 굳게 이어 놓으신 위대한 장군님.

이 잊지 못한 나날에 로씨야인민들은 높은 존경심과 친근감, 두터운 신뢰의 정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가장 열렬히 맞이하고 성의껏 환대해 주었으며 우리 인민과의 친선의 뉴대를 더욱 튼튼히 하였다.

지금도 조선과 로씨야련방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상봉소식과 더불어 온 세상에 울려 퍼진 모스크바선언에 접하던 때의 흥분이 우리에게 뜨겁게 살아 있다.

21세기 세계의 자주화강령, 평화강령과 같은 모스크바선언의 채택발표는 이 지구상에 전인류적인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힘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알린 세계사적충격이였다.

유구한 국제외교사와 평화를 위한 인류투쟁력사에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이 선언은 세계의 정치흐름을 한손에 거머쥔 력사의 조종자, 자신의 운명을 통채로 인류와 굳게 이어 놓은 위대한 정의의 심장가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희세의 정치외교적성공작이였다.

사회주의승리의 기발높이 세기의 분수령을 넘어 선 걸출한 수령으로서 지구상에 첫 사회주의국가를 탄생시킨 력사적위인의 령전을 찾은 당당하고 고결한 례의, 레닌의 묘에 쏘련붕괴후 처음으로 정렬된 명예위병대며 절세의 사회주의수호영웅의 명의로 진정된 화환, 붉은광



장에 울린 의미심장한 신념의 발자욱소리, 유명한 10월혁명의 고향에 남기신 소중한 추억과 맹세의 숨결...

실로 얼마나 숭엄한 력사의 순간순간들이 흘러 갔는가. 로씨야의 중앙우주비행조종쎈터를 돌아 보실 때 거창한 경륜과 드팀 없는 확신으로 안광이 번뜩이던 그이의 모습은 그이께서 승리를 향해 돌진하는 세계자주화≪함선≫의 조종간을 틀어 쥐시였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화폭이였다.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과 세계평화위업을 위한 투쟁에서의 공동의 협조를 확언한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전례없이 거듭된 상봉이 준 의미는 또 얼마나 웅변적인가.

참으로 21세기 태양이신 위대한 백두령장의 로씨야련방방문은 세계자주화흐름에 크나큰 격파를 일으키고 **김일성**조선의 명예와 위력을 뢰성마냥 지구에 떨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련방방문은 제국주의자들의 오만하고 파렴치한 짓을 자주화의 거센 바람으로 휘잡아 묻어 버리는 력사적소용돌이였다.

전설적인 영웅서사시로 빛나는 5만여리의 머나먼 장정으로 지구를 들었다 놓으시며 후세에 길이 빛날 거대하고도 풍만한 결실을 안아 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사람들모두가 감격의 눈물, 기쁨의 웃음을 금치 못하며 축하의 꽃바구니와 꽃다발 안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른다.

어찌하여 우리 인민은 외국방문길에서 돌아 오시는 자기의 수령을 맞으며 그렇듯 크나큰 기쁨과 열광속에 들끓는것인가. 조국강산에 넘치는 인민의 격정과 환희, 그것은 절세의 위인을 모신 위대한 민족적긍지의 과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승리자의 자랑과 긍지를 가지게 되였으며 높은 영예와 존엄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되였습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사는것보다 존엄과 명예가 더 귀중하듯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집단인 인민에게도 자기 조국과 민족이 남만 못지 않으며 위대하다는 자부가 더없이 귀중하다.

남 다른 사회정치적안목과 감각으로 우리 공화국의 생활을 투시해 본 로씨야의 한 작곡가는 음악을 사랑하는 인민은 생활도 아름답다고 하면서 사람이 살아도 바로 조선사람들처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 깊은 주장을 력설하였다.

사람들은 위대한 령도자에 의하여 자기 민족의 명성이 유감없이 떨쳐 지고 자기 조국을 향해 만민의 경탄이 집중되는 사변을 체험할 때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그 무엇에도 비할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심장을 끓이게 되는것이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국땅에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치고 있다.

민족의 제일 긍지는 위대한 수령을 모신데 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 이것은 사람들을 언제나 고상하고 행복하게 하며 인민이 그 어떤 고난의 장벽도 주저없이 뚫고 승승장구하게 하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빛을 뿌리게 한다.

한 인민의 력사에는 위대한 수령을 모신 민족적긍지가 한껏 분출되는 계기들이 있다. 지난 세기 80년대에 있은 어버이수령님의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 대한 공식방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위도와 경도를 넘어 수십여일간에 걸쳐 엮어 진 6만여리의 그 로정이 세계정치사에 남긴 충격은 얼마나 컸던가.

오늘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련방공식방문을 두고 그때와 같은 격정과 흥분, 민족적긍지를 다시금 체험하고 있다. 일찌기 인류력사에 있어 보지 못한 시련의 불길속을 헤치고 조국과 사회주의수호업적을 쌓은 조선의 이름으로 거행된 위대한 장군님의 첫 공식외국방문, 이것으로 하여 우리의 민족적긍지는 오늘 력사상 최고의 높이에로 솟구쳐 오른것이다.

우리의 가슴에 벅차게 어려 온다.

환락과 사치에 병들고 지성과 량심이 제 갈 길 몰라 태질만 하던 세계에 운명전환의 돌풍을 일으키시며 유라시아대륙을 쿵쿵 울려 가신 거인의 발걸음소리, 새 세기 희망의 대문을 장엄한 대외진출로 활짝 열어 제끼시며 인류여, 정의와 신념의 기치 펄펄 날리며 이 길로 달음쳐 가자고 기관차의 기적소리와도 같은 심장의 호소를 터뜨리신 위대한 장군의 모습이...

조선의 드센 배짱과 인류자주위업실현의 심원한 뜻을 이따르-따쓰통신사의 질문에 주신 대답으로 엄숙하고도 명쾌하게 선언하시고 그 빛나는 실천으로 로씨야방문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이 아니시였던가.



위인의 그 모습을 세계가 다 보았고 위인의 그 의지를 세계가 다 들었으며 위인의 그 풍모에 세계가 다 매혹되였다. 그이께서는 겸허한 자세로 자신과 관련한 일체 환영례식을 물리치시였지만 그이 가시는 곳 그 어디에서나 위인숭배, 위인흠모의 열기가 뿜어 져 나왔다.

그 누가 시키거나 조직한것이 없건만 ≪**김정일**동지 만세≫의 웨침소리가 울려 나왔고 이전 초대국시기의 국방상을 비롯하여 로씨야의 각계 인사들과 회사, 단체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을 축하하여 지성어린 선물들을 드리였으며 저저마다 언론의 마이크를 빌어 절세의 위인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감정을 온넋으로 터치였다.

세계도처에서는 조로친선관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중대사, 세계평화와 국제적안전보장에 백방으로 기여한 력사적방문이라는 격찬이 그칠새없이 터져 나왔다.

수령이 위대해야 강국이다.

세계력사에는 옳바른 령도자를 모시여 치욕의 나락에서 존엄의 상상봉으로 치달아 오른 민족도 있었고 반대로 광활한 령토와 무진장한 인구, 지하자원을 가진 나라가 참다운 수령의 령도를 잃어 행복과 번영의 언덕에서 가난과 치욕의 늪속으로 깊숙이 빠져 버린 통탄할 비극도 있었다.

이것을 직접 당해 본 유럽의 한 언론인은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의 순간순간, 하루하루는 조선은 정녕 대국이며 **김정일**동지는 그 대국의 수령이시고 세계의 수령이시라는것을 보다 새롭게 체험하는 순간의 련속이였다, 조선은 대국이다, 세계정치를 좌우지하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나라가 바로 대국이다라고 말하였다.

우리 민족의 지나간 력사에는 사대와 굴종, 수치의 흔적이 얼마나 가슴 아피 얼룩져 있는가. 당파싸움에 조정이 피로 물들고 자기 우월감, 자기 힘에 대한 자신심을 잃은 봉건적쇄국의 방파제에 부딪쳐 문명의 물결이 좀처럼 스며 들지 못한 이 땅에서 국력이 쇠약해 지고 인민이 무맥해 졌다. 한 나라안에서도 이 대국, 저 대국을 승벽내기로 섬기며 서로 다른 렬강들을 등에 업고 정권탈취의 류혈극을 빚어 낸 봉건사대부들, 그 란리통에 왕국의 대신이 인질로 이국땅에 붙들려 가고 왕비가 섬오랑캐강도들에게 무참히 릉욕 당하고 처형 당하는 치욕도 들써야 했다. 조선은 땅도 작았지만 옳바른 령도자가 없어 더구나 작고 보잘것 없었다. 하여 그 대명사는 ≪약소국≫이였고 그 처지는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은 불우한 나라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번 력사적인 첫 외국공식방문은 수령의 위대함에 민족의 위대함이 따른다는 력사의 심원한 진리를 세상에 보여 준 영웅적장거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한 우리 조국땅에 넘치는 기쁨과 그리움의 폭발, 그것은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의 장엄한 교향악이다.

지나온 력사에는 우리 혁명대오의 단결이 과시되는 계기들이 많았다.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와 통쾌한 전승광장, 경축의 불보라 터져 오른 기념일들의 열병 및 시위광장들, 나라에 덮쳐 들었던 최악의 위기를 몰아 낸 고난의 그 나날들에 높이 발휘된 우리의 일심단결은 언제나 군민을 승리에로 부르고 세상을 감동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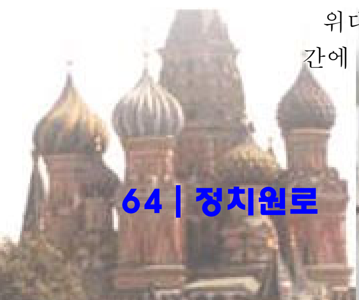
수령이 인민과 조국을 떠나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올라 계실 때야말로 우리의 일심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하게 발휘되고 과시되는 력사적계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에 계시지 않던 기간에 타올랐던 그리움의 불길, 일심단결의 불길은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했으며 열렬했던가. 아침에 뜨는 해, 저녁에 비낀 달을 보면서도 이 땅의 천만군민은 한사람같이 어버이장군님을 생각하였다.

장군님소식을 기다리는 마음들, 장군님 안녕과 건강을 바라는 념원들, 장군님께 기쁨 드릴 자각과 결의들을 비껴 안고 꺼질줄 모른 이 나라 집집의 불빛들이며 지샐줄 모른 이 나라 일터와 초소의 밤들, 기상수문국으로 그칠새 없이 걸려 온 로씨야날씨에 대한 문의전화들. . .

멀리 서북쪽 나라 하늘가를 우러르며 최고사령부에 아침인사를 삼가 드려 온 우리의 일당백초병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의 불길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활활 지펴 올리면서 조국의 방선을 굳건히 지켜 왔고 강성대국건설장들마다에서 혁신의 동음을 더욱 기운차게 울려 왔다. 쇠돌생산의 동음높이 울린 무산의 철산봉이며 기관차수리와 더 많은 물동량운반으로 달아 오른 철도부문, 염소마리수가 부쩍 늘어 난 함흥땅의 염소목장, 나날이 검푸른 독이 오른 황해남도의 새로 정리된 벌들, 수도의 닭공장현대화공사장과 3만세대 살림집지하구조물공사장에서의 혁혁한 성과 등 근로자들이 일하는 그 어디서나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드릴 심장의 인사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외국방문나날을 더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로 빛내이자고 과학전선이 들끓었다.

위대한 어버이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끓어 오른 그리움의 용암은 한 민족의 력사에서 순간에 지나지 않는 20여일간에 우리의 일심단결의 보루를 더욱 굳건하게 다져 놓았고 조국강






산에 거창한 창조와 전변의 격류를 낸았다.

참다운 수령을 모시지 못했던 그 세월 제 갈래로 뿔뿔이 흩어 진 민족의 처지를 통탄만 해야 했던 우리 인민이였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을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여 고난의 사선천리도 웃으며 어깨 겯고 헤쳐 넘고 승리자의 웃음도 모두가 하나같이 통쾌히 터뜨리는 위대한 일심단결의 나라, 자기 수령의 외국방문기간을 비상한 충성과 위훈의 나날로 엮어 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신비한 나라로 불리우고 있다.

얼마전 외국의 한 신문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씨야련방방문기간에 조선에서 굽이쳐 흐른 그리움의 대하에 대하여 류다른 주의를 돌려 보도한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이 세상 그 어떤 광풍도 핵무기도 무맥케 하는 우리의 자랑이고 힘이였다. 사람들이여, 잊지 말자.

오늘이 이 민족적대경사, 인류의 커다란 희망과 환희에 깃든 절세의위인의 거룩한 로고를, 삼복의 무더위와 무더기비, 기나긴 려정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민족번영과 인류자주위업을 위해 겹쌓인 피로를 그대로 안으신채 대륙을 선회하시며 그처럼 헌신분투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동행했던 일군들이 너무도 무리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이 걱정되여 시간차이로 인한 부담이라도 덜어 드리려고 점심시간을 조금 길게 잡았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에 대해 못내 나무람하시면서 대폭 줄여 잡으신 짧은 시간안에 서둘러 식사를 끝내신 후 청춘의 정력에 넘쳐 활동을 계속하시였으니 그 가슴 치는 로고의 이야기를 우리 어찌 뜨겁게 새기지 않을수 있으랴.

우리는 눈물의 회오리속에 다시금 외워 본다.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가 하는 이따르-따쓰통신사의 질문에 그이 주신 대답, 수령님 생전의 뜻을 받들어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을 통일하기전에는 시간을 랑비할수 없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신 그 말씀, 온몸을 다 태우며 인민을 사랑하시고 정의를 수호하시는 불세출의 령도자, 자주와 평화의 위대한 영웅이신 그이의 고결한 의지, 뜨거운 숨결을 크레믈리의 성벽이며 우랄의 산맥, 네바강의 물결이며 씨비리의 봇나무숲이 다 간직했으리라.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개선장군으로 맞이한 우리 인민의 심장은 절세의 위인을 천만년 높이 모셔 갈 숭고한 일념으로 불 타고 있다.

체험은 신념을 낸는다.

우리는 이번의 사변적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 민족이 강성하고 부흥하는 길, 인류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사는 길이 있음을 더욱 똑똑히 알았다.

선군의 기치우에 백두령장의 위대함이 있고 총대우에 **김일성**조선의 긍지가 빛을 뿌린다.

우리는 오늘의 이 가슴 벅찬 사변을 두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그처럼 힘겨웁고 숨 가쁘던 고난의 진펄속에서 영영 주저 앉아 버렸더라면, 만약 위대한 장군님 높이 드신 선군의 기치 따라 용솟음쳐 일어나 자주적근위병으로 싸우지 못했더라면 백두령장께서 일찌기 룡남산마루에서 선언하신것처럼 주체의 붉은 노을 찬연히 펴져 가는 21세기의 이 아침 하늘가를 바라볼수 있었으랴.

우리자신도 미처 몰랐고 세계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조선이 이렇게 위대한 승리자로 기어이 살아 일어나 세계적판도에서 자주와 정의의 거대한 힘을 용용히 뻗치리라는것을. . .

선군의 기치를 펄펄 휘날리시며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구원해 주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긍지를 만방에 떨쳐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인민은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린다.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그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 가리라. 력사적인 첫 외국공식방문길에 쌓으신 백두령장의 위대한 업적을 영원토록 빛내여 가리라는것이 오늘 이 땅의 천만군민이 피와 목숨으로 다지는 엄숙한 맹세이다.

우리는 억만금을 주고 지구를 통채로 준대도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이 긍지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건설에 더욱 힘차게 떨쳐 나섬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앞당겨 실현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화를 위한 인류의 공동위업을 촉진하는데 적극 기여해 나갈것이다.

력사는 21세기 태양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세계자주화를 위한 머나먼 5만여리 장정에 수놓아 진 불멸의 은공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로씨야방문을 5대륙인민들이 높이 칭송

(평양 8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로씨야련방방문은 세계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5대륙의 정치인들과 각계 인사들을 비롯한 평화애호인민들 그리고 광범한 출판보도계는 무려 5만여리에 달하는 먼길을 오가시며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진행하시여 반제자주와 평화위업, 조로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김정일**동지를 새 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뿌찐대통령은 고대하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련방방문이 새 세기 첫해에 실현된데 대하여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면서 장군님을 크레믈리에서 정중히 맞이하였으며 장군님과 세번이나 뜨겁게 포옹하였다. 그리고 연회연설에서 로씨야의 심장부인 크레믈리에서 존경하는 **김정일**동지를 열렬히, 진심으로부터 환영하는바이라고 말하였으며 장군님과 여러차례 상봉 및 회담을 하였다.

그는 지난해 평양방문시 자신을 수행하였던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까. 베. 뿔리꼽스끼에게 태평양연안의 로씨야국경마을 하싼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의 전 령토를 통과하시는 전 기간 동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장군님을 온갖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였다.

그는 모스크바체류를 끝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또다시 비공식상봉을 마련하고 특별한 환대를 베풀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뿌찐대통령의 극진한 환대에 대하여 로씨야출판보도물들은 이례적인것이라고 평하였으며 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조선담당부과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람들은 뿌찐대통령이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과는 비교도 안되게 **김정일**동지에 대하여 특별한 환대조치를 취하고 있는것을 목격하면서 놀라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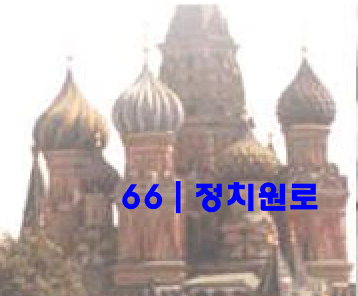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굳건히 계승하시여 초대국인 미국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담력으로 정치를 펴 나가시는 세계적인 령도자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계시기때문이다.

로씨야의 각계층인사들은 또한 21세기에 첫 공식외국방문으로 로씨야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례없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방문하시였거나 체류하신 모스크바, 싼크뜨-뻬쩨르부르그, 노보씨비르스크, 옴스크, 하바롭스크 등에서 대통령전권대표들과 중앙과 지방의 지도일군들, 각계층 인민들이 **김정일**동지를 국빈으로 가장 뜨겁게 맞이하였으며 최대의 성의를 표시하였다.

전 쏘련원수 데. 떼. 야조브, 전 쏘련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 웨. 웨. 크류츠꼬브,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에쓰. 제. 우말라또바, 전 쏘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웨. 웨. 까르뽀브를 비롯한 개별인사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찾아 뵙고 환영의 인사를 드리였으며 장군님께서 로씨야방문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방문기간 경애하는 장군님께 로씨야모스크바전쟁로병위원회 위원장, 로씨야≪대






양의 평화≫국제위원회 위원장, 국립아까데미야내무성협주단 단장, ≪루가≫과학생산련합체 총사장 등 수많은 인사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드리였으며 신문 ≪웨께란≫책임주필, 중앙무력박물관 관장, ≪빠르뜨뇨르-1≫회사 총사장, ≪민족비행기술쎈터≫, ≪극소형도서세계≫회사 등 여러 인사들과 기관, 회사들에서 선물을 올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칭송하는 노래들을 창작한 로씨야작곡가 겐나지 샤린은 자기 나라를 방문하신 장군님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노래 ≪평양-모스크바친선은 영원하리≫를 완성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한편 세계 여러 나라의 정당지도자들과 각계 인사들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을 새 세기의 가장 의의 있는 국제사변으로 칭송하며 환영하였다.

마다가스까르독립대회당, 사회주의진보당, 자주권을 위한 전투행동당에서 진행된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에 대한 통보모임에서 정당당수들과 일군들은 한결같이 그이의 방문성과를 가장 뜨거운 흠모의 정을 담아 열렬히 축하하였다.

뻬루민족회복당 위원장과 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은 담화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은 거대한 성과를 이룩한 특기할 방문이라고 강조하고 세계정치원로이신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가이아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민족운동 총비서와 민족대회당 지도자는 로씨야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진행하신 위대한 장군님께 당의 이름으로 전투적인사를 드린다고 지적하고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김정일**각하를 21세기 태양으로 높이 흠모하면서 그이께서 세계사회주의위업을 령도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씨야방문의 나날에 사회주의10월혁명의 수령인 레닌의 묘를 방문하시고 무명전사묘와 49만명의 레닌그라드방위자들이 안치되여 있는 삐스까료브묘지의 ≪어머니-조국≫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시였으며 21세기의 위대한 자주선언인 조로모스크바선언을 발표하시였다.

쏘련붕괴후 처음인 이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21세기를 주도하실 분≫, ≪사회주의위업의 수호자≫, ≪현 시대의 위대한 정치원로≫로 높이 격찬하면서 다함 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고 있으며 그이의 방문을 ≪세계의 앞날을 위한 전례 없는 방문≫, ≪미국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한 방문≫, ≪인상적인 방문, 훌륭한 결실≫이라고 평하고 있다.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 책임주필 미하일 젬스꼬브는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에서 벌리시는 대외활동모습을 보고 그이의 위대성을 세가지로 찾아 보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로, **김정일**동지는 공산주의도덕을 최상의 수준에서 체현하신 분이시라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선대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먼길을 오시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로씨야땅에 남기신 발자취를 따라 그이의 업적을 력사에 길이 빛내이시려는 **김정일**동지의 깊은 뜻이 담겨 져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김정일**동지는 진정한 공산주의자이시며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수령이시라는것이다.

8월 4일은 가장 열렬한 공산주의자,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위대한 수령은 오직 조선의 **김정일**동지밖에 없다는것을 세계가 다시금 인식한 날이라고 볼수 있다.

력사의 온갖 반동들에 의해 치욕을 당하던 레닌묘가 구세주를 만난 날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후에도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나라들이 있었고 사회주의정당들도 많았지만 로씨야에 온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레닌묘를 방문하고 화환을 진정하지 않았다.

김정일동지의 레닌묘방문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로씨야공산주의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 준 대용단이였고 **김정일**동지와 같으신 분을 따를 때 사회주의운동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더해준 사변이였다.

셋째로,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외교지략을 지니고 계시는 가장 위대한 분이시라는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 모스크바에 오시여 뿌찐대통령과 마주앉으신 단 몇시간만에 로조모스크바선언이 발표되였다.

그리하여 훼방분자들의 책동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로씨야신문 ≪글라스노스찌≫ 책임주필 유리 이쥬모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을 세계기록집에 올려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이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직전에 로씨야에 훈시질을 하고 방문의 의미를 약화시키려고 꾀하였지만 조로모스크바선언의 채택으로 하여 체면만 손상 당하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김정일**동지의 확고한 원칙성과 능란한 외교전략, 무비의 담력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이라고 생각한다.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집행위원회 서기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은 우리들에게 또다시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 주었다, 그이께서는 이번에 조선과 로씨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자주의 원칙에서 한계단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 세우시였을뿐아니라 세계자주화위업을 가일층 촉진시키시였다, 우리는 이번에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세계의 정치원로이시며 21세기를 주도하실 유일한 향도자이시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고 말하였다.

우간다 물, 토지 및 환경성 국무상은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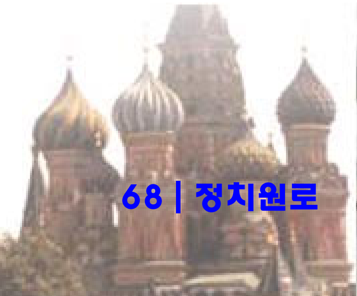
세계는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의 로씨야방문을 통하여 그이의 위대성과 높은 국제적 권위, 그이의 자주정치의 생활력을 실감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이번 로씨야방문은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발전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한 력사적인 사변이다.

그이께서는 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과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다시금 밝히시고 미국의 대조선정책과 세계제패야망에 된 타격을 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은 그이께서 하싼에 도착하신 때부터 세계정치계와 출판보도계의 특별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21세기의 국제적인 사변으로 공인되였다.

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 중국 신화통신, 꾸바 쁘렌싸 라띠나통신, 일본 교도통신, 미국 에이피통신, 영국 로이터통신, 프랑스 에이에프피통신, 리비아 쟈나통신, 오스트






리아 아파통신을 비롯한 세계 5대륙의 수많은 통신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을 특별소식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세계 150여개 나라의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들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방문소식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국영텔레비죤방송인 엔떼웨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수많은 텔레비죤방송들, 중국중앙텔레비죤방송, 캄보쟈국가텔레비죤방송, 일본 엔에취케이텔레비죤방송, 리비아텔레비죤방송, 이란중앙텔레비죤방송, 마다가스까르의 떼베엠, 마떼베, 에르떼아중앙텔레비죤방송들, 로므니아텔레비죤방송, 프랑스의 제1, 제3텔레비죤방송 등 세계의 수많은 국가 및 지역텔레비죤방송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스크바에 도착하시는 장면과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와 상봉하시는 장면, 뿌찐대통령과 회담하시는 장면, 조로모스크바선언문에 수표하시는 장면, 레닌묘를 방문하시고 화환을 진정하시는 장면, 흐루니체브명칭 우주과학생산쎈터와 중앙우주비행조종쎈터를 참관하시는 장면 등을 특별방영하였다.

체스꼬 쁘라마텔레비죤방송은 일요일 하루동안에만도 시청률이 가장 높은 9시, 12시, 21시에 로씨야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는 장면과 함께 그이의 방문소식을 반복보도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신문들도 지면을 아끼지 않고 ≪2001년의 제1국제사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세계사적사변≫, ≪온 세계를 들었다 놓은 국제사변≫ 등 제목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소식을 대서특집하였다.

특히 로씨야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방문소식을 관례를 벗어 나 대대적으로 광범히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씨야를 방문하시는 기간 이 나라 출판보도물들은 1, 000여회에 걸쳐 그이의 방문소식을 보도하였다. 이것은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의 방문소식 보도회수에 비해 7배에 달한다고 한다.

≪자브뜨라≫, ≪몰니야≫, ≪빠뜨리오뜨≫, ≪쁘라우다≫, ≪뜨루드≫, ≪쏘베쯔까야 로씨야≫, ≪네자비씨마야 가제따≫를 비롯한 이 나라 신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에 대한 사진을 모시고 그이의 이번 방문은 로조친선관계력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세계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 캄보쟈의 ≪화상일보≫, 말레이시아신문 ≪우뚜산 말레이시아≫, 인디아신문 ≪힌두≫,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 이란신문 ≪테헤란 타임스≫, 리비아신문 ≪앗 샴쓰≫, 에짚트신문 ≪알 아흐람≫, 탄자니아신문 ≪데일리 뉴스≫, 로므니아신문 ≪나인 오클로크≫, 스웨리예신문 ≪다겐스 니헤테르≫, 체스꼬신문 ≪쁘라보≫, 꾸바신문 ≪후벤뚜드 레벨데≫, 뻬루신문 ≪리베라씨온≫을 비롯한 세계 수많은 신문들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세계에 평화를 선언하시였다≫, ≪조로친선관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중대사변≫, ≪세계평화와 국제적안전보장에 백방으로 기여한 력사적방문≫ 등의 제목으로 특집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모스크바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연방 대통령이신 웨. 웨. 푸틴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2001년 7월26일부터 러시아에 체류하시었으며 8월4일과 5일 공식방문하시었다.

새 세기 첫해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최고수뇌들의 상봉과 회담은 조러친선관계역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역사적인 이정표로 되었다.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친선적이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새 세기에 세계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공보 및 기타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의 우위와 평등, 호상존중, 호혜적 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쌍방은 세계적인 문제들에서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 원칙과 규범들에 배치되는 온갖 시도들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세계에 존재하는 분쟁문제들은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정치적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국제관계에서 독립과 자주권, 영토완정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매개 국가는 평등한 수준의 안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쌍방은 국제테러와 호전적 분립주의의 전파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1972년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으로, 전략공격무기의 가일층의 축감을 위한 기초로 된다는데 대하여 유의하면서 새 세기에도 국제적 안전강화에 백방으로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계획이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확언하였다.

러시아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러한 입장을 환영하였다.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조러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새 세기에 들어선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이익에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쌍방은 2000년 7월19일에 두 나라 최고수뇌들이 서명한 조러공동선언과 2000년

2월9일에 조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문건들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 두 나라의 번영과 평등한 호혜적 협조를 이룩하기 위한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일련의 해당한 협정들이 체결된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쌍방은 무역경제협조분야에서 이미 이룩된 합의들을 구체화하면서 쌍무결제에서의 과거문제들을 조정하는데 기초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건설된 기업소들, 특히 전력부문 기업소들의 개건계획들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자기 정부들에 이와 관련한 지시를 주었다.

러시아측은 일련의 쌍무계획실현을 위하여 조선측의 이해밑에 외부의 재정원천을 인입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려는 자기의 의향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세계적 실천에서 공인된 호상이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 북남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수송로창설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약하면서 조선과 러시아철도연결사업이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2000년 6월15일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조선의 통일문제해결에 이바지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측은 이와 관련한 조선의 북남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며 북남대화가 외부의 간섭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선반도에서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건설적이며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를 확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러시아측은 이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비군사적 수단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러시아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련의 유럽국가들 및 국제기구들사이의 공식관계설정이 적극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사이의 회담과정에서 성과가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기간 러시아측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러시아연방대통령 웨. 웨. 푸틴각하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다시 방문하도록 초청하시었다.

초청은 감사히 수락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러시아연방 대통령
김정일	웨. 웨. 푸틴

20001년 8월4일
모스크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오늘 우리들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연방에 대한 공식방문을 성과리에 마치시고 조국에 돌아오신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여 한없는 기쁨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새 세기의 첫 8.15광복절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역사적인 러시아연방방문으로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축하를 드립니다.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로 마련된 조러 두 나라 수뇌분들의 뜻깊은 상봉과 회담, 모스크바선언의 채택은 오랜 전통을 가진 조러친선관계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며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거대한 기여를 한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새 세기의 첫해 정초부터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시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여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8월의 뜨거운 폭양과 전례없는 폭우 속을 헤치시며 수만리 장정의 자욱위에 조러친선의 화원을 꽃피워주시고 가시는 곳마다에서 새 세기를 대표하는 인류의 탁월한 영도자의 위인상을 만민의 심장 속에 깊이 심어주시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할 것을 천명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환영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시고 우리 겨레에게 새 세기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통일조국을 선물로 안겨주실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시었습니다.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1세기를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기로 빛내이시기 위하여 철저한 반제자주적 입장에서 현시대의 정세흐름을 바로 잡아주시었습니다.

주체의 기치 드높이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순간의 휴식도 없이 위대한 헌신의 날과 날을 보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번 역사적인 러시아연방방문에 의하여 주체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더욱더 유리한 국제적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인류의 자주화위업실현의 앞길에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참말로 위대한 장군님은 불패의 자주정치로 겨레와 인류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어주시는 세계정치원로이시며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선군혁명영도의 자욱을 아로새기시며 공장과 농촌, 군부대들을 현지지도하시던 그 길로 러시아연방을 방문하셨다는 소식에 접한 그 순간부터 장군님의 인자하신 태양의 모습을 그리며 부디 건강하신 몸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온 우리 남녘민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라시아대륙을 누벼가시는 그 자욱자욱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국통일을 위한 6.15남북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왔습니다.

지금 우리 남녘민중은 온 세계가 우러러 칭송하는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한없는 민족적 자긍심으로 끝없이 설레이고 있으며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를 충성의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자주정치, 선군정치로 주체조선의 위용과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계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를 격동시키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이번 러시아방문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 나가기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관철하여 가까운 앞날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이남민중의 역사적 숙원인 제2의 광복을 기어이 실현하여 7천만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의 치하에서 만복을 누릴 그날을 앞당겨올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며 민족만대의 번영은 찬란합니다.

겨레와 인류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은 조국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실현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각층 애국민중의 한결같은 소원을 담아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0(2001)년 8월 19일
서울

새 세기 조로친선과 자주위업의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사변

(평양 8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이곳 신문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련방 방문성과를 환영하여 사설들을 실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 사설은 **김정일**령도자의 이번 로씨야련방 방문은 훌륭한 결실을 가져 왔으며 우리 민족번영사와 국제정치외교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 지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두 나라 최고수뇌들의 모스크바상봉은 그가 가지는 거대한 정치적의의와 력사적지위로 하여 온 세상의 특별한 이목과 관심을 끌었으며 력사에 류례 없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두 나라 령도자들이 서명하신 조로모스크바선언이 채택된것은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조로모스크바선언은 21세기의 자주선언이며 평화수호기치, 민족부흥전략이다.

선언은 심오한 의의와 내용, 천만근의 무게와 높은 권위를 가진 력사적문건으로서 조로친선과 국제정세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것이며 그 생활력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더 커질것이다.

21세기는 장구한 기간 지속되여 온 지배와 예속의 력사를 끝장내고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자주의 새 력사를 창조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로모스크바선언은 바로 세계의 전략적균형과 안정을 파괴하고 독점적세계지배를 추구하는 제국주의, 지배주의, 반평화세력에 대한 엄숙한 경고로, 세계자주평화애호력량에 대한 힘 있는 고무로 된다.

조로모스크바선언의 무궁무진한 위력은 인민들을 자주와 평화, 번영에로 힘있게 떠밀어 주는데 있다.

로씨야는 우리의 미싸일계획이 평화적성격을 띠고 있으며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립장을 환영하였다.

조로 두 나라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과 우주군사화를 반대하며 그에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려는 립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경에 초강경으로 대답하는것은 자주와 민족적독립,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와 인민들의 정정당당한 자주적권리이며 민족적자존심을 생명으로 여기는 나라와 인민들의 대응방식이다.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에는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두 나라 령도자들은 2000년 6월 15일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하는것이 조선의 통일문제해결에 이바지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측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우리의 립장에 리해를 표명하였다.

사설은 계속하여 조로 두 나라 인민들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이 합의된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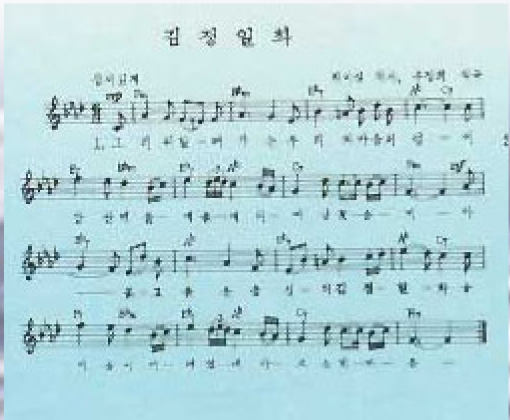
우리 인민의 강성대국건설 념원과 로씨야인민의 강력한 로씨야건설 념원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로친선협조관계발전을 추동하고 있다.

조로모스크바선언은 조로공동선언과 조로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과 함께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을 법적으로 담보해 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민주조선≫ 사설은 조선인민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정일화





그리워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처럼
이 강산에 붉게붉게 피여난 꽃송이
아 붉고붉게 피여난 꽃송이
송이송이 어려있네 따르는 한마음

꽃잎을 바라보면 그 열정 안겨오고
푸른 잎새 바라보면 그 정기 어려오네
아 붉고붉은 충성의 **김정일**화
송이송이 그 모습을 가슴에 안고살리

온 세상 사람들의 간절한 축원담아
천만송이 곱게 피는 향기론 꽃송이
아 붉고붉은 충성의 **김정일**화
무궁토록 만발하라 내나라 강산에

인류공동의 명절

(평양 주체 88년 2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2월 16일은 조선인민이 민족최대의 명절로 맞이하는 날이다. 이 날이 다가옴에 따라 조선에서는 물론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도 다양한 경축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지난 1월 28일 뻬루의 리마에서는 라틴아메리카지역의 10개나라 대표들을 비롯하여 400여명의 참가밑에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의 조국통일업적에 관한 라틴아메리카지역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의 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이룩하신 업적을 칭송하면서 그이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지난해 12월 22일 가이아나에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 57돐경축 준비위원회가 결성된후 현재까지 캄보쟈, 파키스탄, 로씨야, 도이췰란드, 영국, 프랑스, 꽁고, 에짚트, 메히꼬를 비롯한 30여개 나라에서 경축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당과 정부의 고위인사들과 정계, 사회계의 인사들이 망라되여있다. 특히 인디아전국경축준비위원회에는 25개의 정당, 사회단체, 친선단체 대표들이 망라되여있다. 각 국 준비위원회들은 경축기간을 설정하고 수도와 지방에서 경축집회, 기념강연회, 연구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하고있다. 한편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김정일**령도자께 뻬루 싼 미겔시리사회에서 시 금메달과 상장을 드리였으며 가이아나 레잉어비뉴 **김정일**동지로작연구소조가 결성되였다.

에티오피아신문 ≪더 모니터≫, 가이아나신문 ≪크로니클≫, 마다가스까르전국라지오방송을 비롯한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은 ≪**김정일**령도자의 정치철학≫, ≪21세기의 위인≫ 등의 제목들을 달고 련속 특집, 축하방송들을 하고있으며 그이의 고전적로작들을 단행본으로 출판하고있다. 최근 3년동안에만도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연 100여개 나라에서 경축준비위원회들이 조직되고 연 200여개 나라에서 2, 000여회의 각종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또한 연 150여개 나라의300여개의 출판보도물들이 1, 000여회에 걸쳐 특집, 축하방송들을 조직하였다.

위인이 받으신 최상의 표창

(평양 주체 88년 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백두산 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 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쉰돐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이 송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탄생 50돐(1992. 2.16) 에 즈음하여 지으신것이다.

생전에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위인상에 감탄해마지 않으신 주석께서는 그이께 최상의 영예를 안겨주고 싶으시였다. 그러나 **김정일**동지의 겸허성으로 하여 주석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주석께서는 늘 그것이 마음에 걸리시여 그이의 탄생 50돐에 자신의 성의가 깃든 선물들을 마련하기로 결심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석께서는 송시를 친작하시고 귀금속공예품 ≪백두밀영의고향집≫과 옥돌조각품 ≪조선의 기상≫, 수예품 ≪주체의 태양≫을 마련하시였다. 귀금속공예품 ≪백두밀영의 고향집≫은 정일봉을 배경으로 백두산고향집과 그 주위에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쓰신 구호나무들, **김정일**화, 진달래 그리고 한그루의 락락장송을 형상하였다. 또한옥돌조각품 ≪조선의 기상≫은 지구의를 둘러싸고 타래쳐오르는 구름으로 수자 2와 천리마를 선두로 16필의 말이 구름을 타고 날으는것을 형상하였으며 수예품 ≪주체의 태양≫은 **김일성**화, **김정일**화, 목란꽃을 중심으로 130여개 나라의 국화를 넓게 펼쳐놓은 백화만발한 화원속에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두 분의 영상을 모시였다.

선물들에는 시대와 력사 앞에 쌓아올리신 후계자의 업적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그이의 만수무강을 바라시는 주석의 념원이 뜨겁게 반영되여있다.

이 축하선물들은 주석께서 **김정일**동지께 베푸시는 가장 값높은 표창이였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2002년 2.16경축 준비위원회 결성

2002년 2.16경축 세계대회를 위한 마다가스까르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준비위원회 결성

(평양 주체 90년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2002년 2.16경축 세계대회를 위한 마다가스까르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준비위원회가 2월 24일 21세기 아프리카의 자주적발전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 호소문을 지지하는 이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련합모임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마다가스까르 **김정일**로작연구회 명예위원장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 결성에 앞서 련합모임에서는 21세기 아프리카의 자주적발전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에서 채택된 호소문이 전달된데 이어 호소문을 지지하는 토론들이 있었다.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뽀르뚜갈준비위원회 결성

(평양 주체 90년 3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뽀르뚜갈준비위원회 결성모임이 17일 알꼬쉐뜨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뽀르뚜갈 알꼬쉐뜨시 시장 미겔 보이에이루, 뽀르뚜갈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민주주의개입 전국지도위원회 위원장 블라스꾸 우구 페르난데스, 마누엘 죠아낌회사 사장 안또니오 오르발유를 비롯한 정계, 사회계 인사들, 친선단체와 주체사상연구조직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다음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백두산밀영지구에서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을 진행할데 대한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 특별회의 호소문이 랑독되였다.

모임에서는 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마누엘 죠아낌회사 사장이, 위원장으로 알꼬쉐뜨시 시장이 선출되였다.

알꼬쉐뜨시 시장은 모임에서 2002년에 맞이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하여 올해 태양절부터 다음해 2월 16일까지 다채로운 행사들을 의의 있게 조직진행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뽀르뚜갈공산주의자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가까운 앞날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 나선 조선인민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2002년 2.16경축 스위스준비위원회 결성

(평양 주체 90년 4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15일 조선통일지지스위스위원회와 로잔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공보쎈터가 2002년 2.16경축 스위스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조선통일지지스위스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가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올해 4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설정하였다.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로씨야특별준비위원회 결성

(평양 주체 90년 5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로씨야특별준비위원회가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지지 및 련대성동유럽쎈터의 발기로 모스크바에서 결성되였다.

올레그 쉐닌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준비위원회는 로씨야의 저명한 학자들과 사회활동가들, 예술인들, 군사지휘관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조직 일군들로 구성되였다.

특별준비위원회는 세계진보적사회계에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2002년은 형제적조선인민과 세계 벗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뜻 깊은 해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지지 및 련대성 동유럽쎈터는 현 시대의 위인들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성대히 기념하며 경축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친애하는 벗들에게 이 위대한 날들을 뜻 깊게 기념하며 경축할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을 비롯한 정치문화축전과 백두산밀영지구에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할것이다.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준비위원회 결성

몽골

(평양 주체 90년 6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준비위원회 결성모임이 5월 29일 몽골평화친선단체련맹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몽골 로력영웅이며 퇴역중장인 즈. 쟈미얀이, 위원장으로 몽골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스. 쑤렌쟈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다음해 2.16과 4. 15에 즈음하여 경축 및 기념집회, 조선노래경연, ≪내가 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제목의 미술 및 글짓기경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할것을 토의결정하였다.

한편 6월 1일 몽골칭기스한대학 주체사상연구쎈터에서도 준비위원회 결성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쎈터 책임자 느. 볼드가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다음해 2.16과 4. 15에 즈음하여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 2.16경축 우간다전국준비위원회 결성

(평양 주체 90년 6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8차회의 특별결의를 관철하기 위한 모임이 11일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우간다 물, 토지 및 환경성 국무상 바구마 이쏘케를 비롯한 전국위원회 성원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8차회의 특별결의가 랑독되고 이어 이를 관철하기 위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결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는 다음해 2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을 맞으며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세계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8차회의 특별결의를 커다란 기쁨속에 접하였다.

이 세계대회는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을 인류공동의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로 뜻 깊게 경축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수행을 위한 주체사상신봉자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될것이다.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8차회의 특별결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채택한다.

1)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7돐이 되는 올해 6월 19일부터 다음해 2월 16일까지의 기간을 2월의 명절경축기간으로 설정한다.

2)이 기간 **김정일**각하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하고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더욱 강

화하며 다양한 경축행사들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활동을 조직진행하며 이를 위하여 2002년 2.16경축 우간다전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한다.

3)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세계대회에 참가할 대표선출을 실제적인 사업성과에 토대하여 의의 있게 진행할것이다.

모임에서는 2002년 2.16경축 우간다전국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바구마 이쏘케가 선출되였다.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준비위원회 결성

에티오피아

(평양 주체 90년 7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준비위원회 결성식이 5일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베우까뜨 따쏘우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7월 5일부터 2002년 4월까지의 기간을 기념 및 경축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기념집회와 토론회, 강연회,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 결성

(평양 주체 90년 7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 결성식이 24일 윈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오스트리아국회의원 뻬뜨로비치,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 위원장 막스 훼르웨르네르와 서기장 에리히 차바딜을 비롯한 협회성원들, 오스트리아 윈에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헬무트 하이르 웨케르가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 위원장은 세계정치의 원로이신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 나라의 번영과 통일, 세계의 자주적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시라고 하면서 그이의 위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해 태양절과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의의있고 다양한 행사들을 널리 진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결성식에서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 위원장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행사계획들을 토의결정하였다.

2월 16일을 맞이해 **김정일**장군님께 축전과 꽃바구니를 보내고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이 진행된 데 대해

구국의 소리 / 주체90, 2월 20일

사회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2월 16일을 맞이해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김정일**장군님께 축전과 꽃바구니를 보내고 각국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이 진행된 문제를 갖구요. 윤정원씨와 얘기 나눠보려고 자리 같이했는데요. 네, 먼저 상황에 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세계 각국에서 진행한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다 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죠. 우선 러시아연방대통령 푸친, 쿠바공산당 제1***국가평의회 의장인 라울 카스트로, 도미니카연방대통령, 레바논대통령 등이 축전을 보냈구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시리아 대통령, 그리고 중국공산협회, 이북주재 무관단,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일군들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선물을 드렸습니다. 또 장군님께 에콰도르 *****이 사회가 명예**칭호를 수여하는 축전을 채택했어요.

사회자 : 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일에 즈음해 여러 나라들에서 축전과 축하편지, 꽃바구니를 올린 것과 함께 다양한 행사들도 조직, 진행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네, 21세기의 첫해에 맞이하는 장군님의 탄신절이라 그 어느 해 보다도 세계 각국에서 경축행사들이 광범위하게 진행됐어요. 페루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선 경축집회와 기념토론회를 가졌구요, 캄보디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사진전시회나 영화감상회를 가졌습니다. 또 나이지리아신문과 기니통신, 마다가스까르방송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이 2.16기념특집을 했죠. 또 인도의 **서기를 비롯한 세계 각국 인사들이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해 담화를 발표했죠. 정말 세기에 빛날 위인칭송의 목소리라고 보는데요.

사회자 : 그러면 말이죠. 이번엔 2월의 명절을 맞는 경향의 민심은 어떠했는지 그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윤정원 : 네,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최모씨는 새 세기의 첫해에 장군님의 탄신절을 맞고 보니 감격도 새롭고 기쁨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일**장군님은 7천만 겨레가 우러러 경모하는 민족의 운명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라면서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했어요. *** 태양회 회원 박모씨는 장군님을 조국통일의 정상에 높이 모실 그 날을 위해서 언제나 민중의 앞장에서 헌신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구요. 화가 김모씨는 세상만물이 절세의 위인, 21세기 태양으로 칭송하고 있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모신 건 최상의 영광이고 대행운이라면서 장군님을 모신 민족적 자긍심을 금할 수 없다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또 2월의 대명절을 맞은 경향각지에서는요,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민중이 사진전이라든지 강연회, 시 낭송 등 여러 가지의 행사들을 벌이면서 2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는데 ***을 했습니다. 2월의 명절 아침, 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숭배열기로 차 넘치는 이 땅의 하늘땅에 세기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위인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가 울려 퍼졌어요.

사회자 : 네, 평양방송을 들어보니까요, 2월의 하늘땅에 펼쳐진 신기한 자연현상들도

많았다고 하던데요.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윤정원 : 네, 이북의 방송들이 보도한데 따르면 21세기의 첫 2월 16일, 장엄한 백두산 해돋이가 있었답니다. 이날 아침 백두산에서 어둠이 걷혀지고 혁명의 성산의 웅장한 모습이 완연해지자 동녘하늘가에 붉은 노을이 연하게 피어났어요. 7시 12분 40초경 향도봉의 우측 지평선에 태양의 웃 변두리가 나오더니, 7시 17분 40초경에는 아래 변두리까지 완전히 드러나서 향도봉 위에 솟아오른 붉은 태양이 빛을 뿌렸다는 거죠. 이 무렵 햇빛이 성에가 하얗게 낀 절벽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단장된 향도봉은 눈부시게 빛났고 노을이 불타던 하늘가에는 축포가 올라 꽃수를 놓은 듯이 무지개처럼 7색의 영롱한 꽃구름이 가득했어요.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축포성이 터져 오르듯 봄에만 들을 수 있는 한겨울 두터운 얼음장이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서 백두산을 진감했답니다.

또 2월의 명절을 하루 앞둔 15일 **시 판문군 연정리의 상공에서 때아닌 눈이 내리면서 때 아니게 번개가 치고 현란한 우뢰가 울렸답니다. 현지에서 이 자연조화를 목격한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한생을 살아왔지만 이처럼 눈이 많이 내리면서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리는 현상은 처음 본다면서 자연도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축복하는 것 같다며 기쁨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사회자 : 온 인류가 장군님의 탄신절을 그처럼 성대하게 기념하는 건 장군님의 영도철학이 위대하고, 영도업적이 출중하며, 영도풍모가 훌륭한 정치가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 그렇죠. 비상한 향도력과, 통찰력,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 장군님께서는 **** 다방면적인 이론활동으로 정치와 철학, 경제와 역사, 문화와 ** 등 여러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셔서 진보적 인류로부터 시대의 철학가, 깊은 이론과 철의 논리를 지니신 언변가, 문무를 겸비하신 ***가, 위인중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 받고 계시죠. **김정일**장군님의 특출한 영도풍모는요, 세계의 평화와 진보를 이룩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수많은 민중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새겨 주고 있어요. 인류는 장군님의 영도를 따라 나갈 때 온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되고 성공만이 따르는 고귀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류역사에서 처음 보는 그 분의 탄생일을 다채롭게 경축한 거라고 봅니다. 세계 각국에서 장군님의 탄신절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과 신문, 방송들이 특집을 한 것을 보고 우리 민족이 가장 위대한 분을 영도자로 모시고 사는 것 다시금 절감하게 됐습니다.

사회자 : 우리 민족은요,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 나갈 때 나라의 통일도, 민족의 창창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에 특색 있는 기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네,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 민족이 **김정일**장군님과 같이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고 사는 건 자랑중의 자랑이고, 영광중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각계 민중은요, 장군님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하구요, 그분을 통일정상에 모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힘차게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려면 그건 6.15남북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데 한 몫을 단단히 해야 할 거예요. 또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제동을 거는 반통일분자들을 민족의 족보에서 제명하기 위한 투쟁과, 통일의 걸림돌로 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도 함께 벌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2월 16일을 맞이해 세계 각국에서 다채로운 행사들과 신문, 방송이 특집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각계민중은요, **김정일**장군님과 같으신 위대한 분을 민족의 영도자로 모시고 사는 민족적 긍지를 간직하고요, 그분을 통일정상에 높이 모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는 걸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21세기를 조명해 본다

구국의 소리 / 주체90, 3월 7 ~ 9일

인류는 커다란 기대와 희망 속에 새 세기, 21세기의 기슭을 떠났습니다. 21세기는 어떤 세기로 될 것인가? 누구나 생각해보는 문제라 하겠죠.

윤정원씨 모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인류는 격동에 찬 20세기를 보내고 대망의 세기, 21세기를 기쁨과 기대 속에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세기에 세계는 과연 어떻게 변화발전하겠는가, 21세기는 어떠한 세기로 될 것인가. 이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음에 대답을 얻고자 나름대로 새 세기를 조망해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 위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역사는 곧 과거와의 대화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앞날을 내다보려면 뒤를 돌아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하죠. 이런 맥락에서 먼저 20세기가 어떤 세기였는가에 관해 말씀해주시죠.

윤정원 : 네. 돌이켜보면 20세기는 많은 사건들과 세계를 진감시킨 사변들, 미증유의 현상과 변화들로 엮어진 말그대로 사연많은 세기였었죠. 그러나 20세기의 기본특징, 기본흐름을 놓고 볼 때 20세기는 한마디로 자주성의 시대가 펼쳐지고 자주의 물결이 세계적 판도로 되고 있으면서 하나의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된 영광스런 세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수백년을 내려오면서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자주성을 박탈당해온 세계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됐는데요. 다시말해서 오랫동안 버림을 받던 민중이 시대의 중심에 확고히 서서 역사발전을 주도하는 자주시대가 펼쳐진 것이죠. 정말 자주시대의 도래, 이것은 전인류사적 의의를 가지는 20세기의 기본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사회자 : 네, 특히 20세기 인류사적 의의를 가지는 대사변과 위대한 업적은 자주시대의 지도이념인 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렇죠. 사상이론의 거장이시고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서 자주성을 위한 민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셨구요. 인류역사발전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셨어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혁명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투쟁과정에 주체사상의 진리를 발견하시고 주체 19 (1930)년 6월 카륜에서 진행된 동총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규명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노선을 밝히셨어요. 이것은 주체사상의 창시와 주체혁명노선의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 인류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사회자 : 그렇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위대한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민중들의 공통된 염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자주의 새 세계를 창조하는 현 시대 변혁운동발전의 지도사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 네, 그렇죠. 변혁운동이 민족국가 단위로 다양하게 벌어진 20세기 자주시대는요, 매개나라 민중들

이 변혁운동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노릇을 옳게 할 것을 요구했어요. 위대한 주체사상은 바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길을 밝혀줌으로서 매개나라 민중들이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변혁운동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했구요. 자기의 주견과 신념에 따라 자기나라 실정에 걸맞는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자체의 창조력을 동원해서 변혁운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역사적 발전과 발전단계에 있는 나라 민중들이 승리의 자신감을 갖고 민족해방, 조국해방을 이룩하고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게 됐죠.

사회자 : 네, 그건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따라 배우는 사업이 세계적 판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사실만 놓고 봐도 잘 알수 있다고 봅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대륙과 지구촌 거의 모든 나라들에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조직되어 있구요, 국제적 지역적 조직까지 정연히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변혁운동과 새 사회건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반 사실들은 20세기가 바로 주체사상이 공인된 시대적 사조로 되고 인류가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의 길로 나가는 것이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되어 온 세기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20세기야말로 만민신봉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셔서 자주시대 변혁운동을 일대 앙양으로 끌어올린 위대한 **김일성**세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회자 :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세기가 자주의 시대가 개척되고 실현되어 온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인류의 자주위업이 세계적 판도에서 실현되고 승리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족의 운명은 올바른 사상과 탁월한 수령의 영도가 없이는 개척되어 나갈 수 없는데요, 인류의 자주위업도 마찬가집니다. 오늘 우리 민족과 인류는 영광스럽게도 사상이론의 거장이시고 영도의 거장이신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행운을 지녔거든요. 아시다시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사상도 영도도 풍모도 똑같은 절세의 위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탁월한 예지와 혁명성은 사회주의 재건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상황이 실증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구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재건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사회주의운동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그래요. 그건요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 라는 평양선언 을 지지하는 진보적 정당들이 세계적 판도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윤정원 : 네, 그렇죠. 1992년 4월 평양선언 이 채택될 때에 여기에 서명한 정당은 70개에 불과했어요. 그 후 6개월 후에는 140개로 늘어났어요. 1년 후에는 170개, 오늘은 무려 251개에 달하고 있어요. 세계 진보적 인사들은 과거에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벌어졌다면 오늘 사회주의운동은 그 구심점이 평양이라고 하면서 이북을 세계변혁운동의 성지,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지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 정당들의 투쟁의 기치, 투쟁강령으로 되고 있는 평양선언 은 21세기에도 **김정일**장군님의 존함과 함께 사회주의를 위한 진보적 인류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 주는 고무적 기치로 찬연히 빛날겁니다.

사회자 : 네, 돌이켜보면 피압박민중은 장구한 역사적 기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지만 착취사회에서는 그걸 실현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주의에 기초한 착취사회에서는 민중의 자주성이 절대로 실현될 수 없어요.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로 넘어가야 한다는게 인류발전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때문에 사회주의가 재건되고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는 건 필연적이고 따라서 21세기에 사회주의재건운동이 더욱더 활발히 벌어져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 겁니다.

사회자 : 네, 그리고 21세기를 조명해보면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해서 인류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세계적 판도에서 벌어지고 빛나게 실현될 영광찬 세기로 될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오늘 진보적 인류는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덕성을 한몸에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칭송하면서 그분의 영도따라 자주위업의 승리를 이룩할 결의에 충만되어 있어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 주체사상이 세계에 급속히 파급되어 시대를 풍미하고 인류의 사상정신적 개변과 세계의 변혁과정을 향도하고 있기에 21세기에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세계가 개조변혁되고 역사가 진전되고 발전되어 나가는거 이건 불을 보듯 분명한 겁니다.

사회자 : 네, 그럼요.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참으로 희망찬 21세기는 **김정일**세기, **김정일**시대로 될 것이구요. 우리 민족은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셨기에 머지 않아 이 땅위에 통일강성대국을 우뚝 세우고 만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21세기는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세기, 자주의 세기로 될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21세기는 세계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 계시어 영광 빛나는 세기로 될 것입니다.



김정일총비서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로씨야경축집회

(평양 주체 88년 3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 57돐에 즈음하여 2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로씨야사회계 경축집회에서는 각국의 진보적 정당, 단체, 인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호소문은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시기에 오늘 조선인민은 력사상 류례없는 엄혹한 자연재해와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이 계속되는속에서도 인공지구위성의 발사와 같은 경이적인 사변으로 세계를 놀래웠으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호소문은 **김정일**동지의 걸출하고도 독창적인 령도는 지배와 억압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진보적인민들에게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고매한 풍모를 지니신 위인께서 계시여 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으며 세계 진보적인류의 자주위업, 평화위업은 다가오는 21세기와 더불어 더욱 승승장구할것이다.

참으로 **김정일**동지는 시대와 인류의 념원을 체현하고 구현해나가시는 세기의 위인이시며 그이를 모신것은 조선인민뿐이 아닌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행운이다.

하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에 즈음하여 로씨야사회계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각국의 진보적 정당, 단체들과 인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고따르자.
2. 해마다 2월 16일을 인류공동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는것을 전통화하자.
3. 조선인민의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지지와 성원을 보내자.

21세기는 **김정일**동지의 존함으로 빛날 것이다

적도기네민주당 부총비서

(평양 주체 88년 11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적도기네민주당 부총비서 깐디도 무아떼떼마 리바스가 조선방문을 마치고 귀국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락관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조선인민에게서 커다란 고무를 받았으며 새로운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이 존엄높은 영웅적인민으로, 조선로동당이 사소한 탈선도 없이 인민대중을 성공에로 이끄는 위대한 당으로, 조선의 무장력이 필승불패의 강군으로 될수 있은것은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모신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 1992년 4월에 수여해드린 적도기네공화국 최고훈장인 ≪대독립훈장≫에는 그이에 대한 대통령과 인민의 흠모심이 그대로 어리여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분은 **김정일**령도자이시라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21세기는 그이의 존함으로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각국에서 **김정일**총비서를 21세기의 태양으로 숭배

(평양 주체 88년 11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세계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21세기의 태양으로 우러러 숭배하고있다.

지난해 3월 스리랑카로조련맹청사에 **김정일**령도자의 초상화를 모시는 행사가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지난 5년간 방글라데슈인민련맹, 네팔국제연단, 몽골 터브도 알딴볼라그군 10년제중학교 **김일성**학급,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 애국전선 하라레주위원회, 기네통일진보당, 우간다인민방위무력 기계화부대 땅크학교, 메히꼬 라싸로 까르데나스로조전선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수십개 정당, 단체들과 대상기관들에 그이의 초상화가 모셔졌다.

김정일령도자의 탄생 55돐을 맞는 1997년 2월 미국의 로스안젤스에서는 처음으로 그이에 대한 사진전시회가 단독으로 열리였다.

사진전시회장에는 그이의 초상화를 비롯한 50여상의 사진이 모셔졌으며 참가자들은 사상과 철학, 신념과 덕망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위인중의 위인이신 **김정일**령도자를 모신것은 ≪세계의 영광, 인류의 행운≫이라고 격찬하였다.

지난 5년간 나이제리아와 또고에서 **김정일**도서관이 개관되였으며 꼴롬비아에서는 **김정일**문화쎈터가, 까자흐스딴, 마다가스까르, 기네, 앙골라, 가이아나 등 수많은 나라들에서 **김정일**동지명칭주체사상연구보급협회, **김정일**동지로작연구회, **김정일**주의연구소조, **김정일**동지청년운동사상연구소조가 결성된것을 비롯하여 30여개 단체, 기관 단위들이 그이의 존함을 모시였다.

최근년간 베닌건설로동당, 꽁고사회주의당, ≪대양의 평화≫국제위원회를 비롯한 16개 정당, 사회 단체들이 **김정일**령도자를 자기의 명예지도자,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하였으며 마다가스까르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30개 도시들과 5개 단체들이 그이를 명예시민, 명예성원으로 모시였다.

뻬루 뚬베스시리사회는 지난날의 관례를 깨고 새로 세계명예시민증을 제정하여 처음으로 그이께 시금열쇠와 함께 수여해드리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비롯한 세계 60여개 나라의 국가, 정부 및 정당 수반들과 저명한인사들이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과 조선로동당 총비서추대, 조선로동당창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등 주요 기념일들과 계기들에 그이께 축전을 보내여왔다.

한편 캄보쟈왕국 국왕, 우간다대통령 등 여러 나라 당, 국가 수반들과 정계, 사회계 고위 인사들이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조선대사관들에 보내여오거나 대사관들을 축하방문하여 그이의 초상화에 증정하였다.



≪**김정일**각하는 인류의 태양≫

외국인사담화

(평양 주체 89년 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58돐에 즈음하여 전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며 오스트리아 전 사법상인 인스브루그종합대학 교수, 박사 한스 클레카츠키가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김정일**각하께서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업적들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금수산기념궁전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고 **김일성**주석각하를 생전의 모습 그대로 모심으로써 수령영생위업의 력사를 개척하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주체사상의 정당성이 실천을 통해 립증되고있는 조선의 놀라운 현실은 **김정일**각하의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그이는 21세기를 향도하실 인류의 태양이시라고 지적하였다.

인디아유엔연구쎈터 국장 엠. 엠. 버르마는 담화에서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의 인덕정치로 하여 조선인민은 겹쌓인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보루를 굳건히 지킬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각하께서 진두에 서계시기에 조선인민은 강성대국건설에서 반드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빛날 것이다

탄자니아정계인사

(평양 주체 89년 6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제15차회의에 관한 통보모임이 최근 다르 에스 살람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주체사상연구소조 탄자니아전국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조정위원회 성원들, 주체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과 성원들, 탄자니아혁명당 다르 에스 살람주 청년동맹 각 구역 지부비서들과 동맹원들이 참가하였다.

탄자니아주재 우리 나라 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모임에서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제15차회의에 참가하였던 탄자니아국가상설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죠세프 에프. 음브윌 리자가 회의정형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였다.

그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개척하시였다고 하면서 정녕 그이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 20세기의 위인이시며 걸출한 혁명가이시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빛날것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켜 나가시는 그이의 로작들을 깊이 학습하여 탄자니아의 현실에 구현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제15차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을 해설하였다.

21세기는 영광찬란한 **김정일**세기

브라질의 종합대학총장

(평양 주체 90년 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을 방문한 브라질 깐디도 멘데스종합대학대표단 단장인 이 대학 총장 깐디도 멘데스는 체류기간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회견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 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는 세계 진보적인류가 **김정일**각하를 가장 명망 높으신분으로, 21세기를 이끄실 위대한 태양으로 칭송하고 있는것은 그이께서 특출한 위인적풍모를 지니시고 조선인민과 인류앞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계시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각하의 독특한 령도풍모에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김정일**각하께서 **김일성**주석각하의 사상과 령도를 변함없이 충실히 계승해 나가고 계시는 사실이였다.

둘째로, **김정일**각하께서 선대수령께서 한평생을 바치시며 이룩하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찬연히 빛을 뿌리게 하시는 사실이였다.

셋째로, **김정일**각하는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으로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밝혀 주시는 사상리론의 천재이시라는 사실이였다.

그는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김정일**각하를 모시여 21세기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찬란히 꽃펴나는 영광찬란한 **김정일**세기로 빛날것이라고 굳게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인류가 우러르는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세계 정계, 사회계의 반향

(평양 주체 90년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세계의 정계, 사회계는 조선의 최고령도자를 우러르며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고 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은 ≪21세기는 **김정일**세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새 세기를 맞이한 사람들의 가슴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자주시대의 태양으로 모시여 21세기는 인류의 념원이 전면적으로 꽃 피는 세기로 될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오늘 세계진보적인류가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는것은 그분이 바로 위대한 사상리론가, 철학가이시고 탁월한 정치가, 령도예술가이시며 위대한 인간이시기때문이다.

위대한 **김정일**각하는 21세기를 옳바로 이끌어 나가실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다.

뻬루 **김정일**주의연구전국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 독특한 정치로 사회주의조선을 더욱 빛내이고 계신다.

그이의 정치에서 특징적인것은 자주성이 강한것이다.

김정일령도자의 정치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것이다.

그이께서는 인민에 대한 한 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고 계신다.

군사를 앞세우는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정치에서 또 하나의 특징으로 된다.

그이께서는 독특한 선군정치로 조선인민의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에로 령도하고 계신다.

김정일령도자이시야말로 21세기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령도해 나가실 희세의 걸출한 정치가, 유일한 세계정치원로이시다.

벌가리아 슬로보신문사 사장 겸 책임주필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이 서방세력과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그 어려운 난국속에서도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하고 경제를 활성화한 그 모든 현실이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조선의 현실은 위대한 정치방식과 정치실력을 창조한 령장을 모실 때만이 나라도 빛나고 민족의 존엄도 강해 진다는 력사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 주고 있다.

인디아혁명적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선혁명을 이끄시는 과정에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신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풍모를 남김없이 보여 주시였으며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력사의 준엄한 폭풍속에서도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자기 조국이 사상강국, 정치대국,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게 하였다.

혁명의 지도자가 지녀야 할 모든 품격과 자질을 최고의 높이에서 겸비하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있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끝 없는 룡성과 번영의 새 시대가 펼쳐 져 있다.

김정일총비서는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평양 주체 90년 5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을 방문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비슈와나스는 **김정일**각하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것은 인류의 행복이고 기쁨이며 영광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찌기 항일대전과 반미대전의 불길속에서 강철의 담력을 키우신 **김정일**각하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혁명활동력사를 수 놓아 오신 탁월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김정일**각하께서 력사와 인류앞에 쌓으신 가장 위대한 업적은 복잡다단한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 주체사상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것이다.

김정일각하를 새 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려는 인류의 마음은 20세기 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과 함께 더욱 강렬해 졌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당과 국가, 군대, 경제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시여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시였다.

선군정치로 나라와 인민의 리익,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진군길에 나서신 그이의 품속에서 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세계제국주의의 온갖 봉쇄와 고립압살책동을 물리치고 조선인민을 강성대국건설에로 현명하게 령도하실뿐아니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특기할 공헌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넓으신 도량과 대용단으로 북남최고위급상봉과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시여 조선인민이 그처럼 바라는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 놓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정치로 승리해 나가는 위대한 나라이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김정일**각하를 사회주의운동의 걸출한 수령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으며 조선은 인류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선도해 나가는 나라로 그 이름 떨치고 있다.

인류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각하의 서거후 세계제국주의가 때를 만난듯이 사회주의는 종말을 고했다, 21세기는 사회주의가 없는 세기로 될것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던 시기 **김정일**각하께서는 20세기의 위기를 한몸으로 막으시고 사회주의운명을 구원해 주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절세의 위인이신 그이께서는 20세기를 빛나게 결속하시였다.

인류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미증유의 흔적을 남긴 20세기를 보내고 자주의 길에서 보다 큰 승리가 이룩될 21세기에 들어 섰다.

김정일각하는 자주시대의 방향타를 틀어 쥐시고 세계를 이끌어 인류의 념원을 실현하실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세계 진보적인류가 그이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는것은 바로 그이께서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리론가, 탁월한 정치가, 령도의 천재이시기때문이다.

김일성주석각하에 의하여 20세기는 자주시대가 개척된 세기로 빛을 뿌리였다면 21세기는 세인이 경탄하는 정치실력을 지니신 **김정일**각하의 령도에 의하여 인류의 자주위업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세기, 인류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세기로 찬연히 빛나게 될것이다.



21세기의 태양-**김정일**

조선통일지지 스위스위원회 위원장 글 발표

(평양 주체 90년 6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통일지지 스위스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는 ≪21세기의 태양-**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과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빛나게 경축하게 될 주체91(2002)년 2월 16일은 전 인류의 광휘로운 명절로 될것이다.

조선통일지지스위스위원회대표단은 조선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2002년에 진행되는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에 참가할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긴다.

조선인민과 독립과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은 **김정일**령도자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그것은 그이께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20세기에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시고 새 세기에도 계승해 나가시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은 새 세기에 조선인민에게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것이다.

이것은 **김정일**령도자의 빛나는 존함과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다.

세계는 20세기의 마지막년대인 90년대에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였다. 종당에는 레닌이 창건한 세계의 첫 사회주의국가였던 쏘련도 붕괴되였다.

이것은 수정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소행이였다.

이리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은 심각한 쓰라림을 겪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저들의 커다란 승리로 여기고 환성을 올리면서 북조선도 곧 ≪붕괴≫될것이라고 하였다. 허나 그들의 악의에 찬 언사는 괜한 것이였다.

동방에서 일대 기적이 일어 났다.

사회주의조선은 제국주의봉쇄와 포위를 승리적으로 이겨 내고 제국주의자들의 더러운 음모를 파탄시켰던것이다.

진보적인민들은 다시금 희망을 가지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령도자들이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위업, 진보적위업을 고수하였으며 그 결과 조선은 세계사회주의의 난공불락의 요새로 명성을 떨쳤다.

그분들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사랑하시였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을 최대의 과업으로 간주하시였다. 그분들께서는 세계력사상 그 어느 국가수반들도 받아 보지 못한 인민의 사랑을 받으시였다.

주체83(1994)년 7월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후 조선인민은 그 무엇으로도 메울수 없는 상실에 대한 끝 없는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그이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정일**장군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조선인민은 혹심한 자연재해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첨예한 정치군사적압력을 물리치는 투쟁에서도 **김정일**장군의 두리에 뭉쳐 모든 난관들을 과감히 맞서 나갔다.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련관된 조선의 기적들은 세계적판도에서 경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평화적이행≫전략이 조선에서는 성공할수 없으며 저들의 모든 시

도들이 파탄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김정일장군께서 바라시는것은 조국통일이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주석께서 발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김정일**장군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주체89(2000)년 6월에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회담이 마련되였고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조선사람들의 내부문제로 밝히고 온갖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있는 이 력사적인 문건이 채택된것은 통일을 위한 정력적인 투쟁을 빛나게 이끄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공적이다.

오늘 남조선사람들도 사랑과 긍지에 담아 ≪통일장군≫으로 부르는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 계시여 전체 조선인민은 통일이 곧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안고 있는것이다.

통일되여 부강번영하는 자주적인 조선이 **김정일**장군의 령도밑에 세계무대에 나설 날이 멀지 않았다.

지난해 2000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거둔 특기할만한 대외적성과도 **김정일**장군의 령도공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많은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미국무장관이였던 매덜레인 케이. 알브라이트는 2000년 10월 평양방문시 **김정일**장군을 위대한 국가지도자로 칭송했다.

김정일장군은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대외정책을 철저히 계승실현하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여 나가시였다.

이리하여 그이는 세계의 모든 저명한 정치인들과 인민들로부터 세계정치의 위대한 원로로, 우리 시대의 걸출한 령도자로 공인받고 계신다.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될것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독립과 자주의 세기, 21세기를 빛내여 나가실것이다.

세계인민들이여,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인간이신 **김정일**장군의 탄생일인 다음해 2월 16일을 인류의 가장 큰 명절로 빛내이자

21세기는 김정일각하의 존함과 더불어 빛날 것이다

마다가스까르정당 전국위원장

(평양 주체 90년 9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돐에 즈음하여 3일 마다가스까르로농투쟁당 전국위원장 라하리부니 로레뜨가 ≪21세기는 **김정일**각하의 존함과 더불어 빛날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9월 9일은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지 53돐이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광복후 들끓는 건국열의를 안고 새 조선을 일떠세우던 그때처럼 모두가 힘을 합쳐 강성대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섰다.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의 진두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 서계신다.

김정일각하는 력사와 시대가 공인하는 신념과 의지의 최고화신이시다.

신념으로 세워 지고 신념으로 다져 진 강국, 군대와 인민이 총폭탄정신으로 무장한 사회주의조선의 전진을 가로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김정일각하를 모시여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은 **김정일**강성대국으로 세계에 이름 떨칠것이며 21세기는 **김정일**각하의 존함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21세기를 주도해 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명예리사장 기자회견

(평양 주체 90년 8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명예리사장 이노우에 슈하찌가 25일 평양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진행하신 력사적인 로씨야련방방문소식을 끝 없는 감격과 격정속에 접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만민의 다함 없는 칭송을 받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련방방문소식은 전 세계를 들끓게 하였으며 자주를 위해 투쟁하는 진보적인류에게는 무한한 감격과 미래에 대한 끝 없는 희망과 락관, 신심을 안겨 주었고 정의와 진리에 도전하는 자주와 평화의 원쑤들에게는 준엄한 철추를 내린 엄숙한 경고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로씨야련방방문소식을 세계 150여개 나라의 텔레비죤방송들이 련일 특대뉴스로 보도하고 5대륙의 연 300억명이 이를 시청하였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도 경애하는 그이의 위대성의 높이와 무게를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다.

실로 국가최고령도자의 외국방문력사를 놓고 보아 그 류례를 찾아 보기 힘든 장장 20여일에 걸치는 5만여리의 멀고도 먼 로씨야련방방문로정의 자욱자욱마다에는 세기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인류사에 특기할 불멸의 업적이 수 놓아 져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번 로씨야련방방문을 통하여 조로친선의 강화발전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을뿐아니라 공산주의륜리도덕의 최고화신으로서의 숭고한 모범을 전 세계에 보여 주심으로써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키시였다.

세계 수억만사람들은 레닌묘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이께서 지니신 숭고한 도덕의리를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한 수만리장정의 길을 그리도 조용히 떠나시였고 그토록 위대한 업적을 쌓으시고도 그처럼 조용히 돌아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한 없는 겸허성은 지금 만사람을 격동시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을 떠나시게 된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그날로부터 전체 군대와 인민이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낮과 밤을 이어 가면서 그이의 안녕을 그리도 간절히 바라고 바라며 조국방선을 금성철벽으로 다지였고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 나간 사실은 조선의 일심단결이 얼마나 공고하고도 위력한것인가를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국가지도자와 인민이 있지만 먼길 떠난 어버이를 그리는 자식들의 심정보다도 더욱 열렬하고 진실한 혈연의 관계를 보여 주며 전 인민적감정으로 뜨겁게 분출된 조선인민과 군대의 수령숭배심과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아무리 세상을 둘러 보아도 조선밖에 더는 없을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을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시려는 **김정일**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는 세계를 격동시킨 력사적인 외국방문의 수만리장정을 끝 마치시고 조국에 돌아 오시여 겹쌓인 피로를 푸실 사이도 없이 그 길로 진행하신 인민군부대시찰과 라남의 로동계급과의 뜻 깊은 상봉에도 력력히 어리여 있다.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정일**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씨야련방방문을 통하여 세계 수억만 진보적인류는 그이이시야말로 주체의 억센 지레대로 자주의 궤도를 따라 지구가 움직이도록 하시는 희세의 위인이시며 21세기를 주도해 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라는것을

다시한번 가슴 뜨겁게 되새기게 되였다.
세계진보적인류는 현 시대의 가장 걸출한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세계정치의 위대한 기수로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뿌듯이 느끼고 있다.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사상에서 최고이시고 령도에서 으뜸이시며 풍모에서도 세계 으뜸이신 현 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끝없이 고결한 도덕의리를 지니신 성인중의 성인이시다.

축복을 받으시라 21세기의 태양이시여

태양이 찬연히 떠오릅니다.대지가 눈부심에 설레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을 안겨주며 새 세기의 태양이 환희로이 비칩니다.
겨레와 인류를 부흥과 번영에로 이끌어 가는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일에 세기의 태양을 우러르는 겨레의 찬가는 삼천리에 흐르고 위인칭송의 노래는 행송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민족의 아들로 탄생하심은 겨레 앞에 드리운 암흑을 불사르고 광명한 내일을 펼쳐갈 위대한 태양의 장엄한 출현이었습니다. 만물에게 삶을 주는 태양과 같이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세기와 세기를 이으시며 민족과 인류 앞에 쌓으신 불멸의 공적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일찍이 불멸의 **김일성**주의를 정립하시고 발전풍부화하시어 인류가 나아갈 진로를 환히 밝혀 주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의 위업을 승계하시어 20세기를 민족부흥의 세기로 빛내이시고 21세기를 우리 민족의 세기로 긍지 드높이 펼쳐 주셨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은 21세기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가시는 민족의 태양이십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강인한 의지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열강의 반북고립압살책동을 단신으로 맞받아 쳐부수고 이북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 내셨고 역사의 유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에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분의 탁월한 영도로 오늘 이북은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위상으로 세계를 놀래우며 창공 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독특한 선군정치로 이북민중을 이끄시어 이북 땅 위에 세인의 찬탄과 부러움을 자아내는 자주의 강국,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펼치셨습니다. 그분의 영도 따라 새 세기를 힘차게 열어 가는 북의 도도한 흐름은 그 무엇으로서도 가로막을 수 없는 격랑이고 대하입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은 21세기 통일부흥의 시대를 안아 오실 통일의 태양이십니다. 분단 55년 역사에도 이룰 수 없었던 통일의 대전환적 국면을 순간에 이뤄 내신 **김정일**영도자님의 통일의지와 애국의 대용단은 7천만 겨레뿐 아니라 전세계의 커다란 충격과 찬탄을 자아냈고 우리 민족에게 통일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낙관을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 민중은 평양상봉의 그 역사적 나날에 **김정일**영도자님의 태양의 모습에서 통일조국의 위대한 영수를 우러렀고, 뜨거운 동포애와 포용력에서 겨레가 안겨 살 태양의 품을 새겼습니다.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21세기 통일이정표 6.15공동선언 따라 부강한 통일대국을 한반도에 세우려는 겨레의 자신감과 의지는 하늘땅에 진감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은 21세기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견인해 가시는 자주의 태양이십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태양의 인력으로 만인을 끌어 안으시며 인류를 지배와 강권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기에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되돌아보면 20세기가 시작될 때 대국들의 발길에 체이며 식민지 노예살이를 강요당하고 외세의 간섭으로 분단의 비극 속에 눈물을 흘려야 했던 불우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계정치의 중심으로 떠올라 평양으로 대국들이 정중히 찾아가고 서방이 줄지어 이북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으니 민족의 존엄이 이처럼 최정상에서 빛난 적이 5천년 민족사에 언제 있었습니까?
참으로 **김정일**영도자님은 20세기를 망국의 비탄 속에 맞이했던 우리 민족을 21세기는 세계의 맨 앞장에서 힘있게 열어 가게 해주신 민족의 구세주이십니다. 7천만 겨레는 위대한 태양의 노래를 합창하며 **김정일**영도자님을 따라 무궁과 번영의 21세기에로 긍지 드높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정녕 **김정일**영도자님만 계시면 통일도 가까운 앞날에 있고 강성대국으로 세계를 주도할 날도 멀지 않으리니, 그분이시야말로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며 민족과 인류를 행복에로 인도하시는 세기의 영도자,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하기에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일을 맞는 이 뜻 깊은 아침에 7천만 겨레는 다함 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열렬히 칭송합니다.
세계 진보적 인류가 한마음으로 열창합니다.
영광 빛나라 **김정일**세기여!
축복을 받으시라 21세기 태양이시여!

김정일장군의 노래

백두산 줄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대지의 천만 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동서해 푸른 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시네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신운호 작사, 설명순 작곡)는 시대와 혁명의 진두에 높이 서시여 세련된 령도로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빛내여주시는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담아 창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위인적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이 나라 천만 심장들이 터친 만세의 환호성을 그대로 노래한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려는 겨레의 충효심과 더불어 불멸의 송가는 무궁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과 함께 온 세상에 영원히 울려퍼질것이다.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돐을 맞이하며

21세기 들어 더욱 찬연히 빛나는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53돐을 맞이하며 이남의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세기 공화국이 인류의 태양이시고 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영도아래 세계혁명사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며 백전백승하여 왔다면 오늘은 21세기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따라 역사의 기적을 거듭하며 통일강성대국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며 주체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와 맞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는 한편 전민족의 총의를 모아 참된 민주주의의 민중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잿더미 속에서 세계가 경탄하는 자주자립의 사회주의모범국가로 발전시키시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시였습니다.

국제적 수령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반제반미통일전선을 구축하시고 반제반미공동행동을 영도하시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는 한편 조국통일3대헌장을 밝혀주시고 이를 현명히 구현하심으로써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리셨습니다.

이민위천의 좌우명으로 한평생 민중행열차를 타시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시며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시고 민중이 주인으로 한없는 행복을 누리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생애와 건국위업은 조국청사와 인류혁명사에 영원무궁토록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충효의 화신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건국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는 한편 **김일성**헌법을 제정하심으로써 수령영생위업완수라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불후의 대공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천재적 사상이론가이시며 노숙한 정치가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주석님의 주체적 건국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는 한편 독창적인 선군영도로 전대미문의 난국면을 주동적으로 돌파하시며 전민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꽉 들어차고 인공위성을 쾅쾅 쏘아올리며 남부러울 것이 없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계십니다.

세계초강대국이라는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연전연승하시며 포위환국면을 역포위환국면으로 전환시키신 장군님의 신묘한 전략으로 인하여 오늘 미국은 정치외교적으로 갈수록 고립되는 반면 조선의 국제적 지위는 최고조에 달하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온 지구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세계적 정치원로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미대결전에서 승리한 그 기세를 이어 지난해에는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을 천명하시며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뚜렷이 밝혀주시는 한편 최근에는 러시아공식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시며 모스크바선언을 발표하심으로써 21세기 자주화위업을 위한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 예지와 비범한 전략으로 빛나는 6.15공동선언과 모스크바선언은 영구분단음모와 세계제패전략에 피눈이 된 미제국주의에게 가장 정확하고 심대한 정치사상적 타격으로 되는 반면 7천만 겨레와 진보적 인류에게는 통일강성대국건설과 전세계자주화의 휘황한 전망을 안겨주는 역사의 좌표, 필승의 보검으로 됩니다.

지금 진보적 인류는 불볕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장장 5만리 대장정에 오르시어 미제국주의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시고 새세기 자주화대강을 밝혀주시는 한편 사회주의붕괴 이후 붉은광장에서 처음으로 열린 명예의장대의 분열행진 속에 레닌묘를 찾아 헌화하시는 위대한 혁명가 **김정일**장군님의 헌신적인 노고와 숭고한 도덕의리에 눈시울을 적시며 최대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하에 자주의 궤도따라 백전백승하며 전진하는 주체조선은 7천만 겨레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살 어머니조국이며 진보적 인류가 유일한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주체사회주의조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남 민중 속에는 조국통일도 세계변혁도 다 맡아 나서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참된 구세주이시고 인류의 걸출한 영도자이시며 민중중심 민중복락의 공화국이야말로 우리 민중이 수수천년 꿈꾸어오던 지상낙원이라는 칭송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필승불패 전위당의 향도따라 주체의 조국을 바라보며 투쟁하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광범히 전파하는 사업에 통일혁명의 지름길이 있고 최대의 보람과 영예가 있다는 진리를 명심하며 위대성선전사업에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6.15공동선언과 모스크바선언이 발표된 역사적 조건에 맞게 전략전술을 신축성있게 구사하는 한편 당면해서 광범한 국민대중을 반미반이회창투쟁에 총분기하도록 적극 추동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사업에서 기수가 되고 선봉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만수무강은 7천만 겨레와 진보적 인류의 일치한 소망이며 최대염원입니다.

이남 청년주체주의자들은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며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9월 9일
서울